

MAXIM

KOREA

FC서울의 여신
TBS 리포터 **한지은**

DIGITAL
육수남을 위한 방수 기어
베가 레이서 VS 갤럭시 S2

SPORTS
MMA 링결의 대세
켈리 허차슨
UFC 6연승 도전 김동현
최고&최악의 야구 중계진

MOTOR
HONDA
INSIGHT
EATS...
BMW X3의 역습
7월의 SUV 총정리
악마를 닮은 모터사이클

<신기생년>의 금리라
한혜린

**SUMMER
BEACH
SPECIAL**

2011 미스 MAXIM
최혜연과의 서핑
비키니와 해변 드라이브
작업 성공률 100%
먹어주는 여름 패션
시간대별 해변 헌팅 전략
워터파크 작업 노하우

영의정 게임
최효종

**THE
MAXIM
PARTY**

Narsha
BROWN EYED GIRLS

2011년 7월호
정가 5,400원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아이패드 뒀다 뭐 하나, MAXIM 안 보고?

※ 앱스토어에서 [맥심], [MAXIM] 을 검색하세요!



iPad / iPhone
MAXIM 출시 완료

iPad

iPad에서 동영상, 고화질 확보를
확려한 인터랙티브 기능과 함께
시원한 화면에서 즐겨라!

iPhone

iPhone에서 하나의 통합된
앱으로 MAXIM을 만나라!
무료 과월호가 짝짤하다!

MAXIM 아이패드 독자를 위한 SPECIAL GIFT

“무료 앱만 받아도 선물이 쏟아진다!”

이벤트에 응모한 독자 중에 **매월 50명을 추첨**하여 아래 선물을 마구 쏘겠다.



선물1
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2장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우리금융아트홀



선물2
공연을 볼 수 없는
독자에겐?



MAXIM 아이패드 앱이 나오기 전까지의
과월호 8권 패키지를 보내주며
한 권도 빼놓을 수 없잖아?

OR

응모 방법

- 1 앱스토어에서 MAXIM 아이패드 앱을 받는다.
- 2 아이패드로 MAXIM 아이패드 앱을 열고 있는 사진을 이루거나 찍는다.

- 예 -



- 3 010-5199-1182 로 사진을 첨부한 MMS를 보낸다.

42 LOVE

시간대별 해수욕장 헌팅 전략

이렇게까지 가르쳐줬는데도 당신
여름이 안 뜨겁다면 곤란해

76 서핑을 배우지(는건 핑 계고 실은 안구) 영화 대작전

손대면 툭 하고 터질 것 같은 핫 걸
최혜연에게 서핑 가르쳐준다고 바
다에 데려가서 비키니를 입히고...
그날은 정말. 휴우~ 뜨거웠지.

82 ICON 달인 김병만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진짜 '달인'

90 강한 남자 김동현

코리아 스타건이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UFC 6연승을 향해 쓴대

93 상암의 여신 한자은

FC서울 남성 축구팬들의 로망과
함께 '공돌이 화보'를 준비했다.

98 공포 영화 생존 법칙

살고 싶나? 그렇다면 이것은
기억하라! 공포 영화 속 뻔한 법칙들

100 공군의 (자)F-X 사업

이놈의 전투기는 도대체 언제쯤
지출 수 있던 말인가!

104 MMA 링걸

켈리 허처슨

트라이앵글초크, 여자들 싸움
그리고 미묘한 엉덩이.
이 화보에 다 있다.

110 WORLD WAR NEXT

빈 라덴은 죽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114 MAXIM BRAZIL

모든 브라질 남성의 로망. TV 리포
터 모니카 아보르가 MAXIM 브라
질 판 커버를 장식했다.



68 나르샤

이렇게 풀해도 되나요?



84 +
한혜린

〈신개생단〉의 '글러라' 가 누구지
궁금했지? 우리도 그녀 때문에
주말마다 잠을 설쳤다.



49



110



76



24

12 CIRCUS
MAXIMUS

비키니와 미니, 최고/최악의 아구 중계권, 손가락 잘리먼?, 돈으로 통 튀기, 코가 풀리의 125년, 뿔가뿔가를 집대성한 위인 열전, 박재에 미친 인간, 하마와 악어의 한판 승부, 유티파크 헌팅 지도, 외국어 욕 배우기

24 24 HOURS
TO LIVE: 최효종

영의령 개암 의 청사지, 최효종도 죽음 앞에서 개그를 멈췄다.

34 RATED

〈트랜스포머3〉 위러이 총집합, 복날 극장으로 피신한 동물들, 여름용 공포 열, 〈외우대역본〉 42매치 커밍 숲, 간덕후 모여라~ 건프라 월드 엑스포

40 MUSIC

장하비가 만난 칠진밴드 몽구스

44 STUFF

배가 레이서 VS 갤럭시S2, 맘플라남에게 필요한 방수기어, 최적의 여행 파트너 기어어차피 여잔 안 생겨, 제대로 된 총싸움을 위한 장난감 총 너프 건

55 MOTOR

e스쿠터, M55 MAXIM과 BMW X3의 비키니 화보차가 비키니를 입진 않았어, 초식+육식=인사이드 하이브리드, 국내 시판 SUV 중장리, 악마와 애일리언을 닮은 괴물 모터사이클

66 DRINK BEER

성경보다 오래된 맥주 이야기

120 STYLE

시원한 손목시계, MAXIM 선정 2011 SUMMER HOT STYLE 남자의 허리에 힘을 주는 벨트, 태양 없이 하는 셀프 태닝, 수분 충전 아이템

134 THE
MAXIM PARTY

MAXIM 속 핫한 그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MAXIM PARTY! MAXIM GIRL을 스타이지 곳곳에 숨겨놓았으니 눈 부릅뜨고 어서 스텝에 징장왕령!

FUN한
게임을
즐거라

Real 4D
이어편!

진동으로 즐기는 신개념 4D 이어폰
Real4D EARFUN과 함께라면 진짜게임이 된다!



아이몬더 김여희



80S1M



80HD



80K1



80K2

스마트폰(원
미이크



300SE (아우도어함)

VIBE^{BS}

1588-9439

☎예약전화 www.echo-shell.com

편집장 이경비
yj@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수석에디터 차정 고경희 koko@maximkorea.net
에디터 이상승인 sm@maximkorea.net
대리 김진현 psycho@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maximkorea.net
주임 김희성 alic@maximkorea.net
사원 송종민 jm@maximkorea.net
개천에디터 김재영 storm@maximkorea.net
이은은 pep04@maximkorea.net
장바버 juliahar1@maximkorea.net
아사스팀트 박한별누리 nu@maximkorea.net
조유림 new@maximkorea.net

DESIGN / 디자인

디자인 담당자 berrymes@maximkorea.net
주임 이은화 eastlocust@maximkorea.net
사원 이보라 bora@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 기획 전략

이사 소성혁 so@maximkorea.net
과장 안두빈 woodin@maximkorea.net
과장 유승민 sm@maximkorea.net
주임 최민영 joy@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대리 김중국 jk@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maximkorea.net
대리 송슬피 soulmate@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웹장 사정민 oris@town.com

발행인/ 대표이사 이혜성

전무이사 김경선 / 이사 양영주 / 이사 황해진 / 이사 소성혁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교열 신선경 kshin011@dsam.net

인쇄 · 원색분쇄 (주)라타타피네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사리 12-1 인쇄인 이현순

유통 송주출판유통



발행처 (주)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06-301 MAXIM KOFEA 빌딩 1~4층
TEL. 02-323-1182 / FAX. 02-625-0193
2011년 7월호 통권 제10호 / 등록일자 2009년 2월 30일 / 등록번호 마로 라-00250

MAXIM KOFEA는 세계 30여개국에서 발행되는 글로벌 남성 월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이다. MAXIM 창립의 후원자 미국인 알베르 피에르-그롬은 2009년 7월 2일부로 대한민국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 부여받았으며, 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하게 라이선스 계약이하여 MAXIM의 한국판권을 출간,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함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알베르 피에르-그롬과 알베르 피에르-그롬의 대표인 알베르 피에르-그롬과 알베르 피에르-그롬의 대표인 알베르 피에르-그롬은 2009년 7월 2일부로 대한민국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 부여받았으며, 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하게 라이선스 계약이하여 MAXIM의 한국판권을 출간,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함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알베르 피에르-그롬과 알베르 피에르-그롬의 대표인 알베르 피에르-그롬과 알베르 피에르-그롬의 대표인 알베르 피에르-그롬은 2009년 7월 2일부로 대한민국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 부여받았으며, 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하게 라이선스 계약이하여 MAXIM의 한국판권을 출간,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함을 갖고 있습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EVENUE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NCOX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W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ERIK VANVOORHEES

DENNIS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4th Floor, New York, NY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MAXIM INTERNATIONAL EDITION / EDITOR IN CHIEF

USA JOE LEVY

ESPAÑOL-UL-HISPANIC ANDRÉ FÉLIX DIAZ ROJO
Dominican Republic

UNITED KINGDOM BEN RAWORTH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FRANCE FRANÇOIS DE GUILLEBON
Belgium, Switzerland, Canada Québec

GERMANY MIKE BLEIBTREU
Austria, Lichtenstein, Switzerland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Slovakia

SERBIA LAZAR JOVANOVIC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om

TURKEY KAAAN KUSTUTAN
Cyprus

ITALY CARLO CROCI

PORTUGAL PEDRO JAVALOYES

RUSSIA SASHA MALENKOV

ARGENTINA GERMAN PITTELLI

BRAZIL ROMARIO OLIVEIRA

BULGARIA HRISTO ZAPRYANOV

GREECE GEORGE FOTINOPOULOS

INDIA VIVEK PAREKH

INDONESIA TITAN HARINDA

THAILAND SIRDET PETCHJAMROANSUK

UKRAINE SASHA MALENKOV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

copyright©2011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LETTER FROM MAXIM



프러아구가 뜨겁다.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연속 매진이다. 한국시리즈가 가까워질수록 이 열기는 점점 뜨거워질 것이다. 한 달 전, 이 열기와는 무관하게 충격적인 비보가 MAXIM 편집부를 무거운 침묵에 잠기게 했다. 6월 호를 발행한 지 딱 하루가 지난 오후, 갑자기 고 송지선 아나운서의 이름이 검색 순위에 올랐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무수히 많은 추측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했다. 나는, 그리고 그녀를 직접 대면하고 함께 MAXIM 표지 촬영을 진행했던 에디터와 스태프들은 차마 그 기사들을 열어보지 못했다.

충격은 깊은 슬픔으로, 그리고 곧 분노로 바뀌었다. 온갖 매체들이 한 건 제대로 물었다는 듯, 자신이 뺄 수 있는 가장 자극적인 문구를 써서 클릭 경쟁을 벌였다. 그녀의 사랑이 사실로 확인된 다음 날, 어느 스포츠 신문은 두산 베어스의 승리 소식을 전하면서 굳이 "OOO 역전 적시타로 자살 스캔들 악재 출몰"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걸어 놓기까지 했다. 별의별 언론사에서 MAXIM 사무실로 전화했다. 그녀의 미공개 화보 사진을 달라는 거였다. 나는 전화기를 아예 내려놓았다.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인터넷 게시물과 SNS에는 추모와 슬픔에 대한 글도 있었지만 그녀에 대한 기사 돌린 비난과 상스러운 글도 끊임 없이 올라왔다. 일 때문에 인터넷을 쓰지 않을 수는 없기에 인터넷 창을 띄울 때마다 몹시 괴로웠다. 진실이 무엇이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건 그녀는 우리에게 그저 변함없이 MAXIM의 여성이고, MAXIM은 그녀 편이다. 그리고 우린 그녀를 절대 잊을 수 없다.

그녀가 떠나던 날 우린 그녀의 마지막을 배웅하려 빈소로 향했다. 빈소로 향하던 늦은 밤, 공기에 젖은 잔한 라일락 향기가 코를 감쌌다. 평한 코끝이 더 저러왔다. 가만히 놓인 그녀의 영장 사진은 생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사무실에 돌아와 MAXIM은 그녀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좀 더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추모 영상을 만드는 게 전부였다. 추모 영상을 만들던 에디터의 눈가에 눈물이 그림그려졌다. 송 아나운서가 생전에 표지 촬영을 했을 때 캣코터를 들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신이 나서 영상을 편집하던 친구였다.

홈페이지에 올린 추모 영상에 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올려주었다. 저속한 인방야를 짚어대는 여성 인터넷 기사 판들과는 달리 진실으로 함께 가슴 아파하며 지내던 그녀의 영목 비는 내용들이었다. 그녀를 향한 MAXIM 독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무조건적인 응원을 조금만 더 빨리 전할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해 그녀가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늦은 후회가 계속 마음 한 구석에 잠처럼 남아있다.

에디터들 모두 그 짐을 굳이 떨쳐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나도 이 짐을 계속 가지고 가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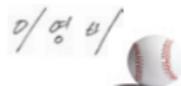
고인의 영목을 간절히 바랍니다.

추모 영상 보기



MAXIM에겐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기억될
송지선 아나운서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편집장





Letter



성인 잡지라니!

대학 입학하면서 예전에 모아두었던 맥시를 뚱뚱 따 들고 가족사로 들어갔다. 폭풍인기를 얻으며(나팔고 맥시)도 절찬리에 대어 되었다(영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알림) 하지만 이 녀석들이 화보 사진만 보고, 개장수 냄새를 맡은 8월 동계 영문인만큼 풀가한 맥시의 기사를 읽지 않는 거다. 그리고선 이놈들이 수박 겉 핥기 감상을 끝내놓고 나를 변태로 몰고 있다. 이 일한 내용의 맥시를 성인잡지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 엄청난 녀석들은 맥시의 매력이 아름다운 처자의 사진에서만 나오는 줄 알고 있다. 에디터님들과 편집장님의 노력에서 나오는 쓸쓸한 기사가 바로 읽어두면 빠가 되고 실이 되는 핵심인데 말이다.(물론에서 여자 건지는 법이 실이 밀고 물는 유령하지 대충! 결국 이놈들 정독을 안 해서 클럽 가서 여서 못 간겠다. 잠잘방에서 자고만 왔다. 친구 놈들에게 여러 번 말해도 안 통한다. 이 놈들... 신나게 볼만 언제고, 맥시쪽에서 따끔하게 성인잡지가 아남을 큰 글씨로 공표하였음 한다. 맥시전도사 대전지부 감독사, e-mail 사연(4787)

▶ MAXIM은 성인잡지가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시죠. 린도 아닌 것들이 성인잡지 운운할 때마다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엄연히 청소년도 구매하게 나온 잡지인데 말이죠. 성인잡지는 서점에서 살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MAXIM 사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던 분 계신가요? 없지요. 아마 친구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인터넷 피라미 때문일 겁니다. 요즘도 많은 인터넷 피라미들이 MAXIM 관련 이슈만 나오면 '성인잡지'라는 단어로 클릭질을 유도하거든요. 지난 5월 걸스데이가 강범했을 때도 MAXIM을 큰 적도 없을 듯보임 피라미의 인터넷 기사 지지세가 '걸스데이가 성인잡지를 찍었다. 막강행보'라며 낚시 기사를 쓰는 바람에 분노 폭발했죠. 어떻게 할까요? 표지에 성인잡지가 아-라고 쓸까요? 아니면 101만 MAXIM 독자들이 한 번 볼 잡고 서울에 모여 무너낸 거지인 매기가 전문 인터넷 피라미스트들을 축출하는 게 더 절필할까요? 우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성인잡지!

김희성 에디터 & 두산 임태훈

난 가끔 기사에 모델로 등장하는 김희성 에디터가 참 대단하다고 본다. 착한 하드웨어와 재치있는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조합. 맥시 측은 반드시 그녀에게 모델로 지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박찬영님도 누리 씨가 남지라는 사실에 굉장히 실망했다)



문제의 김희성 에디터

당함 어이 애플!

Dear any Apple's representative,

Hi,
I bought the 1-Pad2 for its various apps and expectation for getting MAXIM(Korean edition). However I can't! As far as I know, the Korean Maxim editor sent you the prototype of Maxim(in April,May) to you already, but you didn't approve its publication on mobile yet. Why? In my opinion, Maxim is an informative magazine for both men and women and if you allow it to be available on the 1-Pad and 1-Pad2 Apple would get more attentions. I hope the day I can read Maxim(Korean edition) on my 1-Pad2 will come so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in advance.
Your friend
Yohan Seol,
South Korea



좀 기다리라고!

MAXIM 아이패드2의 신간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것이 애플사의 늦장 감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직접 애플 사에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농담 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호소문을 애플에 보내달라는 글을 쓰셨을 수도 있지만 진짜 썼습니다. 애플이 소비자를 우대한다면 이 글을 보고 빨리 맥시 한국판을 내보내 주겠지요?^^ 그리고 담당자 메일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만 제가 조금 또 보내줘! 좋은 하루 되세요 맥시 편 집자님^^ 설요한, e-mail 사연(temleyo)

▶ 정말 감사합니다 X 100! MAXIM은 정말 독자님 같은 분들이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덕에 지금처럼 곳곳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 담당자가 식겁했겠네요. 메일을 보냈던 시기가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MAXIM 아이패드 버전 4월호, 5월호가 한창 동안 갈수단체에서 써고 있다가 두 분이 한꺼번에 알려주신 것도 있는데요. 아마 독자님의 편지를 읽고 서둘러 갈수를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보리의 마음

그리고 지난호는 일테훈 디스기가속 시안했다. 개나리 짜질한 셋길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된 책이잔 갈 주어서 속시원하다. 인공음보라고 나중에 얼마나 즐기고 사는지 두고 보겠다. Tim, e-mail 사연(hb1023)



나로사입니다!

한국사 3대 정변의 하나로 국사책에도 실려있는 바로 그 '나로사 정변'의 나로사입니다!

▶ 우리 이 사연이 김희성 에디터의 자작 극이라는 의의이래 그책을 잠시 추천하고 있다. 모델이름을 달라고 솔직히 자작극은 아닌 것 같으나, 그책을 좋아하는 것이 참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 추천할 생각이야. 그녀의 누명을 풀고 싶다면 Tim 당산이 실존 인물이라는 걸 증명하기 바란다(그리고 박한필누리는 다려운 새사자이다) 디스 기사가 나간 후 몇몇 독사 글수영이들이 우리 일맥을 곡했다며 편집부로 항박질을 하기도 한리도 아-있었다. 그스를 한디디 나그 아저머니 소식이 없다. 끈기 없인



정확하게도 버리빠봐의 그 경성행사 의상을 편집부에 기증하고 가세요.

원래! 저 주세요!

저를 주세요!

국무총리실 MAXIM독자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국무총리야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입니다. 짐은 어나니 입박이 심해 사무실에 맥스를 편히 입을 버림길은 마련했습니다. 제 직장 동지들은 여자가 훨씬 많아서 맥스에 호응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인기 폭발입니다. 오, 하려 여자들이 더 많이 맥스를 열독하고 있는데 왜 우리 회사는 맥스미여자에게 더 인기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영명배, 문자 사연 (1192)



아, 실수로 그와 노를 바꿔적어서, 한쪽 가사로의 행사 의상이며, 바꿔달라고요.

공복 맥스를 필요는 알겠지



▶ 원래 그들다. 여자기 MAXIM에 빠지던 일도 없다. 실제로 MAXIM독자의 15%를 차지하는 여성 독자들이 남성들보다 더 열성적이기도 하다. 브랜딩 별 핸드백 골뎀선이나 실내는 집잔만 보다 MAXIM을 보던 일이나 재치있어? MAXIM에도 남자 에디터보다 여자에디터가 많다. MAXIM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알뜰을 박아넣린 거다. 많은 여자들이 알기도 전에 애도씩 잡지라는 오해를 한다. 여자를 MAXIM독자로 만들려면 슬쩍 환경을 바꿔 줘야. 며칠 후 그후는 다음호를 요구할 걸 기대.

근본적인 차이



직장 동료는 GO를 본다. GO에서 이번째 부록이 나왔는데 'HOW TO BE A GENTLEMAN' 이라고 써 있었어. MAXIM이 실은 문구인 'BAD GUY'S BIBLE' 과 관련성이 참 달라서 싸이 웃었다. Tim

MAXIM CARTOON BY 김희성

사죄의 글

아- 이번 달에도 에디터가 명신 같은 오 테고 많았다. 미안하다 미안해. 군기가 빠진 것 같아 이번 여름 저쪽 같은 국가 훈련을 보내 '오리발 내지않자'를 우리끼리 K제조를 500번을 시키겠다. 지난 달엔 '애정을 싫어'라고 써야 할 것을 '애정을 싫어'라고 썼다. 에디터들의 국어 실력이 떨어진 않는다. 다음 한국어능력시험 98대의 능자들이지만 9월 중점을 언제고 최고 독후감을 하면 뇌가 개만 헛자 마냥 하릴걸 공는 모양이다.



독자 사연 응모

응모 방법
 ▶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서교동 446-36 MAXIM 코디 빌딩 4층 편집부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텔레머시 접수: 에디터에게 텔레머시를 쓰아라. 장 어릴수록 신세 가사 분화병을 올리도록 진짜 된다

무슨 내일이든 좋다. 다 받아주겠다.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연을 보면 1인을 선정하여 이번 달엔 가쓰비 화이트 샤워시 이이 스킨 크림 150ml를 클린링 모 멘을 선사하겠다. 알뜰 개운하게 박혀 두는 시원한 여름 보습제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사연도 우리 다 읽는다. 다만 수컷의 벗은 몸 사진 따위는 이제 제발 그만 좀 보내라. 부탁이다. 대체 뭐가 문제야? 응?



SKIN79 DAY!!

소셜커머스보다 통 큰 최대 **79%** 할인 혜택!!



7월 9일 SKIN79와 **79**(친구)하고 최대 **79%**까지 할인 받자!!

SKIN79

WWW.SKIN79.COM / CUSTOMER CENTER 1544-2230



CIRCUS M

에이프릴 볼비와의 첫 데이트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코믹 드라마 <드롭 데드 디바(Drop Dead Diva)>를 빛내는 아름다운 그녀가 해변에 누웠다. 아, 그저 모래알이고 싶어서.

실제로 모델로 활동하고, TV 드라마에서도 모델로 나온다. 당신 같은 여자와 사귀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것 같다.

남 사심 미아너한 언더그로스타입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게겐 없는 유아 감각과 풍부한 교양을 갖춘 그런 남성들에게 끌리는 편이다.

시트콤 <세 남자의 동거(Two and a Half Men)>에 같이 출연했던 배우들을 놓고 보자면, 찰리 신보다는 존 크라이어 쪽을 택하겠군? 맞대조 존 크라이어의 좀 짜질한 캐릭터가 내 타입에 가깝다.

유취! 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럼 당신을 어디로 데라가야 좋을까? 멋진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스파게티와 미트볼을 먹고 싶다.

그리고 레드와인을 마시는 거다!

좋대 난 와인을 입에 달고 산다. 와인은 병 모양, 코르크 마개를 따는 것, 향을 맡는 것 등등 모든 면에서 감각적이다. 약간 잘난 체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와인을 아는 사람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캐스 앤드 킴(Kath & Kim)>에서 스트리퍼로 나왔다. 와인을 마시고 함께 스트립 클럽에 가는 건 어떨까?

한 1년 정도 사귄 사이라면, "그래 우리 마친 지을 같이 해보자"고 할 거다. 그런 것도 난 무척 좋아하니까. 하지만 첫 데이트에서 라면 좀 그랄다.

셋, 아쉽지만 그럼 평범한 클럽에 들르자.

흠, 나는 미하일 바리시니코프(영화배우, 무용가의 춤을 기대하고 있는데, 클럽 안에 남자들이 추는 춤은... 딱히 정해진 답은 없지만 늘 어딘가 이상해 보인다).

만약 우리의 춤동작이 당신 보기엔 별로라면, 어떻게 할 건가? 때릴 건가?

좀 구식이지만 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 차 문을 열고 기다려주는 남자를 사랑한다. 팀을 잘 주는 관대한 남자는 언제나 먹히게 마련이지. 전율하고 고전적인 매-남이 좋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여자가 되고, 당신은 나의 남자가 된다.



그럼
더 보고 싶다면

AV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에이프릴 볼비

생년월일:

1980년 7월 30일

태어난 곳:

미국, 캘리포니아

진짜: (세 남자의 동거)에서
앨런(존 크라이어)과의 우
둔한 전 부인

현재 출연작: 코미 드라마
(드롭 데드 대박)에 섹시녀
스테이시로 등장

독특한 남성관: 존 알코비치

독특한 취미 생활: 뜨개질

"내가 한가한 해엔 내 주변
모두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목도리를 받게 된다."

트위터 뉴바: "온라인 친구

를 찾고 있다... 근데 어떻
게 말하니 하나도 안 섹시
한 사람 같잖아"

@aprilthebowlby



야구 중계진 BEST&WORST

맥주의 치킨마냥 프로야구의 흥을 돋워주는 남·남 커를 최강자전 가장 찡진 입맛춤을 하는 이는 과연 어느 커를일까? BY 김현민

▶ 한명재+이순철=명품중계

더 이상 거칠 게 없다. MBC 스포츠+의 터트대강 하구연 해설위원 때문에 주로 팽일 경기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아쉬울 따름. 이들 조합을 맞았고 나면 다른 중계진은 그저 망망하게 느껴질 거다.

개강카 한명재 캐스터

"함프르!" 발음으로 유명한 한명재 캐스터는 경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선수들의 정보에 해박하다. 예타존의 파란파란 한 유행어도 적절히 활용해 야구 보는 재미를 200% 끌어올리는 것 역시 그의 매력이다.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기아가 나자원의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우승을 거둔 당시 그가 "기아 우승" 만 주절거리던 타자의 병타 중계조와 달리 한명재 캐스터는 "기아 타이거즈 우승 나자원이 차지했습니다. 언젠간에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하겠습니까. 이쯤 수를 푸는 데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10번째 우승입니다" 라는 때과로운 멘트를 내려 그가 '개강카 캐스터' 인지를 증명했다. 우승 순간을 영상으로 소장하고픈 기아 팬들이 그가 중계했던 영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 한마디로 그가 없는 야구 중계는 안보 없는 짬뽕

그의 용무야 원소 한명재도 15년 전 조는 잘 잊고서는 WWE 레슬링 중계를 하러와 간담 출진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다.

모두까기 인형 이순철 해설위원

상대를 가리지 않고 모두 깎고 해서 붙는 별명인 '모두까기 인형'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뻔한 소리만 늘어놓는 다른 해설자와 달리 이순철 해설위원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시원하게 까버린다(인티를 친 타자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인티를 맞은 투수를 까는 일이 많을 정도). 2011년 시즌 첫 승을 거둔 유신민 선수와 나눈 수훈 인터뷰가 대표적이다. 첫 승 축하 인터뷰였음에도 이순철은 "직구 구속도 좋은 녀석이 계속 변화하던 던지는 이유가 뭐야? 그러다 나 직구 구속 떨어지면 X 된다"라며 폭풍처럼 까냈고, 유신민 인티는 순식간에 아픈맛은 아이가 되었다. 이 인터뷰를 본 수많은 야구팬은 역시 명불허전이라며 모두까기 고집의 포스에 엄지를 치켜들었다. 선수 시절 친정 팀을 다소 아끼지만, 능력이 있는 선수라면 소속팀을 떠나 한없이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훈훈한 남자다.

그의 용무야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잘나가고 있지만 LG 감독 시절에는 '순태'라고 불리며 팬에게 조롱당한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다.

▶ 최춘식+김상훈=전파 낭비

야구 중계 최악의 조합



최춘식 캐스터의 유일한 미덕은 흥런이 넘쳐날 때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크다 크다"를 외치는 것뿐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상황을 묘사하는 데 열을 올린다 투수가 타자를 삼킨다고 둘러세우기라도 하면 "통했습니다"라는 멘트를 던지는 게 고집이다. 타격할 출신 김상훈 해설위원은 한술 더든다. 그의 어록 중에서도 "투수가 던질 공은 직구 아니면 변화구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와 볼 카운트 스리볼 상황에서 "지금은 우투전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해요"는 단연 최고다. 심지어 "추자가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점수가 많이 나오" 라는 엄청난? 해설로 정점을 찍었다.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객주를 차갑게 미서러낸 냉정고에 날려댈어 한다는 말만큰이나 당연한 거라고, 응?

이달의 부스라끼

일도 그만, 놀리도 그만인 지시 부스라끼를 씌고 듣고 맛보고 즐기세.



독일어로 "똥나 차려"가 뭐지?

헤어리엄 기가 전 셀러브리티 언저 장치가 할 것은? 당연히 외국어 욕 사전 없잖아! 이이이이! The Little Book of Essential Foreign Swear Words. 인드르이드에는 'Multi-Language Curse Word' 등이 있다. 너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거



외국어 예 미학각기

스미르니이 없어? 좌절하지 마라. www.youswear.com에 들러 전 세계 언어로 욕을 미리 배우고 여행할 때까지 참고로 이국인 한어 코너엔 'jibab' 'um chang sae kki' 등 생생한 욕단문자가 있으니 외국인 친구에게 알려주실 것

떠러진 세월

임용수-양준혁 콤비



> 양은 손발력이 다소 떨어지나 은퇴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선수 시절 데이터가 따끈따끈한 데다 예능감이 좋아서 만담식 해설을 좋아하는 야구팬에게 인기 높다. 게다가 해설에 묻은 진한 스토리도 강점이다. 얼마 전 넥센 투수 김광희의 데뷔전에서 '김광희 선수 물건이예요, 물건이 이쪽은 꼭 드림으로' '넥센 홈스피어의 양신 호스트' 라는 별명이 붙었다.



> SBS 2년 임용수 캐스터는 배려있게 호쾌한 목소리, 안정적인 게임 중계가 인상적이다. '루비 3루 3루 3루에서 세브!' 라는 멘트와 트레이드마크. 얼마 전 고을이 일순치선 애송수를 많이 야구한 그는 "지루하지 못해 미안하다" 라는 말을 남겨 야구팬의 가슴을 울려야 했다.

작두 달 때가 좋았다: 하일승 해설위원

KBO 사무총장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잔병치러진 상황 예측 능력이 예민한 듯하다. 사실 '야구 플라요'라는 어록을 남기며 잘나갈 때 도 자로나 이혼한다는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연애편지 시절 멘트인 '이상재래요'만 연발 중이다. 최근 한양 강양이 풍부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아는 선수 출신의 해설위원이 되고 올라오면서 형이 부리는 느낌이 든다. 역시 세월에는 장사가 있다.

NICKNAME

베쓰볼 퀴즈

네이츠볼의 퀴즈가 돋보이는 선수들의 별명을 모아봤다. 당신이 진짜 야구팬이라면 이 정도 퀴즈쯤이야 잘 모르겠어?

소속: 기아 타이거즈	소속: 삼성 라이온즈
이름: 김성민	이름: 신명철
별명: ()	별명: ()
힌트: 바르셀로나에 매	힌트: 그가 타석에 등장
사가 있다면, 무릎 기	할 때 아이비의 '유혹의
어는?	스나타'가 올라왔다.

소속: 한화 이글스	소속: LG 트윈스
이름: 유원성	이름: 이병규
별명: ()	별명: ()
힌트: 이 녀석이 잡힐 거	힌트: 수비하는 모습이
울쉴때만 좋은 모습을	라던 시에 그는 아저씨
보여준다.	보여준다.

출처: '야구상' '야구용어' '야구 용어' [김유]

워터파크 헌팅 전략

원나잇을 원하는 남녀의 은밀한 눈짓이 꼭 발견해서만 오는 건 아니다. 대낮부터 클럽에서보다 더 많이 속살을 드러내고, 옷차림만큼이나 풀어진 마음상태로 찌릿한 일탈을 꿈꾸는 곳. 바로 여기다. **BY 유호민**

1 놀이 기구는 접어라



무슨 티워 레프트니, 무슨 블라스트나하는 놀이 기구가 타고 싶어 환장할 지경이겠지만 오늘밤 더 좋은 걸 타려면 제일 청아라. 기구 앞에 줄 서서 시간씩 날리고 나면 한정된 사냥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잠당하던 놀이 기구 타는 곳에 객층은 사냥감은 절대 없다. 시끄러운 애매(애매)들이나 그 애매끼들을 견사하러 오신 아줌마들, 까리까리 무리지어 온 오코르가 눈앞에 펼쳐져 가다. 간간히 훌륭한 상품도 끼여 있긴 하지만 그녀는 아마 이곳에서 수컷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마인드가 풀려먹은 개다. 형 말 듣고 우선 짝짓기 상대부터 찾아라. 암컷 무리랑 포인이 되고 나서 놀이 기구 타러 다녀도 늦지 않다. 아차피 받까지 이빨만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함께 기구를 타러 다니다 보면 친밀도도 빨리 높아진다.

2 황금 어장은 여기



그렇다면 오픈 마인드를 지닌 핫 바디의 걸들은 대체 어디에 서식하고 있던 말인가? 멀리서 찾지 마라. 메인 풀 주변에 선베드를 꼭 짝같이 놓은 곳 바로 여기다. 고가집이로 치면 여자가 바로 난류와 한류가 쳐 만나 식용 어종이 우글거리는 대륙붕이란 말이다. 당산처럼 발정 난 수컷을 기다리는 암컷은 이곳에서 색사냥 수형복을 차려 입고 당신에게 여자를 주기 위해 물에도 안 들어가고 일광대고 있다. 정밀이다. 수컷 낚시에 도가튼 여자 에디터도 말한다. "작업 잘 거면 쭈뼛대지 말고 채발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심디 다 아껴버릴 지경이다." 이제 알겠나?



3 진정한 노다지 밭, 흡연 구역



전체 금연인 워터파크에는 별도의 흡연장소가 있다. 대체 야외에서 왜 금연을 시키고 자할인지 열은 좀 받지만 MAXM 독자는 다들 고양이 넘치니 투덜대지 말고 스모킹존으로 가자. 왜냐고? 여기가 의외로 수확이 짙았던 황금 어장이니까. 에디터의 다연연의 경험에 따르면 이곳 스모킹 존에는 잘 노는 누님들, 남자 좋아하는 개진 걸들이 우글거린다. 상능 좋은 라이터는 필수다. 워터파크의 특성상 부스들이 젖어서 라이터가 안 켜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라이터가 켜져 난감해하는 그녀에게 멋지게 불을 붙여 내밀자. 그녀가 "고맙습니다" 하면 이제 명성은 다 깔린 거다. "일행 있으세요?" 따위의 싸구려 멘트를 안 내려도 된다. 그게 어딘가? 담배 예가만 해도 30분은 이 발 반주기 가능하다. 흡연 구역은 이미도 담배 피우기 참 힘들다"는 공감 주제를 통해 짝짓기를 원활하게 시켜주려는 워터파크 측의 배려가 아닌가 싶다.

THE ONE etipac

센스 있는 담배 선택

워터파크는 애연가에게 기호한 공간이다. 더욱 때도 시원할 때, 배고피도 배불러도, 여자가 예뻐도 구러도, 모든 희로애락에 담배가 필요한 우리에게 '전체 금연 아니라!' 하지만 '여전히 야외에서 안 걸리든 그만인 법' 기왕이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담배를 가져와도면 구석구석 의젍한에서 깎이면 가 놓는다. 그런 담배가 어디냐고? 여기 있지 보아야. 그럴 줄 알고 THE ONE에서 워터파크 시즌에 딱 맞춰 '언기'와 '냉새물' 획기적으로 줄인 THE ONE etipac(에티팩)을 출시했다. 그 외에도 당산처럼 문득문득 담배가 맴간다. 특히 스릴

만점 기구를 타고 나서 흡연객 야외 레스토랑에서 시원한 생맥주를 한 잔 빨고 식후명은 먹을 수 없는 자연의 설리가 아닌가 그녀를 끌고 마. 내 흡연 구역까지 건지 말고 센스 있게 THE ONE etipac을 내밀자. 손에 담배 냄새가 거의 배지 않으니, 그녀의 불을 타찰할 때 비비류 냄새가 나지 않고, 카스할 때 주둥이에서 쉰은 장내가 올라오지도 않는다. 야제! 민첩함 이 되고 싶다면 필히 타찰할 것





남자의 기술

엄마는 늘 말씀하셨다. "남자들은 어찌나 부장스러운지 숨이불에서 굴러도 꼭 어딜 다친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절단 부상을 피하는 법보다 절단된 걸 살리는 법이 더 필요하다.

절단 손가락 보관하는 법

까뭇다가 손가락을 날려먹었어? 아차! 친구들은 비웃거나 하지 도와주진 않을 거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수밖에. 자, 밑 어떻게 해야 손가락 병상을 면할지 응급의학 전문의 **벤디슨 맥키나스 박사**의 가르침을 들어보자.



STEP 1

가장 중요한 건 지혈이다. 손가락이 절러나면 부위를 밀 평행 손으로 꼭 압박하라. 아니면 양말이나 티셔츠를 둘레에 적서 가에로 갖다 대고 압력을 가하라. 좀 아플 거다. 당연하지만.



STEP 3

당신이 가는 곳에 술과 음식이 빠질 리 없으니 아이스팩을 자파라 봉지가 있을 테. 천으로싼 손가락을 지퍼팩에 넣고 뒷부분을 꼭 잠가 방수가 되게 한다. 명심할 것. 손가락을 축축하게 보관하면 예기치 못해 불리는 건 금물! 이제 아이스팩에 얼음을 넣고, 봉지를 닫는다.



STEP 2

단단 손을 심장보다 높이 들면 피가 분수처럼 뿜는 걸 막아준다. 이제 잃어버린 손가락을 찾자. 첫은 손가락은 잘 씻어 붙여 적신 깨끗한 천으로 싸라. 티셔츠엔 족하다. 근데 당신, 웃은 일고 다시지?



STEP 4

자, 이제 병원에 가자. 봉지 속 손가락이 얼음 없애지까지 계속은 친구가 술에 취해 그럴 안주로 착각하기까지 5시간 남았다. 날뛴다고?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폭발로 인한 조직 손상을 완벽하게 복구할 가능성은 5%도 안 된다. 그러니까 꼭죽으로 잘치진 말고라 싸있잖아! 바보!

TRAVEL

짐바브웨로 오세요!

짐에서 팽팽 놀려 봐주세요. MAXIMOI 관습은 여행 상품 하나 추신해드려요.



돈으로 동거

짐바브웨달러는 한미화로 통감됩니다. 2008년 흥 한 달러가 가격~3조 달러였죠. 당시 우리 돈 1원이 3,546원 1,500조바브래달러였다. 당해 12월 1889억 5,375만 달러인 셈이에요. 통화 체계가 깨진라 숫자 개편안공민은 대변한 그 큰 이들에게 지구 나이기 46억 년이라고 가르쳐받아 비웃음만 산다니까. 몇 번의 화폐개혁을 거쳐 현재 13바브래달러는 우리 돈 3원 정도입니다. 남자들이 사생활하게 돈으로 통 한면 뒤야해야 하지 않겠어요?

금정의 파워 충전

여기선 '전국 추신 신발대회'도 열려요. 우습게는 상금으로 우리 돈 약 20만 원과 대회 당일에 쓴 카뭇을 받았죠. 당신도 국위 선양과 자신감 충전 두 마리 토끼를 짐바브웨에서 잡아보세요! 당신은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과거로의 시간 여행

과거 여행이요? 탐방이나 필요 없어요! 짐바브웨로 오세요. 아직 독재가 현재진행형이거든요! 세계 최악의 독재자 무가에 대통령(87세)이 3년 집권을 누리려 다음에요. 짐바브웨 국민의 6%는 평생 무가에 외의 대통령을 본 적이 없거든요! 무가에 대해 짐바브웨의 수입원은 85%에 육박하고 등기상승률이 연 10%가 넘어 콜라리로 3,800명이 사망하는 등 블랙리스트 급 리스크가 쫓겨나있죠. 그러나 무가에 자신은 영웅 소명을 줄기는 풀한 남자에요. 영부인(42세)은 확한 여사친이. 무가에의 배뭇과 9년 동안 뺨을 찡조. 독재의 형수가 그러든 값싼 분을 바로 이고, 독재의 딸이 짐바브웨를 당신을 기다리니다.

100조 달러 독립

동그라이 14개 딱한 지배 보냈어요? 흥 나라 짐바브웨는 2009년 100조 달러 지표를 발행했어요! 생후 14일 만에 깨워된 이 경막스러운 지베는 요즘 온라인에서 4,200달러를 팔지요. 현재에 와서 메이드 인 짐바브웨를 꼭 확인하세요!



SHOCKING NUMBER

30

성인 시이트 이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무려 30%. 영가(정)이 국내 5대 성인 사이트의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다. 그녀의 비이트이 아예 신기(술)이 최수(처)를 쓴 이유를 아예 알았지? %



말에 대해 말아 나로서 말한데

언어도 수명이 다하면 죽는다. 마치 물들이어린 아이파레로 언어들 쓰는 사람은 천 세계에 단 2명뿐인데, 그들이 원수지간이라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결국 이 언어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멸종 위기(가) 다친 새 누구 후신 아이파레(코르)로 '아이라'가 한지어는 사람. 호?



기왕 하란쪽만

영화(사)상 가장 대규모의 폭발 싣는 그것도 배우들이 현장에 싣해 있었던 폭발 장면은 (트랜스포머) 2 중 사(사)에서의 전투 장면이다. 물론 당은 메인 폭소가 슬로모션으로 기승을 출렁이며 달려오는 모습 때문에 폭발 마기 기에도 없었지 우리도 미안(사)자!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BY 송종민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며
보면 차가운 콜라가 간절해지지
안정해 우린 모두 중독됐어!

▶ 언제(Always) 코카콜라를 즐기다(Enjoy) 보니 125년이나 지났네?
가볍게 특별한 한정판, 어디 구경이나 해보자고.

빈티지 우드 케이스
●
올드 코카 콜라 로고와 최초의 코카콜라
광고 문구가 쓰여져 있는 그림듯한 우드
케이스. 이후 탄생

**Hutchinson
bottle (1899)**
최초의 콜라 병
오리자본은 마케도
유리였다.



Samuelson contour bottle (1915)
일렉산더 사무엘슨이 디자인한 최초의
컨투어 병. 특하게 출현되어 있다.

그걸 못 참고!

콜라의 아버지 펨버턴은 콜라의 기념
비적 성공을 보지 못했다. 그는 건강
약화로 코카콜라 사업권을 잃어버리자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코카콜라 원
액에 대한 특허는 죽기 직전 아들에
게 물려 주었다. 그러나 이 명칭이는
아버지가 눈을 감기도 전에 자신이 받
게 될 특허권을 벌써 다른 이에게 출
랑 팔아 넘겼다. 처음에는 좋다고 그
돈으로 술 마셨겠지만 나중엔 눈을 좀
흘렸을 거다.

이름의 비밀

펨버턴의 경리 사원이었던 프랭크 M.
로빈슨은 코카 일과 콜라 열매 추출
물 음료라는데 착안해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스펠서 사체의 홀림
로고까지 디자인해 주었다. 그가 디자
인한 로고는 1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쓰이고 있다.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이
터널 레거시'라고 하지.

따라 하자!

애플 뒤에 음이나 나오듯 코카콜라가
인기를 끌자 모방 제품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코카콜라는 어둠 속에서조
차 남들과 차별화되는 보물을 원했고
1915년 일렉산더 사무엘슨이 코코넛
열매의 실무엇을 활용해 만든 컨투
어 병이 등장했다. 여성의 세시한 몸
매를 닮아 자꾸만 쓰디듬고 싶어지
는 S라인 보물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확실히 코카콜라를 돋보이게 해줬다.

각국의 125주년 기념 보물 모음

홍콩 JAMES JARVIS



영국 일러스트레이터 제임스 자비스는
코카 콜라와 함께한 67년 행방의 순간
을 표현했다.

프랑스 한정판



빈티지 판공질로 꾸며진 프랑스 한정판.
그런 저게 MAXIMUM 아름다는 거 아~?

한국 한정판



만들기 싫으면
그냥 만들기 싫다고
말로 하지 그래요.

이름을 보면 시작이 보인다

Welch's (벨치스)

도리스 벨치는 독실한 교회 신자였는데
공주하라는 꼬리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으로 요인을 쓰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
는 직접 무알코올 요인을 제작했는데 그
제조법을 물려받은 아들이 모든 주스로
 내놓아 큰 인기를 끌었다.

Qoo (쿠우)

아름이 맥주를 마신 뒤 무하~라고 말하
니 아이리언 쿠우~ 장나하? 장나해?

게이데이

블루리더 컷팅된 게이더(Geater)가 매번
후반전에 기운이 전혀 게임에 지지. 물로
리더의 의도가 전제될 흡수가 빠른 음료
를 개발해 우승을 도왔다. 게이더를 듣
는(Geater)는 뜻이다.

미란다

에스페란토어로 행복이란 의미. 난 아래
것 미란다로 알고 있었는데. 달빛

마요린 듀

촉촉함을 영성사상은 '신의 양개'



스피어더벤은 전갱피의 아버지

전갱피의 유에 위치 추적 장치를 보이는 길 처음으로 하얀 사람은 미국
뉴욕시로 주 편사 책 리더다. 그는 신문에서 인쇄 (스피어더벤을 보다가
약미) 하거늘에게 전갱피를 채워 추적하는 내용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다. 예나. 절 반사해 카운터기러면 매일 만화책 비친 원만 주재요.



그야아 사는 사람들

신의 루즈 2 배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 단테로 손목을 굽는 장면이 나온
다. 온 손목을 굽는 등의 자세 차가리를 지축하는 것을 알아하는데. 죽기 위
해사기 아니나 피를 흘려 살아 있음을 느끼기 위함이라고 해라는데. 실제
로 '리드스트'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겼다. 이 사람이. 한말을 해. 한말!

FX
남자의 모든 것



RANDY ORTON



FX채널 방문
과워치 받기



WWE Monthly Special
캐피탈 퍼니쉬먼트
7월 9일(토) 밤 10시

tcast



www.fxchannel.co.kr

Copyright FX 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세계는 지금 붕가붕가 중!

에그머니! 영감님, 그거 좋은 건 알아가지고.



WORLD OF BUNGA BUNGA



붕가붕가의 이몬, 베를루스코니

온갖 구실의 선두 주자 베를루스코니(74) 이탈리아 전서는 지난해 모로코 출신 17세 소녀 댄서 루비(본명: 키리 마 알 마루고)와 생애매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절도 혐의로 체포된 루비를 총리가 석방하라고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까지 덩어로 얹어서 총리는 이를 부인했지만! 사람들은 '뭘 이 양반 욕병이라든? 그럴만 하다'고 믿는 부당하다.



붕가붕가의 신 해커, 뉴욕! 뉴욕!

지난 2월, 뉴욕의 비버리엔 크리스토퍼 피리 전 공화당 의원은 재능에서 만 년 익히에게 상례 누드 사진을 보낸 게 뽀뿌루사 물라였다. 얼마나 사진이 별로였으면 알리엇 스피처 전 뉴욕 주지사는 월경 생애매로 웃을 벗고(벗는 게 습관). 그다음 주지사 데이비드 패터슨은 다수의 여인과 불륜을 맺은 '뭉툰 보이'였다. 뉴욕의 민주당 하원의원 에릭 마키는 남자 보좌관을 쫓몰딱하다 걸려서 짤렸고, 적대인 공화당의 뉴욕 주지사 후보로 나선 칼 팔리나노는 지인들에게 오바마 대통령 부부들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메일에 모욕노를 첨부하여 주변에 투척해서 욕을 먹었다. 흠~ 버نگ가?



유전무지,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

프랑스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지낸 스트로스-칸 영감이 지난 5월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여직원들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폭로가 터졌다. 피해자 말이 맞다면은 장영이 칸 영감님이 것같이 밝혀져 시간은 급물살을 탔다. 재판에서 칸 본인은 "합의하에 거행된 오일 섹스오일"며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다. 돈이 많아지게 많은 칸은 지구에서 가장 비싼 죄장의 변호인단을 꾸려 이 시간을 진화 중이다. 그런 와중에 이탈리아 모노노베우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와 스페리슴을 즐겼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이 망측한 욕병 토네이도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7,730,000 (개)
현재 구글에서 '붕가붕가'를 검색하면 700만 개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 이탈리아 총리의 영감! 관련

MADE IN KOREA
흥! 우리도 잘 손 없애 대~한민국
학력 위주, 가물 정치인과의 스캔들로 세간을 뒤집은 신장이는 자서전(400여)에서 "정중한 전 국무총리가

밤 늦게 자기 만~치하고 했고, 약속 장소는 대개 호텔 비어있고, 성추행에 가깝게 야가와 팔을 건드렸다"고 썼다. 유력 일간지 기자가 택시 안에서 자신의 뒷안 단추를 풀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악담이다. 이젠 '똥야차'로 더 익힌 변방급 전 청와대 정력

실감! 법정 진술서에 "2003년 신장아와 첫 상관계를 가졌다. 그것이 그녀의 첫 경험이라 놀랐다. 내가 생리대를 사주어야 했다 정도다."라고 썼다는 내용은 기하 충격적이다. 오호라 이따 소리 가이드를 부활시키게는 건 아닐까? 두근두근~

POWER AND PENIS
이것이 바로 권력의 귀두?

짜지 않는 눈은 그 거기도 짜지 않나?
사실적으로 성공에서 남한테 이례라자라 하는 눈물수족 개자친 지가붙은 한다. 노스웨스턴 대학 켈렌스키 교수팀은 남을 지휘한 경향이 있는 오만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을 지휘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표정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대부분 사진 속 인물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 즉 오만함수록 남의 의사, 감정 따위 조도 신경 안 쓴다. (뉴욕타임스) 이를 소회해 "우물겉에 빠진 이들은 난독말하기 할 때도 관중"이라고 생각해 유한 일한 자를 경향이 보통 사람보다 높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이런 눈물 대타리를 할 확률에 대한 정신 차릴까. 안 차릴까 알아보는 연구는 누가 안 하~?

▶ 붕가붕가, 넌 어디서 왔나?
옛 아프리카에서 남을 놀릴 때 쓰는 말이었다는 설.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에서 비롯했다는 설도 풍부하다. 보통 밉당 남 수개가 어(저)기 고(하)라 드는 걸 '붕가붕가'라고 하는데, 영어 신조어 사이트 '어번 디셔너리'는 "어이없이 어찌됐든 권력자가 여러 여성과 즐기는 일을 놀이"라고 정의하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말에 개신 분들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붕가붕가

▶ 똥꾸똥꾸보다 강한 중독성
붕가붕가 파티
똥꾸똥꾸를 읽던 영감들이 터진 웃음을 참으려고 거의 올뉴를 누스를 진행하던 시간을 기억하~? 최근 1년간 세계 언론은 '붕가붕가'가 지배했다. 이탈리아 총리를 궁지로 몰아 내서 루비가 언론에다 "총리님 초대도 붕가붕가 파티에 갔애음"하고 폭로한 순간부터 말이다. 붕가붕가 파티엔 유명 인사와 미디어들이 초대되어 질질끼고 춤추고 노래는 락이 펼쳐졌다.

▶ 나는 붕가붕가다
이이가(가) 돌고 돌아 총리가 미친 색강 공영당으로 전락할 무렵 그 자신의 인독일 배우 마리아 베르디의 자서전 "나는 내가 '붕가붕가'고 말했다. '붐! 붐!'하고 하니 친구들이 자기 이름을 장난스럽게 '붕가붕가'라고 부르게 된다. 이 별명 때문에 자기야 총리를 위해 언 파티야 붕가붕가 파티로 오해받았다고 해명하는 거다. 낫하, 너 무 늦었음.

▶ 붕가붕가 토크 피자
오는 7월 영국 런던에 붕가붕가 피자집이 생길 예정. 창립자 칠리아의 단원은 개업식에 루비를 초청했고, 붕가붕가 파티에 참석할 여자를 이름만 딱 적어줄 수만 판매할 거라고 밝혔다. '뽀은 율동 총리와 관련한 사진과 기사도 정제'했다고 밝혔다. 붕가붕가 토크 맛이 궁금해 제발 맛볼 맛은 아니길



구르도 너무 구르네
과연 지구가 끝은 세계 최고의 악하는 이아니스-이디펠(카르발리안)이라는 화물원숭이다. 앞장 교질적인 악행 하고 알리는 이 냉소는 말 그릇 너 무 구르서 차가 행방을 알 수 없고, 누가 만드었는지도 모르면 안. 한때로는 이아니스-이디펠 韓(가)라고 한다.



내이아니스 노노넬
대한민국에서 광고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미디어는 NHN이다. 자체 제작 내이아니스이 광고와 별다른 별다른 돈은 1조 1천억 원으로 국내 최대 광고주의 무려 14%를 차지한다. NHN의 NHN의 광고 매출을 합친 것보다 많다. 아하이 내이아니스 지상파 방송국 줄 때는 냉방구연.



alleh magazine

박제에 미쳤어요

직소 따위... BY 김희성



인간 박제 하는 법

STEP 1. 방부 처리 및 시체 해부

싸늘하게 식아빠진 시체에 포르말린을 넣어 더 이상 썩지 않게 한다. 포르말린은 박테리아를 죽여 조직이 부패하는 걸 멈추게 한다. 그리고 해부 도구를 이용해 뇌, 안구, 내장을 제거한다. 오늘 저녁으로 순댓국 어때?



STEP 2. 물기와 기름기 제거하기

시체를 아세톤에 목담가 수분과 기름기를 뺀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당시의 방 안 온도가 반드시 영하 15~25°C 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체가 쪼그라 들게 된다. 미니미로 만들어 얼리고기에 넣고 다니려면 온도 파원 무시하지



STEP 3. 실리콘 주입

시체가 덜수건진 진공 펌프로 아세톤을 빼내고 실리콘을 넣는다.



STEP 4. 모양 만들기

와이어, 바늘, 석고 등을 이용해 당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다. 이 순간만큼은 조물주들의 마인드로 미술 시간에 철쭉을 빚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자. 이제 가느다 자외선을 이용해 굳혀 굳히면 하면 끝이다. 이제 당시의 이미지는 영상을 누리게 됐다



▶ 박제에 미친 인간 1호. 해겐스 박사

어릴 때 멋모르고 있던 (인체의 신비)를 7억 년이나 배를 가르고 살가죽을 벗긴 진짜 시체를 박제할 쪽 늘어놓은 그 전지 않았어. 이 전사가 바로 독일 해부학자 폰 해겐스 박사의 작품이다. 그는 "이 시체들을 어떻게 조달했냐"는 질문에 "모두 기증받은 것"이라 답했지만 사형수들의 시체를 헐 겁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인간 박제를 하는 '인체보존가공공장'이 중국 저장 성 항저우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게 설마 우연일 리 없잖아? (나중에 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고요히 말을 바꿨다) 어쨌거나 그는 이 전사를 통해 무려 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급기야 표본으로 만든 시체를 판매하는 쇼핑몰도 열었다. 그는 시체 쇼핑몰을 오픈한 이유에 대해 '해부학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는 꽤 그럴싸한 답변을 했다. 쇼핑몰에서는 시체의 부위마다 따라 가격이 다 다르게 책정됐는데 흉연자의 배는 우리 돈으로 536만 원, 손가락은 2만 5천 원, 몸통은 8600만 원, 머리는 3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 박제에 미친 인간 2호. 월터 포터

박제 예술가 월터 포터는 1836년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카.라리아가 죽었을 때 처음으로 박제를 시작했다. 그 이후로 '아기 고양이들의 티 파티' (고양이 37마리 박제), '기니피그의 크리켓 대회' (기니피그 34마리 박제), '토끼 마을의 학교' (아기 토끼 48마리 박제), '생쥐술집' (쥐새끼 15마리 박제) 등 수많은 박제 작품을 남겼다. 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물을 죽이지 않고 박제한 인물로, 동물이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작업하는 인내심을 발휘했다.

▶ 박제에 미친 인간 3호. 아맨다 세이브리드

《맘미어》, 《레타스 투 줄라엣에서 청순하던 서도 색사한 매력》을 썼던 풍만한 가슴의 소유자 아맨다 세이브리드의 취미는 박제 수집이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건 죽은 지 3주가 지난 후 박제된 모향. 하지만 그런 그녀보다 더 무시무시한 건 그녀가 키우는 애원견이 자꾸 죽은 동물 박제를 먹어 치운다는 거다. 뭐야, 애네 왜 이렇게 무시무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

빅 스톤래시 라는 이름의 11개월 된 티버만 마스티프암팡 사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로인 약 1억 원에 팔렸다. 지 2가비를 100번 연속하는 고급 개술이런데 있는 건가? 아무튼 이 개를 돌보는 직원만 10명, 식사는 각종 고와 해산, 전복을 잡수신다. 좋겠다. 이 개가야



주인 먹는 개가이

개새끼 하나 진짜 개새끼 이야기가 생각났다. 2009년 '뉴누' 라는 광학인 이름을 가진 티버만 마스티프를 키우던 중국인 남자가 약을 주려 갔다 개 먹이 대신 개이 마린약을 먹고 말았다. 주인 먹은 먹은 이 개새끼는 경장에 사들였다. 아무리 비싸도 개새끼는 개새끼야.

여유증 수술 체험기! 9박 10일의 미라클!

월드컵 가슴이 거슬린다던, 지금 바로 휴가를 신청하자. BY 김관욱



가슴 앓이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강전도 전방에 근육 종인, 체중을 두 달 남긴 군인입니다. 제 새기를 전하러니 특히 꼭스럼네요.

저는 어릴 때 몸무게가 120kg까지 나갔습니다. 성장하면서 몸무게는 조금씩 줄었지만 유독 커 보이는 가슴 때문에 점점 외기소침해졌습니다. 계속 시간이 있을 때면 큰 가슴을 아이들이 볼까 봐 확실히해서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했고, 신검사를 하는 날은 티셔츠를 대서 학교를 걸었습니다. 졸업하고 90kg까지 몸무게를 감량했지만 가슴을 가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군에 입대해 독하게 훈련을 받아, 20kg 넘게 살을 뺐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기엔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름 진피 공사에 나간 저는 공사 기간 내내 살의 띠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부위는 많이 빠졌는데 가슴만은 변함없이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여유증 기사를 보고 제가 여성형 유방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침 일명 휴가를 앞두고 있어 실무형 성형외과에 전화했더니, 간호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상담과 수술 날마다 인려주었습니다. 수술 후 당일 퇴원할 수 있고, 내전 치료가 필요 없다는 말에 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첫날 수술을 했습니다. 생각처럼 예쁜 간호사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특히 전장님의 수술 전 기도는 심적으로 큰 안정을 주더군요. 부사이 수술을 마치고 3일이 지나자 불행도 못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남은 7일 휴안은 대체 친구들과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 가슴 때문에 최악처럼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됩니다. 단지 가슴이 평평해졌을 뿐인데, 예 성격도 마음도 명랑해진 기분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휴기를 대비하고 낫하고 싶습니다. 실무형 성형외과 환상급 전장님과 명전 적전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사진을 올립니다. 많은 분이 보시고 휴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전도 화천에서 병장 병***

박 병장이 찾은 실루엣 성형외과 여유증 센터

실루엣 여유증 센터에서 수술을 받는 이유

실루엣 성형외과의 윤상엽 원장은 여유증 전문 센터를 별도로 운영. 환자는 수술 비용 이외에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 후 여유증이 재발하더라도 100% 무료로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시 초음파 검사기 무료인 것도 다른 병원과의 차별점

최소 절개 방식과 최다 수술 케이스

실루엣 성형외과는 국내 3500명의 최다 수술 케이스로 풍부한 '실용 경험'을 갖추고 있다. 최첨단 의료 방식을 도입해 3mm의 작은 구멍만으로 시술하며 내재된 실 대신 인체용 붓드를 사용해 수술 부위가 깨끗하다. 또 수술 후 후유증이 가능하게 때문에 정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휴가를 이용, 자신감을 찾아라!

단 9박 10일의 휴가를 이용하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실루엣 성형외과는 입원이 필요 없이 당일 수술, 당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귀 후 바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면 문제 없이 군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듯 믿을 수 있고, 실루엣 여유증 센터에서 간편하게 시술받고 자신감을 찾아보자.

BEFORE &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전문 분야: 가슴 성형,
여유증, 항문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 현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외래교수
- 현 실무형 성형외과 대표 원장
-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 서울아산병원 유방클리닉 임상강사 역임
- 발담 수도병원 성형외과 과장 역임
-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장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SAPS) 회원
- 성형외과회의 유망연구회 회원

실루엣 여유증 센터
Silhouette Plastic Surgery

http://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15 실루엣 빌딩
4.5.6층 실무형 성형외과 [여유증 센터]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악어 VS 하마

아프리카에서 나를 힘 좀 쓰는 강대국 녀석
하마와 악어가 맞붙었다. 그 결과는?

BY 정상현

BEAST BATTLE BEGINS!



WIN

진정한 늪지의 왕 하마



MR. 악어

"내가 핸드백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만만하게 보면 곤란하지. 내가 한번 물고 뱅그러도 돌아주면 살집이 남아가지 않아. 내 이빨은 7.5cm 두께의 철판 2장도 뚫어버릴 정도로 강력하다고 (동물농장에서 능욕당하는 모습이 전부라고 오, 오해?)하면 곤란하다!"

몸무게: 230~250kg

→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기보다 무거운 편이다. 어차피 배를 땅에 깔고 다니는 늪인 데다 물에서 주로 노니는 타라 큰 불편함은 없다.

수명: 45년

→ 하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수명이 최대 100년에 이르는 거북이에 비하면 많이 아쉽지만 평균 수명이 고작 10년인 토끼처럼 빨리 썩는 쪽은 포유류보다는 장수한다.

몸길이: 5m 내외

→ 대부분의 악어는 2m 내외지만 최근 아프리카에서 5m 정도로 추정되는 악어가 잡혀 화제가 됐다. 성인 남자 한 명몸에 가볍게 심킬 만한 몸 사이즈를 보유했다.

입 크기: 약 60cm

→ 생크보다는 입이 크지 않다. 벌어지는 각도가 약 45~60° 정도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산의 콕콕박혀

리튬 2개 정도를 깨달아주는 건 어렵지 않다.

악력: 약 1,134~2,000kg

→ 세계 최고 비만남(약 450kg) 3~4명이 동시에 깔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린 부위는 그 날로 안경을 고한다.

주무기: 날카롭고 촘촘한 20개의 이빨

→ 촘촘하게 난 이빨. 그리고 강한 악력 콤보가 주무기다. 그중에서도 크로커다일 악어는 이빨의 어귀가 착 맞물리기 때문에 물린 부위가 깨 곳이 절단된다.

공격패턴: 먹잇감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와 익사시킨 후 잡아먹기도 하지만 데스플을 직렬시커 숨통을 끊기도 한다. 데스플은 무자막처럼 이빨과 악력으로 먹잇감을 문 채 나미의 노래마냥 빙글빙글 돌며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테크닉 도시 같다. 통개가 물고 늘어져도 이른데 악어가 물고 넘어지면 정말 답이 없다.

악어의 눈물 악어는 입과 눈의 눈물샘 신경이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악이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면 눈물샘 신경이 자극돼서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 살아 우리 악어 군이 악이를 잡아먹는 게 미안해서 눈물을 흘린 거라 생각하진 않았겠지?

무조건 하마의 송리, 악어가 뜯니 같은 이빨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하마의 가죽을 뚫기엔 역부족이고, 뚫어도 몸에 생채기만 내는 정도. 하지만 악어보다 큰 입에, 비동한 악력, 게다가 무지막직한 송곳니를 가진 하마가 아기 공룡이처럼 부드러운 악어의 뱃가죽을 문다면 그걸로 게임 끝이다. 얼마나 민만하면 새끼 하마들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악어를 괴롭히고, 다 큰 하마가 재미로 악어를 물어 죽여버린다.



하마의 피부 하마는 피부의 작은 구멍에서 분홍색의 체액을 분비한다. 이 체액이 더위를 막아주고, 상처가 오면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거다. 하마가 사는 게 고갈피서 피부를 흘린다고 생각한 사람은 대가리 박아라

스페셜 무기: 5cm 두께의 가죽

→ 고작 5cm라고 비웃은 놈 누구야? 경량화와 학생들 이 사탕(?)하는 (경제학 원리)의 두께만큼의 가죽이 덮여 있다고 생각해보라. 맹수가 물어뜯으려 용을 써도 두꺼운 가죽 때문에 공격이 안 통한다. 이걸 뚫어 이빨이 박히기 싸움이라도 해보지 원.



MR. 하마

“내 손쉬운 외모에 반해서 깔마다 꼴로 간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귀여운 동보 캐릭터 따위 개나 주라지. 참고로 내가 입을 벌리면 하품하는 게 아니라 내놓한테 열받았다는 신호나 뚱고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는 게 신상에 이로운 거다.”

몸무게: 1,400kg

→ 길에서 흔히 보이는 1.4짜리 용달처럼 중량 되 시켰다. 자기 몸무게가 감당이 안 돼서 관찰원과 친구 먹는 사이지만 이 덩치로 한번 달려들면 파괴력이 정말 후덜덜하다.

악력: 약 2,000kg

→ 소 한 마리의 무게가 약 600kg이다. 하마에게 물린 곳이면 어른 소 30리. 송아지 마리가 한꺼번에 깔고 앉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리는 순간 그냥 GG 치라는 얘기다.

수명: 40년

→ 조선시대 조상님의 평균수명도 4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새끼 치고 과거 보고 눈매고 밟고 다 했으니 이 정도면 꽤 오래 사는 거다.

주무개: 30~50cm 길이의 송곳니

→ 백악기를 주름잡던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길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긴 수종이다.

몸길이: 3.7~4.6m

→ 우리나라 루저 남성 2명 이상이 나란히 누운 것보다 같다. 이 녀석이 얼마나 커다란 맹수(?)인지 짐작이 가나?

입크기: 90~120cm

→ 1m에 가까운 당신의 입도적인 긴 상체도 한 입에 속 들어간다.

공격매턴: 열받게 하는 놈이 나타나면 큰 아가리를 벌린 후 티라노사우루스 뺨을 후려갈릴 포스의 송곳니로 물어버린다. 2분에 가까운 악력은 덤. 조폭의 기름진 배를 여러 겹 뚫던 것보다 훨씬 질긴 가죽 덕분에 어지간한 공격에는 생채기도 나지 않는다. 혼자서 암사자는 물론이고 (라이온 킹) 주인공급 수사자 둘이 붙어도 거뜰히 상대한다. 한마리도 편다.



HOURS
TO
LIVE

최효종 나의리

요즘 가장 잘나는 개그맨 최효종도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BY 김희성 PHOTOGRAPH BY ARC STUDIO



당신은 24시간 뒤에 죽는다. 어떻게 죽고 싶니? 사회의 부조리를 개그로 승화해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하고 가자겠다. 쌓였던 오해도 풀고

오해 살 일이 많았나? 장난이 너무 심해 맞은 적은 많다. 한번은 박성호 선생이 김준호 선생한테 훈계를 한 적이 있다. 그 상황에서 웃기려고 "확실히 한 살이라도 더 많으니까나 다르네요. 나이를 통구렁으로 드신 건 아닌가 봐요" 라고 한 거다. 박성호 선생한테 엄청 혼났다.

장난이 심하면 버릇없다고 오해를 받은 적도 꽤 많았다. 진짜 친한 사람한테만 장난으로 쌍욕을 한다. 형들이 쿤트로 욕하는 건 받아주겠다고 했다.

해본 것 중 가장 심한 욕은? 욕할 때 부모, 자식까지 다 들먹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웃기려고 어떤 짓까지 해봤나? '올래 카메라' 하는라고 미친 짓 많이 했지 (웃음) 지형 집에 새벽부터 잠이깨 형 전 여자친구 사진을 집안에 붙여놓기도 하고 통과 안 된 코너를 통과됐다고 거짓말하고 예들 불러서 연습시킨 적도 있다. 여자친구 생일을 까먹은 척하고 소극장을 빌려 깜짝 이벤트를 해준 적도 있고.

여자들은 그런 거 진짜 좋아한다. 여자를 잘 아니?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좀 알게 됐다.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잘해주기를 원할 땐 잘해줘야 하고 소홀해지기를 원할 땐 소홀하게 대해야 한다. 내가 잘해주고 싶다고 아무리 잘해줘야 아무 소용 없다.

'남보환' 에 나는 소재들은 실화인가? 90%지만 한번은 여자친구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내가 좀 물어붙였는데 여자

친구가 "나 예기만 들으면 내가 진짜 나쁜 애데? 나같이 나쁜 애들 왜 안 나가?" 라고 하는 거다. 때문에 이미 그럴싸한은 상대라 나도 모르게 웃어버려서 여자친구가 운 적도 있다.

TV에서 보고 키가 작은 줄 알았는데 꽤 크다. 그동안 키 큰 사람들이랑 코너를 많이 해서 그렇다. 지금 코너를 같이 하는 (류근)지 형은 심지어 키가 187cm다.

실제보다 작아 보아서 억울하진 않나? 5.6cm 더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웃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

영의정 게임이 엄청난 화제가 됐다. 태박 날 줄 알았나? 이보다 첫 녹화할 때가 상반했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았다.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다. 개그맨이 되면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코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무대는

트렌드쇼? 남보환? 친한 사람들을 소극장에 모아놓고 그들의 공감을 건드리는 개그를 하고 싶다. 아는 사람만 아는 개그도 있잖아.

실면서 가장 일요일 때는 언제인가? 극도로 때 개그맨이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한 뒤부터 이상하게 우울해졌다. 개그맨이 끝인데 그리 밍지는 않은 학생이었다.

개그맨이 꿈이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가? "재는 우리의 작수가 아니다" 라고. 여학에서 MC도 하고 나를 따라다니는 팬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개그맨이 된 다음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너 혼자 개그를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속상해서 두 번 정도 울었다.

죽음이 두려나? 당연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퍼할 테니까. 행방불명된 것처럼 죽고 싶다. 어딘가 살아있다고 생각할 테니 죽었다는 것보다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근데 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나? 살짝 코끝이 시린한 게 눈물이 나려고 한다.

죽더라도 잘때도 틀리고 싶지 않은 것은?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들키지 않는 것.

죽기 전 꼭 한 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 메이리크 투수 랜디 존슨. 뉴욕에서 랜디 존슨 선발 경기를 보는 게 개그맨 되고 나서 1년 동안의 목표였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못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나? '개콘'을 보면서 '아, 최효종이 나올 때가 참 재미있었는데'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모베에는 뭐라고 새겨줄까? 살아 있음, 몰카김.





연극열전
27만 관객의
선 택!



공연 티켓 받기

웃음의대학

BY KOKI MITANI

금의환영 40% 대학로 컴백을 환영합니다!! 적용기간: 6/24~7/10 (관람일 기준)

2011.6.24~9.18 동승아트센터 소극장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www.thebestplay.co.kr 문의 02)766-6007

작가 미타니 코우케이(三谷幸喜) 연출 이해제 번역 김태희 출연 송영창, 안석환, 정재성, 정웅인, 백원길, 최재선, 김도현, 전병욱 제작 제이원 PARCO



MISS MAXIM

OF THE MONTH

MAXIM 독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2011 MISS MAXIM 콘테스트! 독자들은 7월 MISS MAXIM의 주인공으로 비키니가 잘 어울리는 도전자 이서현을 택했다.

BY 김희성 PHOTOGRAPHS BY ARC STUDIO
MAKE UP 이현영 FILM 박영민/누리



비키니룩시
티셔츠 G/G
뱅크 스파이시 걸라



촬영장 습격하기!



X 촬영 소경 평소 MAXIM
을 챙겨 보는 애독자인
촬영한다는 연락을 받고 무척이
나 설레었다. 나 MAXIMO랑 종
말 잘 어울리지 않나?

별명 야생마

나의 매력 돌고래 같은 몸매와 백
치미 비보는 아니다!

아성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키
가 몇이예요?"

비 오는 날 하고 싶은 일 비가 오
면 몹시 색사해진다. 누군가가 그
림기도 하고... (응?)

**남자친구가 생기면 받고 싶은 선
물** 한정판 건담, 폭풍간지 RC카,
그리고 가장 큰 사이즈의 옵티머
스 프리임 피규어

무더위를 피하는 나만의 방법 에
어컨을 틀고 건담을 조립한다.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 지
금 당산이 보고 있는 게 다가야
니다. 아직 보여줄 게 많다! 

MAXIM WANTS YOU!



MISS MAXIM
콘테스트 상세 상황

2011 MISS MAXIM CONTEST

1. 예선 통과시 MAXIM 한국판 화보 모델로 활동!
2. 단계마다 높아지는 온라인 콘테스트 상금!
3. 34개국 MAXIMO 경합을 벌이는 **MISS MAXIM 세계 대회** 참가 후보 자격 부여!

(※ 세계 대회 입상에 따른 특전은 MAXIM 미국 본사가 제공합니다.)

- 지난 MISS MAXIM 세계대회 입상자는 각역의 상금과 함께 뉴욕의 유명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특전을 누렸다.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다!

● 참가 신청 방법

1.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2.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색채를 잘 표현한 사진 20장을 업로드한다.
3.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쓴다.
4.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른다. 끝~

- 나이, 직업 등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남자는 받지 않는다.
- 닉네임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 통통해도 좋다.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가 아름다운 법!
- '등 하는 Tip?' 당연히 예시만 사진이 절대 유리하겠지?

● 특전

20일 간격으로 열리는 온라인 예선 콘테스트에서 MAXIM 독자들로부터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은 참가자는 MAXIM 잡지 화보 촬영의 기회가 주어지며,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매 회차 예선 콘테스트 우승자는 2011 MISS MAXIM 준결승 콘테스트에 자동 진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www.missmaximkorea.net)를 참조하라.

[문의] 에디터 김희성 070-470-8985

alice@maximkorea.net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눈성형 남성 눈 확대술로 가능하다!

BY 유승민 PHOTOGRAPHS BY Y TEAM

I 정말 작은 눈이 매력 있나요?

결혼적령기인 직장인 송훈중(가명, 32세)의 가슴 아픈 이야기! 최근 몇 번의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항상 "작은 눈이 매력이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다. 평소 눈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콤플렉스가 있었던 그는 이런 말들에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당장이라도 수술을 하고 싶지만 혹시나 쌍꺼풀이 생겨 느끼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아닌가 걱정만 앞선다고 한다.

II 송승현, 권상우, 소지섭은 쌍꺼풀이 없다?

잘생긴 꽃미남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쌍꺼풀이 없이 큰 눈'이다.

오름 작은 눈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자는 물론이거니와 남자 또한 눈은 자신감의 상징이다. 눈이 작거나 계승체하면 인상이 부드럽지 못하여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결핍될 수 있다.

김진성형외과 김진 원장은, "남성 눈성형의 경우 자연스러운 모양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성 눈 확대술을 통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눈을 감고 있더라도 눈꺼풀에서 수술 흉터를 발견하기 어려워 화장을 하지 않는 남성에게는 매우 반가운 사실이다"고 강조한다.

김진 원장에 따르면 남성 눈 확대술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술개념에 대한 이해와 많은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일반적인 쌍꺼풀 라인을 낮게 잡는 속쌍꺼풀 수술과는 달리 남성 눈 확대술은 눈꺼풀 피부구조의 교정을 통해 눈꺼풀의 쓰임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안구노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드물게는 눈꺼풀을 치켜드는 힘을 함께 보강해 주기도 한다"고 강조한다.

눈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너무 변한다거나 성형한 티가 나는 것이 두려워 수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눈을 충분히 확대시키되 쌍꺼풀은 생기지 않는 눈 확대술 방법이 있다. 쌍꺼풀은 없지만 시원하고 큰 눈을 원하는 남성이라면, 남성 눈 확대술 문의를 통해 달려진 내 눈을 보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많은 남성들이 눈에 대해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눈의 경우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치유보다는 확실한 치료인 수술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누가 알아볼까' 혹은 '남자가 무슨 수술을 이라는 생각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III 남성 눈 확대술로 쌍꺼풀 없이 자연스러운 큰 눈이 가능!

쌍꺼풀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티가나지 않는 눈 확대 성형술이다.



전화번호 : 02-3445-4514
<http://www.meddoctor.co.kr>



김진 원장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TRANSFORMERS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월드 오브 트랜스포머

마지막이라는데 박 타지게
싸워보자. BY 송준민



오토봇 AUTOBOT

1. 옵티머스 프라임

원래 오리는 매스라는 부두 노동 로봇이었는데 천 진철 후배선의 아이로 메가트론에게 뒤늦게 맞고 죽게 된 것을 그에게서 장의 기운을 느낀 윈로 일파 트라이온이 프라임으로 부활시킨다. 그가 메가트론만 보며 공격선을 뚫어 올리는 것은 모두 윈로 과거 때문이다. 이번에는 트래킬러와 함께해 울티메이트 옵티머스가 될 예정인데 영화 완결이라 예니판처럼 장렬히 순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2. 범블비

미카엘라와의 인연을 만들 어주고 위기 때마다 섬을 구해주는 수호자이자 친구. 남자들이 차에 갖는 온갖 판타지를 대변하는 존재이다. 섯노라 외형과 귀여운 표정 인기도 오토봇의 재봉 중이다. 활적처럼 등급등급 한 복사본만 비활이었다면 여성들에게 더욱 인기 있을지라도, 플립이 라켓 덕분에 여전히 병아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라디오를 통해 할 말은 다 한다.

3. 센티넬 프라임

오토봇 진영을 이끌던 선대 프라임 중 한 명. 예고판에서 등에서 발견되는 할아버지 오토봇이 바로 그다. 강경한 사랑과 타인의 전행형인 군인으로 형이 곧 장치이고 평화다 라고 생각하는 인물. 융통성이 없어서 인기는 없었다. 전투력이 상당히 좋으며 원적에서는 메가트론에게 실패당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등에서 발견되는지는 아직 불명. 연세에 어울리지 않는 피어링 포스가 경쾌하다.

4. 아이언 하이드

올대장의 오른팔. 원래 디셉티콘 진영이었지만 그들의 목적성에 불만을 품고 오토봇에 합류했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잡인 데다가 난독하고 말뿐 아니라 행동마저 가칠어서 조그마한 커와 외까지 대포로 뺨 죽이려고 할 만큼 새로운 성격이다. 지구인을 배려하는 올대장의 잔학에 늘 투덜대지만 그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다. 라켓과는 오랜 친구이자 죽이 잘 맞는 형비!

5. 라셋

오토봇 진영의 군의관이자 과학자. 만에서 범블비의 음성 장치를 수리하는 역할로 장난 얼굴을 내비친 뒤 존재감이 제로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친한 친구인 아이언 하이드 못지않은 전사이다. 3판에서 연두색 히어로 리누얼한 강해 활약을 기대해 보자.

6. 사이드 스와이프

아이버트론 전쟁에서 데블리시에게 동료들을 잃은 복수를 위해 참전했다. 2년 초반에 데블리시를 발견하고

복수심이 높아 넘어 주변에 파헤쳐 있던 일된 전투를 펼치는 모습이 그간의 정치 부심을 말해준다. 미래적 콘셉트인 골렛 스타링어를 스타링에 징장착형 인기를 끌었다.

7. 랙커즈

오토봇 최장수부대인 랙커즈도 참전 참전! 하이브리 랙커즈 일원은 로드바스터(그린), 탑스핀(블루), 리드(레드) 정도이고 모두 세부 색 입말라에 메크레크 무장이 장착된 버전이다.



디셉티콘 DECEPTICON

블랙아웃

1. 메가트론

무지비한 폭군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던 부하들 간의 다른 뜻을 중재하기도 하고 호시탐탐 자신의 뒤쪽을 노리는 스타 스크림을 포용하는 등 대안책자 마인드를 갖춘 리더다. 윌리엄스라는 오렌 컬러인 메가트론이 마치 배지터처럼 윌리엄스를 쓰러뜨리는 것은 바로 나쁘고 공개 받고 있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다. 비록 과잉신상과 급진적인 성격 을 지녔지만 근본적인 악이 라기 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로만 행동하는 잔인한 리더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하였다.

2. 스타 스크림

영광한 2인자 스타 스크림. 항상 기회를 엿보며 메가트론을 해치우고 인사가 될 생각을 하고 있다. 마치 유채색과 거성 박명수의 관계를 보는 듯, 이름도 비슷하다. 메가트론도 그의 이성을 진척에 알고 있지만 능력을 높이 평가해 옆에 데리고 있는 것인데 관대하게 넘어가주기도 하고 가끔은 호화롭게 두드려 주기도 한다. 튀터우도 금방 다른 기

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구성 가이. 아바하고 짜증해 보이지만 2인자다운 전투 능력과 R-22로 변신해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으로 정찰대 리더를 맡고 있다. 과연 3편에서는 공을 이룰 수 있을까!

3. 소크 웨이브

3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청원인 메가트론의 총복. 활자 G에서는 전투도 못하고 맨날 오토봇에게 당하는 역할이지만 최선적인(해나메이어드)에서 오토봇들의 대장인 울트라 메그

너스를 암살하는 능력자로 탈바꿈했다. 원래 영화판은 G의 설정을 많이 따랐지만 아무래도 3편의 중심 역할로 나오는 만큼 강력한 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 메가트론만 좋아하는 어리버리 소크 웨이브가 더 귀여운데

4. 사운드 웨이브

영화에서는 인공위성으로 잠간 등장한 단역이었지만 활자에서는 맴돌고 정보 수집, 감사가 특기인 정보전의 전문가다. 당시의 사태 상을 반영한 카세트틀에

이러로 변신하여 카세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1편에 등장한 프랜차이즈로 변신했던 작은 로봇만 2편에 등장한 레비자기대한 개도 원래 사운드 웨이브의 카세트 병사이며 3편에서는 레이저 비크라는 새 오망의 부하가 등장할 예정이다. 이제 본인이 영화에 등장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이티 정도가 되려나?

5. 바리케이트

강경 마스킹 경화차라는 주 인물스러운 차량 스펙으로 포스 넘치는 모습을 자랑했

지만 범람버와 일기도에 서 달린 후 자취를 감추었다. 포드 마스탱의 경쟁 차종인 웨보라 카마로에게 달린 것도 기본 나쁘게 만 한 부분 도심 전투를 위해 레가자다가 오토봇 부대에 또 다시 달려 큰 부상을 입었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영화에서 그 부분은 생략되니까, 그가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3편에 등장할 확률은 아직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영화의 가장 큰 후원자는 웨보라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는 좀 뜸하게 배려 될 것이다.



예고문 보기



간지 작렬!

누가 최고의 스타 간지일지 맞춰봐. BY 유수민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때 아닌 동물 전지가 벌어졌다. 지금 극장에 가면 풍선개, 고양이, 팬더 같은 포유류는 물론이고 조류(마당을 나온 암탉), (리오), 곤충(거울나비) 심지어 열종 파충류(고 녀석 맛나겠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만만하기도 하고 예, 어른 할 것 없이 귀여운 동물들이 약하니 돈 벌기 딱 좋은 소재인 거다. 그래도 7~8월에만 7편이 넘는 건 좀 심한데? 로보트를 잡을 것은 될 날에는 아닐까? 유기 생명체뿐이라는 건가?

돼지

꼬마 돼지 베이브, 붉은 돼지 살췐의
가미줄, 치우, 페넬로피
멧돼지도 쳐줄게

개

베토벤, 벤지, 마나먼, 여정, 늑대개,
에이트 빌로우, 스노우 독스, 하치,
아이작, 10마리의 달마시안,
말리와 나, 마음이
그래봐야 얼마 있을 복날

닭

치킨런, 마당을 나온 암탉
오리랑 같이 새주면 안 될까요?

원숭이

혹성탈출, 다저스 몽키,
내 이름은 단스틴, **처유권**
그냥 달은 사람으로 갑시다!

양

블랙 쉽
빌링 넘어지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임?

말

스파릿, 시바스키, 각설량, 그랑프리,
호스 위스퍼러, 드라마, 블랙 뷰티, **매머부인**
년 캐릭터로 만들기 참 까다로운 생물이야...

뿔

리따워이, 스튜어트 리틀,
미우스헌트, 지프스, 작은 영웅 데스레오,
플러쉬 힐러드, 앨런과 슈만드, 마키 마우스
더럽다고 할 뎀젠데!

소

워낭소리, **여한소**
착해 빠지기치고 주연도 못 따고, 맛있음 다?

호랑이

투브라더스, 티거 무비,
사자한테 안 되네,
역시 미국 뽀 먹어야 하나

토끼

바나바나,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 우사버지
개점 직후 휴업 중

웅

다윈, 드래곤 길들이기, 드래곤
하트, 에라곤, 레인 오브 파이어
가요계에는 지드래곤



고양이는 어디에?

고양이는 개와 더불어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동물인데도 12간지에서 빠져 있다. (도교장자설에 따르면 석가가 천국의 문을 지킴 12 수문장을 맡기 위해 동물들을 모았을 때 무속에 능통한 고양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정식 안락식사로 전 고양이 가장 불쌍함을 보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석가에게 고양이가 일을 맡기 싫어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한 녀석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과 배신의 아이콘인 생쥐다. 결국 생쥐가 대신 수문장에 임명되었고 이후 고양이는 주변 보면 이상을 상식할 정도로 핵이 되는 처지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왜 쥐가 항상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 머리는 겁나 잘 돌리잖아. 아오, 고양이 죽음을 보는 눈 (7월 7일 개봉)

그 자리가
내 자리야 했어.



영화 예고편
보러가기

이 남자, **작업의 기술**이 다르다
그리스로 연애의 승부를 걸다!



직장인
20%할인

강남, 강동, 서초지역
직장에 한함

단 한 순간이라도 지루하다면 그리스가 아니다!

No.1 뮤지컬 그리스

2011.6.30~8.28 우리금융아트홀



스캔하면 티켓이



낙였...

제목과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다른, 배신감 가득한 공연들을 모았다.
가라사대 너는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라 하시니!

BY 김민욱



오아시스 세타스 습격사건
낙시 레벨

평범 《오아시스》와 《주유소 습격 사건》을 믹스한 듯한 스타일. '만약 인양 을 노래하는 지체 장애인'이 주유소를 우당탕 습격하는 건가?

실상 《구신이 쓴다》, 《번지점프 중에 하다》 같은 예로를 작명 DNA를 물려받은 제목일 뿐 위영화를과는 전혀 상관없다. 인진들을 세키기로 돌려버리는 짜릿한 결말이 나쁘지는 않다.



키사라기 미카짱
낙시 레벨

평범 일본 그래픽아 모델 키사라기 비키니 차림으로 인도 미키 스파이럴을 하겠잔?

실상 출연자 전부가 남자여도 그래도 《웃음의 대학을 만든 이해제의 작품이나 웃음은 확실하 보장한다. 아이돌 스타를 추종하는 덕후의 이야기가 삼촌의 감성을 지극 개랄 같은 재미를 준다.



극적인 하룻밤
낙시 레벨

평범 '하룻밤'이 주는 아련한 느낌에 '극적인' 라는 최상급 수식어가 붙었다. 웬지 화끈한 남녀가 밤 세도록 격한 맥질을 해갈 것만 같은 제목.

실상 헤어진 연인의 결혼식에 온 남자가 왜냐나 하게 되고, 사랑에 이른다는 로맨스. 19금 딱지만 보고 나체의 향연을 기대했다면 대실망. 그럴바엔 내 컴퓨터 곤줄박이 풀더를 순례할지이다.



말바닥에서
낙시 레벨

평범 말바닥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희랑 문명 인생 역전을 그린 강동 휴먼 스토리일 거야.

실상 정말 말바닥 인생들만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그리고 다 죽는다. 기본 전환과 용기를 얻으려고 공연장을 찾았다가 0%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이다.



스프링 어웨이크닝
낙시 레벨

평범 한국에서 초연하면서 붙은 '봄이 깨어남' 때 라는 서정적인 부제목이 하수원의 '노노노노노'를 생략하게 한다. 봄 바람 실랑~ 두근두근~

실상 청순한 제목과 달리, 14세 사춘기 소녀가 성적 호기심을 결국 딱질로 실천한다는 바람직한 내용이 줄거리. 섹스신에서 여자 배우의 숨겨 두유가 기갑없이 노출된다(남자 영웅도... 아 쫘).



달콤한 원나잇
낙시 레벨

평범 성인용이 확실합니다!

실상 수지와 봉필은 15년 만에 호텔방에서 재회하고 봉필이 한번만 하려고 강행하는 것이 내용의 전부. 봉필의 짜질한 구개가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 그나마 카스가 전부. 씨스타 1도 아닌 주제에 19금 딱지를 왜 붙였지???



이달의 직업용 공연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공연은 찰박 달라붙어 봐야 제 맛이!

독일 사춘기 청순선들의 징풍노도를 그린 뮤지컬 10대 소녀인 벨들라가 이상친구를 만나게 되고, 함께 성과육을 용으로 인해 임신에 이르는 게 기본 줄거리이다. 여기에 성적을 비극한 메리츠의 자살, 남친 열카어의 반항 이야기가 덧붙여진다. 벨들라는 낙태를 강행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다. 콘돔과 피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작품. 당년도 자연스럽게 애인과 마법의 생체에 입성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

연제 2011년 9월 4일까지
어디서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문의 02-744-4334

TIP LOVE ADVICE

추억이, 너무 추억이.

소극장 주제에 집착한 애연극을 구비한 곳이 많다. 초반엔 시원하지만 공연을 보다 보면 스포츠를 뒤살이 올라온 것이다. 애매할 때 극중엔 진화해서 애연극 배럴이 바로 달지 않는 차리를 추천해 달라고 하러 애연 카디지나 무료 담요를 준비해 의견을 강박 보여. 어-어-어, 너의 손이 출근 눈물이 누굴까 어떻게 달라 붙은 그 담요 달고!



여름을 위한 납량 특집 앱

〈토요 미스터리 극장〉 안 한다고 해버려 말고
스마트폰 앱으로 직접 괴담과 심령 사진 속으로 뛰어들자.

BY 송민



별로 시드니~

↘
SUPER 8



↘
드림 캐처

내가 바로
드림 캐처



↘
FEAR FOTO

이것도
심령사진??

1979년, 포앵미들의 홈 비디오에 우연히 충격적인 사진이 찍히는 생체이 감격의 지극히 생밀난드 스러운 영화 (슈퍼 8). 하지만 찍고 보니 귀신이다. 알고 보니 왜건이더러 같은 미스터리한 스토리는 언제나 구미가 당긴다. 영화 (슈퍼 8)은 개봉일에 맞춰 클래식한 8mm 카메라 모양의 앱을 공개했다. 이 앱은 노이즈 가득한 필름 효과와 음산한 프레임 효과를 포함해 빈티지 8mm 비디오 촬영 효과를 그럴듯하게 구현해준다. 당신의 광범한 일상샷자 (파라노말 액티비티)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아 참, 개봉 후엔 유료로 전환된다니 무료 일 때 빨리 받아두자.

아침에 깨어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몸에 모르는 상처가 난 적이 있는가? 대체 지난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두려운 호기심을 풀어줄 신비로운 앱이 있다. 드림 캐처 앱을 실행한 뒤 더미맡에 두고 자면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자동으로 녹음할 수 있다. 드림 캐처는 원래 그들과 깃털, 구슬로 만들어진 인디언의 부적으로 머리맡에 걸어두고 자면 나쁜 꿈을 걸러준다는 악몽 방지 매작품이다. 하지만 당신의 뒤척임과 코 고는 소리 사이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는 악몽이 아닌 현실이다! 모르는 게 악일지도...

한밤중에 깨워낸 놀이공원에서 인종상을 찍은 적이 있다. 안에는 차가 못 들어가고 입구에서 서둘러 타이머로 사진을 찍었다. 뒷걸음치 땅기며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 도망치듯 돌아왔는데 찍힌 사진을 보고 또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표지판이라고 생각한 물체가 사진마다 전부 다른 위치에 찍힌 것이다. 물론 심령 사진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당시에 내 맡 일집에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고 이 앱을 사용하면 소름 끼치는 심령 사진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다. 2번씩 친구 녀석 어깨에 얘기 귀신을 2마리쯤 안하주자. 파랗게 변한 친구 녀석의 표정이 통쾌하겠지?

애플의 주옥같은 소울 드립 WWDC에서 밝혀진 애플의 로드맵

많은 사람이 기대한 새 하드웨어는 없지만, 2011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콘퍼런스(이하 WWDC)는 애플이 구성하는 새로운 컴퓨팅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상상캐치(차량)는 짐스 총이는 "하드웨어가 노리던 소프트웨어는 영웅이다"라는 말을 열었다. 과연 애플이 발표한 아이 클라우드와 iOS5는 당신의 모바일 환경을 얼마나 소울 넘치게 할 것인가?

* WWDC: 매년 열리는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로, 애플이 새 하드웨어나 서비스를 공개한다.

→ iOS5



일일 센터

안드로이드처럼 상단에 문자 메시지 부재 중 알림, 일정 알림, 애플리케이션 종료 등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기능이다. 드디어 게임을 즐기다가 중단하지 않고 문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잠금 화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걸 좋은 것 빨리 배우자!

트위터 통합

애플이 트위터를 모바일 시장의 패자(覇者)로 인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iOS5에서는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시애틀의 유튜브, 카메라와 사진 그리고 지도 기능이 쉽게 트위터와 직접 연동된다. 트위터 관련 앱 제작자들은 빨리 다른 사진 일과 봐야 하게 됐다.

아이 메시지

애플이 직접 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이 메시지는 텍스트, 사진, 동영상, 주소, 그룹 통합적으로 보내주는 새로운 기능이다. WFMR이나 3G도 지원한다. 현재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페이스타임처럼 iOS 기기 간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크로스 플랫폼 메시지 앱이 경쟁하는 국내에서는 그다지 강용이 없을지도.

카메라 기능 강화와 간편한 편집

촬영을 돕는 그리드 라인과 멀티 터치를 활용한 핀치 투 zoom (Pinch to Zoom), AF/AE 잠금 기능 등을 새롭게 지원하며, 불꽃 버튼을 셔터로 이용해 사진을 찍는 기능이 들어 있다. 찍은 사진을 바로고, 다른과나 자동 보정, 작별 제거도 가능하다.

→ 아이 클라우드 iCloud



"하늘에서 날이 내리다~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머리 위에 떠 있는 구름(서버)에서 수시로 당신의 컴퓨터와 모바일 디바이스에 콘텐츠를 내려주는 것이다. 데이터는 당신의 HDD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며, 각각의 데이터를 갱신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한 '아이클라우드 인 더 클라우드'는 아이폰즈에서 구입한 음악을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최대 10대의 iOS 기기에 똑같이 공유해준다. 여기에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매칭 서비스인 스프루를 발표했다. 클라우드 공간에 음악을 업로드하면 D9에 저장된 180만 원의 음악과 비교해 서버에 존재하는 곡은 무료로 과정을 생략하고 아이클라우드 뮤직 스토어의 고음질 음원

으로 대체 제공한다. 즉 작곡 CD 리마운드를 했던, 불꽃 다운로드 음원이면 2만 4000달러만 내면 정식 음원으로 인정해준다는 뜻.

아이 클라우드의 등장은, 지난 10년 넘어 콘텐츠를 다루는 데 PC가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가 그 역할을 대항해 담당하면서 전혀 새로운 데이터 공유 허브가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그 조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애플이 스스로 그 해결법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내력 향진이다. 애플이 지원하는 모바일 혁명을 그들의 손으로 완성하기 기대한다.



MAXIM KOREA

2권 이상 무료 배송
배송비 합계 기준 인터넷 최저가

MAXIM을 인터넷 서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지난 호 MAXIM을 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 으로 오라!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가 진정 MAXIM의 마니아라면
www.maximkorea.net 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자!

- 수시로 타지는 이벤트와 쏟아지는 선물 세트
- MAXIM 고화질 웹보와 월매이더 다운로드 서비스
-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의 MAXIM e매거진 보기
- 촬영장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웹보 무료 공개
- 잡지에는 없는 미공개 촬영 컷과 기사 감상
- 연예인보다 섹시한 여성 독자 모델들의 사진 감상과 MISS MAXIM 투표 참여



RATED

GAME



동영상 보러가기

RAGE of the FIRELANDS

PATCH 4.2

와우: 대격변 4.2 패치 커밍 쏘!

끝판왕 데스윙,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를
오른팔로 전격 채용! BY 김광현

영웅의 타이틀을 단 광대에게 늘 쥐여타지는 악당은 피곤하다. 맞짱을 뜨기에 박센데 패가리로 물러다니니 당해낼 수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악당계의 끝판왕은 쪽수 채우기에 바쁘다. (외우)의 데스윙도 이참에 라그나로스를 오른팔로 전격 채용했다.

▶ 네임드 몬스터로

▶ 막강 화력을 자랑했던 라그나로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대격변〉으로 아제로스 대륙에 귀환한 데스윙은 오른팔로 라그나로스를 낙점했다. (외우) 오리지널 시절만 하더라도 그는 확산 심장부 지역의 마지막 네임드 몬스터로 악명이 자자했다. 불타는 땅의 군주이자 파괴의 아이콘이었던 라그나로스는 '외우'저녁들~ 설피론 유행 잇을 한 번 보 시구는!이라는 명대사와 함께 만렙 유저 40명을 한 큐에 저승으로 보내는 막강한 화력을 선보였다. 당시 그의 압도적 위력에 절망한 외우저가 마우스를 집어 던지는 일이 다반사였을 정도. 하지만 (외우) 최초의 레전드 아이템 '설피라스'의 제작 재료는 그를 스타러프러!인 얻을 수 있었기에 유저들의 들이댔은 지 칠 줄 몰랐다.

▶ 동네북으로 전락했던

▶ 과거의 라그나로스는 잊어라!

라그나로스의 전성기도 오래가지 못했다. 수많은 패치와 여러 확장팩을 거치면서 라그나로스는 동네북 캐릭터로 전락했다. 인 유저 공략법까지 나올 만큼 만만해져버린 현실이 못내 부끄러웠는지 그는 확장팩 〈대격변〉 출시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 그렇게 라그나로스는 추억이 되어버리는가 싶었지만 이번 4.2 패치에서 오리지널 시절의 막강했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들린다. 데스윙의 버프를 받은 라그나로스는 설피론 침입의 최종 보스로 분해 게이머에게 좌절 열매를 맛보게 할 준비를 마쳤다는 후문. 동네북 라그나로스라고 생각했다간 멸망하기 딱 좋으니 2강장 바짝 타자. 4.2패치에서 "아제로스 따위 불살라도 상관없다"는 대장 데스윙의 허락을 받은 라그나로스의 속 시원한 한풀이를 기대해 봐도 좋을 거다.

ES NEWS

다시 불붙는 차세대 게임기 대전 NINTENDO Wii U vs. SONY PS VITA

닌텐도가 꺼낸 카드 Wii U

Wii U에서 눈에 띄는 건 컨트롤러다. 6.2인치 터치스크린 2개의 아날로그 컨트롤러, 저자이로 센서와 스테레오스피커 등 하이엔드 컨트롤러를 달아 놓은 모양새. 내장된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는 건 물론, 중간 현실처럼 컨트롤러에만 보이는 화면을 활용하는 게임 플레이도 가능하다.



GOOD

드디어 올 HD 해상도

BAD

가치용 or 못재? 장마? 닌텐도용 게임의 재는 무



소니가 옹호하던 카드 PS VITA

PS VITA는 5인치 OLED 터치스크린. 후면 멀티 터치 패드를 탑재한 녀석이다. 가장 놀라운 건 손잡이 없는 개념. 가격, 거처형 콘솔 못지않은 고성능 기기가 어찌까지 모범일 걸 감안해도 약 30만 원대의 가격이라니~ 그치 감동이다.

GOOD

씨다 씨다 씨다! 내가 어떤걸 즐긴다면? 알~ 뒷면 터치 조작 가능! 알~ 뒷면 터치 활용 가능?

BAD

알~ 뒷면 터치 조작 가능! 알~ 뒷면 터치 활용 가능?

GAME OF THE MONTH

캐서린 피우이 왔따염!

진짜 성인용 게임은 바로 이런 거다. 하얏트!액



(카우보이 비밥)이 진짜배기 성인용 예뻐 예뻐 이쁘고 칭송받았던 건 상책 가득한 장면이 너무해서가 아니다. 어른들이아닐로 칭찬을 느낄 수 있는 게임 흥한한 스토리 라인 때문이었다. 한글 자막화되어 발매가 결정된 (캐서린) 역시 그런 의미에서 진짜 성인용 게임이다. 사랑하는 연인을 둔 빈센트가 어느

날 갑자기 찾은 수수께끼의 미녀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 그리고 이를 벗어나려고 용쓰는 모습이 게임으로 이어진다. 당신이 무심코 한 행동이 빈센트의 인생을 결정하듯 신중하게 선택할 것 20~30대 남성 게이머라면 날 일 길지 않은 게임 스토리에 푹 빠져 여정이 왔다면 줄도 모른 채 게임을 즐기게 될 거다.

GUNPLA
GUNDAM PLAMODEL EXPOSITION
EXPO
WORLD TOUR
KOREA 2011



**건프라 월드
엑스포 2011
개봉박두!**

당신 심장에 건덕후의 피가 흐른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건프라
월드 엑스포를 그냥 지나칠 순 없겠지
건덕후 동지들이여, 성지 순례를 떠날 준비는 되었는가? BY 김상현



건프라 월드 엑스포
장바구니 보기

우리나라에서 2회째를 맞이한 건프라 엑스포가, 올해 한층 스케일이 커진 건프라 월드 엑스포로 개최된다. 7월 20~24일, 총 일주일 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SICAF(서울국제판권아메이션 페스티벌) 행사장의 빈디이 부스에서 볼 수 있으니 건덕후라면 해당 날짜에 꼭 자리잡고 동그라미를 그려두는 센스를 발휘하자. 행사 입장료를 비롯해 SICAF 부대 행사 등의 관련 정보는 사이트 홈페이지(www.sicaf.org)를 참고하도록!

EXTRA STAGE

개알 같은 재미의 부대행사

이왕 왔으니 본전은 뽑아야지

1. 건프라 무료 조립 체험

간단한 프라모델을 무료로 조립하고, 완성된 녀석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체험 코너. 여자친구를 건덕후 동료로 설득할 절호의 찬스니 커뮤이라면 이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보자.

2. SD건담 캡슐 파이터

엑스포를 돌아다니다 잠시 걸 걸 넷바머에서 서브 중인 (SD)건담 캡슐 파이터를 즐겨 보는 건 어떨까? 건담빠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게임 꽤나 잘 만 들었으니까 말이다.



2010년
행사 전경

**건프라 월드
엑스포 2011!**

이것만은 놓치지 마자!



빈디이 코리아가 직접 운영하는 건담 베이스에서 페니스복을 오픈했다. 응산 나들이 필수 코스인 건담베이스! 당선 페니스복에서 좋아하는 꾸러 www.facebook.com/gundambase

1 건담 포털 사이트, 건담 인포 대공개



건담 인포 홈페이지(www.gundam.info)가 7월에 문을 연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의 프라모델, 게임, 건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둔 건담 종합 포털 사이트 되겠다. ‘빨간색 기사는 3배 더 빠른 가요?’ ‘아우루와 사이판 북오른 누가 이기나요?’ 등 건담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다면 이곳에 접속하도록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건프라 엑스포에서 건담 인포에 관한 쇼도 할 예정이다.

2 건프라의 역사를 한눈에

30년 전 제품부터 최근 출시된 녀석까지 건프라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올드 팬에게는 건프라를

만들던 당시의 향수를, 막 입문한 새내기 팬에게는 건프라 기술의 발전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거다.

3 건담 AGE의 메일이 버섯이다

건프라 엑스포에서 10월부터 일련 TV 방송이 예정된 (건담 AGE)의 프라모델 시제품이 전시된다. 시미즈에서 ‘간담’이 많이 공급했다면 밀히 들려야 하는 코스트지?

4 건프라 빌더즈 월드컵의 위업

세상에 하나뿐인 건프라를 만들기 위해선 도색은 기본이고, 다른 녀석의 부품과 이종교배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 이런 과정이 어떻게 느껴진다면 엑스포 내의 건프라 코너를 방문하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부스 안에는 빈디이 하이퍼 입장에서 진행되는 건프라 콘테스트가 열리고, 건프라 빌더즈 월드컵 작품을 전시

할 예정이니 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다.

5 행사장은 한정판 상품을 싹고!

이번 월드 엑스포 행사에서는 다양한 건프라를 판매한다. 월드 투어가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만큼 월드 엑스포에서 구매 가능한 한정판 역시 한국에서 최초 판매된다. MG 플러리 클러버 버전, HG 배릿이 핑크 버전 등 시종에서 절대 구할 수 없는 한정판이 당신을 기다린다. 총알은 준비했겠지?

©SOTSU・SUNRISE

“이것이야말로 건프라의 진정한 묘미!”





장편의 영상 보기 가기

정바비가 만난 찰진 밴드 몽구스

WORDS BY 정바비

몽구스 멤버와 함께 새 음반 〈코스믹 댄서〉의 전곡을 듣고 내린 결론은 이거다.

“이 친구들 역시 물건이다!”

당신은 ‘몽구스’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떠올리나? 대부분은 깜찍한 외모를 자랑(?)하는 동시에 코브라를 물어먹는 포유류 몽구스를 떠올릴 거다. 만약 당신이 ‘몽구스=우리나라의 3인조 밴드 몽구스’라고 생각한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하라. 몽구스는 댄서블한 록의 원조격 밴드로, 충추기 좋은 비트와 흥겨움을 취하면서도 록의 남성적인 어택(attack)감도 놓치지 않는 밴드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우주는 사랑이야’라고 노래할 만큼 순수한 소녀의 감성이 멜로디와 가사에서 묻어나는 센스 넘치는 몽구스! 그들이 4년 만에 새 음반 〈코스믹 댄서〉를 내놓았다.

+ 몽구스의 이번 음반은 프로듀서가 자기일명 히치하이커라는 사실 덕분에 더 큰 기대를 모았다. 지누가 누구개? 플러코스터의 기타리스트이자 ‘이브라 카디브라’의 브이걸, 요즘 잘나가는 《쇼의 프로듀서》로 주기가 하늘을 찌르는 유자선 아나-단가. 미아-아라면 누구나 인정했던 몽구스의 포텐셜을 지누가 뽐뽐 터트려준 셈이다. ‘찰자구네’를 연달하게 한 그들의 음악은 집 안팎에서 듣다가 급기야 흥대발 카페에 50명의 팬과 몽구스 멤버 3명을 초대해 전곡을 정주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소풍의 시작은 곱곰하게 성심성의껏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의미에서 ‘리스닝컴프리젼션’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행사에서 필자(정바비)와 몽구스 멤버(문구, 링구, 사디)가 나누는 얘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기대하시라.

비비 신나는 음악을 이렇게 앉아서 들어도 되나 싶네(웃음). 음반을 듣다 보면 소위 미는 곡과 그렇지 않은 곡이 갈라계 마련이다. 한번에 들어오는 ‘혹’이 있는 곡이 타이틀로 어울린다. 이번 음반은 그런 곡이 유독 많더라. 작정하고 만들었는데 인상을 받았다.

문구 100여 곡 중에 11곡을 추렸다. 7차 데모까지 작업한 곡도 있다. 한국, 한 국 만들 때마다 ‘이 곡이 타이틀이야!’라고 외쳤네(웃음).

비비 보통 7차 데모까지 작업하면 곡이 산으로 가지 않나?

문구 우리끼리 오랜 시간 많은 곡을 작업했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다. 더 나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프로듀서 지누가 큰 힘이 되어서.

비비 몽구스는 멤버 간의 많은 합주로 곡의 틀을 잡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구상한 곡을 처음 보는 사람(지누)이 와서 어려움재롱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나?

문구 전혀 없었다. 프로듀서로서 지누를 200% 신뢰했다.

비비 첫 번째 곡이 음반 제목과 동일한 ‘코스믹 댄서’다.

문구 음반의 시작에 어울리는 곡이고, 음반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가장 몽구스다운 노래.

비비 영상 작업 라이브 플랫폼(live-planet.net)에서 작년 10월 즈음 공개한 ‘코스믹 댄서’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문구 음반에 수록된 ‘코스믹 댄서’는 당시 연주한 곡과 ‘드림 온’이란 제목의 노래를 합친 곡이다. 지누가 ‘드림 온’이라는 노래를 듣더니 두 곡을 합쳐보라고 제안했다.

비비 두 곡이 잘 붙었나?

문구 아주 그냥 딱 붙었네(웃음).

비비 이 곡은 지누가 산바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군(웃음). 멤버 모두 지누의 팬이고, 그와 함께 작업하길 원했다고 들었다.

문구 플러코스터 이전 솔로 앨범부터 지누의 팬이었다. 그가 걸그룹과 함께 작업한 음반을 들어보면 지누 덕분에 음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걸 알 수 있을 거다.



바비 가을방학의 음반을 이병환 음악감독님과 함께 작업했는데 솔직히 '이 형이랑 친해지면 나중에 야배우들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주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다(웃음). 지누와 음반 작업하면서 다른 중심은 없었나?

사드 있었대(웃음). 지누가 몽구스 작업과 동시에 (x)의 정규 음반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실리가 녹음실에 놀러 오지 않을까만 생각을 했었.

몽구 오라는 실리는 안 오고 대신 지누의 처제가 오더라(웃음).

바비 몽구는 (x)의 팬인가 보다.

몽구 (x)에겐 미안하지만 난 카리의 구하리를 좋아한다(웃음).

바비 밀고 있는 타이틀곡 '속의 밤 청춘의 밤'은 후렴구에서 '밤! 밤! 밤!'이라고 외치는 코러스가 인상적이다.

몽구 우리끼리 '사뭇함'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코러스와 인트로 모두 사드의 작품이다. 이 노래를 녹음 마지막 날 작업했는데 편곡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많이 고생했다.

바비 원래 타이틀곡이 가장 속을 썩인다.

사드 그때는 이 곡이 타이틀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노래를 만들 때마다 '이게 타이틀이냐!'라고 말했잖아(웃음).

몽구 타이틀곡 여부를 떠나서 애착이 가는 곡이다. 가사를 비롯해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는 몽구스의 결정판 같은 곡이다.



몽구



사드



링구

사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곡이다. 우리가 만들었다는 게 자랑스럽고 무덤갈 때까지 뿌듯해할 그런 노래다.

바비 몽구스 하면 댄스를 빼놓을 수 없다. 2005년 몽구스의 광주 공연 당시 한 여성 관객이 조그만 테이블 위에 올라가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즐기게 지누선의 '밀해줘' 춤을 추던 게 아직도 생각난다.

몽구 광주에서 옥상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호응이 끝났다. 관객들이 옥상을 무너뜨릴 기세로 가져와야 할 하며 공연을 즐겼다. 당시 소속사 사장님이 '조용필 다투네, 조용필 닳아'라고 말했다(웃음).

사드 굉장히 독특한 춤을 추는 분도 있다. 막 몸을 뒤트는데 우리 음악이 자랄게 좋을까!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다른 밴드 공연장에서도 그렇게 춤을 추면 조금 배신감이 느껴진다(웃음).

몽구 지역색이 있다. 부산 관객들은 처음에는 기만히 서 있었다. 30분쯤 지나면 몸이 풀리기 시작해서 끝날 때가 되면 엄청 과격해진다(웃음).

바비 '사뭇함'은 전국투어하면서 각 도시별로 후렴을 바꿔서 부르면 좋겠다. '부산의 밤~', '광주의 밤~' 이렇게 말아야.

몽구 재미있겠다. 어서 빨리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정바비가 말하는 몽구스

춤을 췌면 몸이 안다. 그들이 데뷔한 2004년에도, 2011년 지금도 몽구스처럼 솔직한 밴드가 찾아나올까? 이걸 "우주는 사랑이야 베이비"라고 인사말을 주고받지는 링구의 뻔뻔스러운 제언에, 참석한 500명의 팬은 실지 않은 눈치였다. 덕분에 그는 독석에서 "오글링구"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말이다. 당시에도 씩씩한 링구 사담을 사담을, 그리고 한국을 춤의 우주로 인도한 몽구스의 새 음반 <코스미 댄스>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해수욕장에서 생긴 일

BY ALICE

회려한 말발, 수려한 외모가 직업 성공의 지름길은 아니다. 장소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 야 약한다. 해수욕장에서 통하는 시간대별 직업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웰컴 투 파라다이스!

덥고 땀나고 냄새 나고 짜증 나는 계절, 여름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생채하라고 남을 만들 여름은 아주 짧은 계절이기도 하다. 왜냐고?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 이유, 이번 여름엔 섹스를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혹시 그게 아냐? 당신만큼이나 우리도 여름을 무척이나 기다려왔다? 잘 읽었다.

PM 12:00

어서 내게 말을 걸어

▶ 내 주위에서 놀고 있는 그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가 정말 나에게 말을 걸어왔으면 좋겠다. S08세 애녀운서 지망생

ALICE SAYS

사람들은 종종 낯선 장소에서 느끼는 설렘과 흥분은 사물에 대한 것으로 착각하고 한다. 낯선 여행지에 대한 흥분을 사물에 말을 걸어온 수컷에 대한 떨림으로 오인한다는 거다. 어떤 승선이 보이지 않나? 그렇다. 이곳은 바로 낯선 그녀와의 짜릿한 만남을 꿈꿔온 당신과 모든 이들을 위한 파라다이스다. 해수욕장에 막 도착한 그녀만큼 흥분 자수가 높겠지? 자,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마음에 드는 그녀에게 말을 건네보자. 그녀도 낯선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일이 생기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 자,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자.

PM 1:00

미끼 NO. 1. 파라솔

▶ 더센 파라솔을 장롱하기 위해 햇빛이 직달하는 모래사장을 배회하고 있었다. 다위에 지쳐있던 차에 누군가 다가와 "어차피 물에서 노느라 우리 파라솔은 거의 비어 있을 테니 괜찮으면 여기 서주세요"라고 했다. 완전 영구지! L022세 대학생

ALICE SAYS

▶ 직업은 해가 진 다음부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당신이 낮 시간대를 작업과 무관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녀도 활한 대낮에 수컷들이 배부는 친절을 별 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흡심을 품고 접근했다든 아니든 별 상관 없다. 아까도 말했듯이 낮 시간대 우리의 경쟁 자수는 거의 무랄비 상대나 다름없으니까. 낯선 곳에서 당신이 배부는 호의는 그녀에게 평소보다 더 친절하고 다양하게 느껴진다. 당신에 대한 고마움에 웬만하면 당신의 제의를 수락할 것이다. 그게 작업인지도 미처 알아채지 못한단 말이다. 파라솔을 막바로 자연스레 여자 사방 무리하고 조인을 하는 거지, 우리랑 같이 놀자. 같이 술 한잔하자는 손스럽고 직접적인 멘트보다 백배는 더 잘 먹힐 거다.

PM 3:00

미끼 NO. 2. 캔맥주

▶ 한바탕 물놀이를 하고 지쳐 있던 차에 누군가 캔맥주를 내밀었다. 부담스럽지도 않고 딱히 안마실 이유도 없어 맛있게 먹었다. K08세 모델

ALICE SAYS

▶ 자외선 수컷만큼이나 더위도 최고조에 달해 있을 시간. 물놀이를 한바탕 하고 지쳐 있을 오후 3시 즈음의 작업 도구는 캔맥주만 한 녀석이 없다. 당신의 주머니 사정에도 그렇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뜨거운 태양에 머리카락이 익을 기세인 오후 시간대 그녀의 니즈에 딱 부합하는 적절한 녀석이기 때문이다. 다짜고짜 내미는 건 매우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 마시려고 샀는데 좀 남아사..." 같은 멘트도 함께 날릴 것. 그게 좀 오그러든다면 일부러 선크림이나 오일을 바른 다음 그 답례로 캔맥주를 내미는 것도 상당히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낮에 낮게 된 그녀와의 만남은 매우 자연스럽게 재워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재워 다른 수컷들이 본격적으로 사냥에 나서기 전에 안정적으로 파트너를 확보해놓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속담도 있었어? "일찍 일어난 새가 별래를 잡는다"

PM 6:00

미끼 NO. 3' 슬러시

▶ 내게 말을 걸어온 그가 마음에 들었만 혹시나쁜 사람은 아닐까 걱정도 됐다. 그날 처음 본 사 아니 의심을 품은 건 당연하잖아? 그런데 그가 슬러시를 사줘서 마음이 좀 놓였다. 만약 술을 사주려고 했으면 그냥 도망쳐버렸을 텐데. (2세, 대현생)

ALICE SAYS

마음에 드는 그녀에게 말을 걸 건 성공했는데 당신을 향해 진득 경계하고 있는 게 느껴진다면 술은 되도록 권하지 않는 게 좋다. '내게 술을 먹여야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라는 의심만 증폭될 뿐이다. 그럴 땐 그녀에게 아이스크림이나 슬러시, 아이스티 같은 종류의 디저트를 제공하라. 당신에 대한 경계심이 단숨에 누그러질 거다. 엘리스는 딸기 우유가 좋아요.

PM 7:00

주위의 시선을 신경 써라

▶ "같이 노실래요?" 라고 말을 걸어온 그가 마음에 들었는데 같이 간 친구들이 "저희끼리 놀 거예요" 라며 거절했다. 나쁜 자제베들. (2세, 비현생)

ALICE SAYS

우르르 뚱치는 무리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고 하면 서로 눈치 보느라 머뭇 거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 중 한두 명에게 먼저 배꾸기를 날리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친구들이 포진한 상태에서 그녀의 의사를 묻지 말자. 옆자리 친구 눈치를 보며 YES를 NO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PM 8:00

부린 만큼 거둔다

▶ 낮에 나한테 캔맥주를 건넸던 그와 우연히 마주쳤다. 괜히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기웠다. 그와 자연스레 합석하게 됐고, 다음 날 아침까지 똑 같이 놀았다. (27세, 디자이너)

ALICE SAYS

그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캔맥주만 먹고 배이 배이 했다라도 낮 시간 동안 미리 확보해 놓은 암컷은 재채기까지 승산이 없는 당신에게 의외의 수확이 될 수도 있다. 캔맥주 활용의 아주 좋은 예.

PM 10:00

미끼 NO. 4' 키스

▶ 로깅 있었던 그와 단 둘이 술자리에서 빠져와 버티기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누워 이리저리 했다. 그가 갑자기 키스를 해 깜짝 놀랐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키스하는 내내 피도 소리가 들려 정말 로맨틱했다. (25세, 간호사)

ALICE SAYS

키스가 무슨 미끼라고 빈말할 수도 있었지만 여

기는 해수욕장이라는 걸 어느 순간에도 잊지 못할 것. 평소의 그녀 같았으면 시원하게 새끼기를 날리거나 당신을 그렇게 그런 인간으로 취급했을 테지만 여행에서라면만큼은 예외다.

시원한 버티기밖에 날리는 머리칼과, 낯선 그와의 뜨거운 입맞춤, BGM으로 깔리는 파도 소리... 버티기에서의 키스는 여자라면 누구나 꿈꿔왔을 로망 같은 거다. 여자는 로맨틱한 분위기에 매우 약한 동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자. 괜히 초개 구이 집에서 키스하려다 외로운 밤 보내지 말고!

AM 1:00

그녀의 판타지를 공략하라

▶ 휴가지에서 낯선 사람과 보느라 허뭇뭇을 종종 상상하곤 한다. (20세, 회사원)

ALICE SAYS

당신만큼이나 우리도 휴가지에서 만남을 어느 정도(조금 많이) 기대하고 있다. 모든 여자가 원 내일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낯선 만남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내심 품고 있는 건 확실하다. 낯선 곳에서, 낯선 이연의 짜릿한 만남에 대한 판타지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해줄 게 있다. 새 로망 만남에 대한 기대와 목적 없이 단지 바다가 좋아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해수욕장을 찾았더라도 막상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그날은 왠지 우울해진다든 거 말이다. 자, 이제 당신이 해수욕장에서 뭘 해야 하는지 잘 알겠지? 

"등글개~ 등글개~ 뽀"



STUFF

BY 강성현
PHOTOGRAPH BY ARC STUDIO

VEGA RACER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간의 삼절을 만회한 팬택이 갤럭시S2와 레이싱 한판 돌 기세로 물건 하나를 내놓았다. 그래서 이름도 '베가 레이서' 라지 아미?

NFC란?

휴대폰이 신용카드를 대신하게 만드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물건을 살 때 카드 결제 칩이 내장된 휴대폰을 계산대 라디기에 대면 자동으로 결제된다.

스펙이 썩

최근 스마트폰 CPU는 듀얼 코어가 대세다. 삼성이 자체 제작한 모바일 CPU 엑시노스로 승부한다면, 팬택은 CDMA 휴대폰 시절부터 썩으로 유명한 퀄컴의 스냅드래곤으로 대응했다. 특히 베가 레이서는 2세대 스냅드래곤 150MHz 버전을 탑재해 스펙별로는 엑시노스를 탑재한 갤럭시S2가 부림지 않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2.3(잔자브레드)을 탑재했고, 근거리 무선통신 NFC와 테더링은 기본이다. 소소하지만 지상파 DMB, 800만 화소 디지털카메라의 풀 HD 촬영 및 재생, 와이파이 802.11n과 블루투스 3.0 역시 빠뜨리지 않았다. 요즘 삼절의 확신으로 거듭난 헬지의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민둥새가 넘사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점

팬택만의 최적화가 인상적이다. HTC가 자랑하는 센스 UI란은 못하지만 팬택의 자체 UI '이치 UX'는 꽤 쓸 만하다. 원 모양의 생김새는 다소 유치하지만 옆에 붙은 아이폰을 원으로 옮기면 선택한 기능으로 간단히 이동한다. 예전 아이폰 제품의 터치 활을 조작하던 추억을 살짝 떠올리게 한다.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스킵뷰' 기능 역시 만족스럽다. 좌우 측면에서는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 딱 좋다. 상·하단에 듀얼 스피커를 탑재해 영화나 게임 재생 시 통쾌가 울림거리 정도로 실감나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점

4.3인치 액정을 탑재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800×480 해상도는 정말 아쉽다. 슈퍼 AMOLED 액정이 아닐 바에는 해상도를 끌어올려 기록성을 높이는 전략이 더욱 효과적이었을 거다. 아이폰4가 3.5인치 액정임에도 900×640 해상도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CPU 클럭이 쾅페라고 성능도 그렇단 건 아니다. 대표적인 벤치마크 프로그램인 퀴드란트와 스마트벤치로 테스트해본 결과 2,237 점을 기록했다. 클럭수가 낮은 갤럭시S2(1.2GHz)가 3,200~3,500점 사이란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미숙한 성적표다. 최강의 커스텀 앱을 선사해주는 XDA 개발자 포럼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대목 중 하나.

한미디로

베가 레이어는 피쳐폰 시장에서 돋보이므로 전략한 팬택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드라마틱하게 부활해 발전회의 대명사 LG를 제치고 삼성의 뒤를 잇는 2억 업체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제품이다. 스펙에 비해 체감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삼성의 갤럭시S2를 제외한다면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이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은 드물다. 한미디로 아이폰4, 갤럭시S2가 싫다면 대안으로 삼기엔 충분하고도 남는 녀석인대 좋다.

올해 트렌드는 카피캣

자사 제품의 독점UI모양과 느낌을 카피했다며 상성을 고소한 애플이 이번 WWDC에 개발자 대회에서 구글과 MS에서 진행 중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와 '복제'할 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았다. 사용자가 기능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능력은 대단하지만 이따시카 카피캣 드림이 무색하지 않고 심지어 OS 5.0에서는 탈출 및 해킹한 아이폰의 앱스토어 격인 사파와 앱의 무시 가능도 흡수했다. 일말 무시 기능을 채택해 잠금 상태를 해제하지 않고 화면에서 해시지 등 일말을 확인한다는 사실은 매력적이지만 카피캣 드림을 생각하면 어쩔수 없다. 결국 올해 트렌드는 나중, 내년 것 따지지 않고 시용가 가진 좋은 걸 가장 빨리 완성도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임자라는 사실을 주요 회사들이 골스 실천하고 있다. 삼성 역시 갤럭시S2를 위해 이미 아이폰, 블랙베리 등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로 이미 인수한 상태다.

미리?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다양한 정보의 프로그램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미디로 컴퓨터 자원의 급비 입력이나 마우스의 움직임이다.

XDA 개발자 포럼 www.xda-developers.com

안드로이드, 윈도 모바일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다루는 해외 포럼으로, 수많은 개발자 역사가 모인 곳이다. 기기의 성능을 20% 이상 끌어올리는 미친 커스텀 롬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HTC 스마트폰 HTC는 XDA의 버프를 받아 윈도 모바일, 안드로이드, 심지어 안드로이드 OS 사용까지 가능해질 정도다. XDA 개발자 포럼의 사랑을 받는 기기는 '수령 명성의 공이 이뤄진다'는 말이 통 정도로 이곳을 래플 능력자의 산실이다.

웨젯이란?

웹브라우저 없이도 날씨·일력·계산기 등의 기능을 물론 뉴스·게임·주식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미니 응용 프로그램

GOING MOBILE

BY 장영환 PHOTOGRAPHS BY ARC STUDIO



여행 파트너 기어의 甲!

여행 떠날 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봤자 남는 건 후회뿐이다. 옷은 대중 챙기고(아차피 여자는 안 생겨요) 무료한 시간을 달래줄 스마트한 제품을 챙기는 데 힘써라. 여행지에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지루함을 못 견뎌 용가리처럼 피 토하고 쓰러지면 억울하겠잖아.



가계용 사이즈 캐리어
바이모노
러닝색 셔츠 티엔지티
화이트 셔츠 커스텀멜로우

COOPERATIONS (이메일: arc@arcstudio.com, 전화: 02-556-7764, 브라운백(www.brownback.com))



←
**APPLE
MACBOOK AIR 11**

액북 에어의 산형 발표가 올해 기술로 이뤄졌다. 지금 액북 에어를 질러도 아늑이 못난 오징어로 전락할 일 역시 그만큼 이뤄졌다. 올해



크로스백
브라운브레스



↑
**SENNHEISER
PX200-II**

여행용으로 쓰는 헤드폰은 막 굴러야 제인! 신주 단지처럼 모셔야 하는 헤드폰 따위 없는 게 더 낫다.

여행할 때 몇 시간 워밍업 헤드폰을 들고 가면 음악을 들을 때 짜증만 관리하기도 피곤하고, 행여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할 일도 많이진다. 그럴 때는 입용용 헤드폰처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오픈형 이어폰보다 귀의 피로함을 덜한 녀석을 선택하는 게 베스트다. 한때 국민 헤드폰이었던 젠하이저의 PX200의 후속작 PX200-II가 그런 점에서 여행용 헤드폰으로 추천할 만하다. 전작보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휴대성, 착용감, 사용도 밸런스까지 가격 대비 성능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대신 저음이 강하다 못해 흘러넘치던 PX200과 달리 전체적으로 평탄한 소리를 들려주니 참고하라.

LAPTOP 액북 에어 11인치 성능은 샌디브리지를 장착한 노트북과 비교해서 빼어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노트북의 배터리를 제외한 것과 비슷한 무게(1.05kg), 손을 뺄 것 같은 0.3~0.7cm의 얇은 두께, 저소음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은 액북 에어 11인치의 매력은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1080p 해상도의 영상 재생은 물론 SSD 바��로 멀티태스킹도 빠릿빠릿하다. 무엇보다 당신이 여행길에 포토샵을 비롯한 무거운 작업을 할 리는 없고, 성능을 고집해서 어깨에 멍들 몇 장을 짊어주고 다닐 생각은 더욱더 없을 테니 이만한 파트너를 찾기는 어렵다. 통 일루미늄 보디의 매끈한 재질을 뽐내는 이 녀석, 지르면 편하다.

TABLET

갤럭시 케이스
애니모드



↑
**SAMSUNG
GALAXY TAB 7**

전파 인정을 받은 상태라면 갤럭시탭 10.1인치의 국내 출시 일정은 여전히 미정이라? 기다리다 날 날 바에야 7인치를 지르자고

여행 중 종이 날 때 동영상 감상이나 간단한 웹서핑이 가능한 태블릿 제품을 찾는다면 갤럭시탭 7인치를 추천한다. 갤럭시탭 7인치의 출가는 90만 원에 육박했지만 최근에는 30만 원대에 신품을 구할 수 있다. 튼튼한 PMP의 가격도 30만 원을 넘는 미망에 갤럭시탭 7인치가 이 가격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태블릿 전용 OS 해니름은 아니지만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 진저브레드를 탑재해 특유의 바버깅법은 대목 좋았다. 아이패드와 달리 플래시 사이트에서도 뻘지 않고, 별다른 앱 없이 720p 영상을 무인코딩으로 돌릴 수 있는 데다 휴대성은 10인치와 비교아 안 된다. 여행을 태블릿으로 적절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가 더 힘들다.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지원은 덤.

PHONE

**RIM
BLACKBERRY BOLD 9780** ↓

블랙베리용 카키오독 출시가 임박했다. 블랙베리 수평 연장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했다.



여행을 비롯한 출장이 잦은 당신이라면 실시간 메일 확인이 편리한데다 풀키킵 쿼터 키보드와 손에 착 붙는 트랙 패드를 장착한 블랙베리가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블랙베리 볼드 9780은 외관상 크게 바뀐 점은 없지만 만져보면 확실히 변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 아이패드와 맞먹는 내장 메모리를 확보한 볼드 9780은 웹서핑을 시도해볼 마음이 생기게끔 만든다. 4인치 액정 스마트폰이 대체인 요즘 2.44인치 액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소한 트윗팅과 페이스북, 조만간 등장할 카키오독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기엔 불편함이 없다.

갤럭시 7 후속작의 등장

안드로이드 태블릿 시장도 다 내포함

갤럭시S2를 베이스로 나온 이 녀석은 예쁘스 1.2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기 12GB 내장 메모리, LCD 액정을 채택했고, 자체 칩셋을 통해 USB 호스팅 기능도 지원한다. 음성 통화 및 영상 통화 기능 이 포함되어 16GB 내장 메모리를 탑재했다. OS는 안드로이드 진저브레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태블릿 시장에 갤럭시탭으로만 7인치, 8.9인치, 10인치 3종류는 선보이는 셈이다. 등장 앞에 서는 거다.

모토로라 차기작?

출시 전에 기대하게 만드는 능력만큼은 최고

얼마 전 모토로라의 XOOM2 워밍업, 슬림 라인 스마트폰으로 추경자는 제품의 정비가 유출했다. 웹사이트를 새로 디자인하면서 테스트용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했다가 공개 기껏지지만 이미지는 유출된 후였다. 제품군의 이미지를 본 네티즌은 한결같이 '갓고 상다'를 연방했지만 출시 전 기대감의 장만도 채우지 못하는 모토로라의 현실을 떠올려라던 면 차기작 모델에도 고개를 기울어주기 되는 게 아닐까.

**RUMOR
MILL**

WORLD OF NERF WAR

비비탄 총에 맞아 울던 따끔한 추억은 이제 안녕.



BY 송준민

N-Strike
Maverick

빠른 연사가 가능한
자동 회전형 6연발 리볼버

직접 너프 건을 만져보고 사용해 보면 왜 이 장난감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8~12세 남자 아이들의 선호도 1위 브랜드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원형 탄창은 실제 실탄처럼 부드럽게 회전하고 한 발 한발 약실에 다트를 장전하는 느낌이 실제 리볼버에 총알을 장전하듯 쾌적하게 다가온다.



우리에 붙는 흡착 다트로 창문에 과녁을 그리고 저녁 내가를 할 수 있고, 소문자로 만들어진 휘슬 다트와 굴림 다트는 무언가를 박살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소규모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은 의미가 없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슬라이드를 당겨줘야 하는 게 불편하다면 전통모터로 자동 발사가 되는 모델도 준비되어 있다. 만천하원에서 5만 원 사이의 가격표는 한 번쯤 '가지고 놀아볼까?' 라는 마음을 부채질하기에 충분하다. 비싸고 위험해 보일지 모르나 다음에는 매년 로망 충동하는 달리 이런 장난감 장난감이다.

× 주의
같이 놀아줄 친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리케이드	다들 코이 CS-6	레코 CS-6	레이더 레이드 파이어 CS6S	롱스트라이크	스텔트
AA 건전지 3개로 풀오 토매터 10연사가 가능한 전통 건	버튼 8자로 플렉시모드와 공격모드로 신속한 변신이 가능한 너프 건	견직용 게리판과 연장 배럴을 이용해 피스톨 모드와 리볼버 모드를 오가는 멀티 너프 건	미피아의 토미 건을 연사 시키는 39알의 드림 탄창을 포함한 사건 타입 너프 건	플립형 스크로와 연장 배럴을 통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볼트 액션식 롱 레인저 라이플	가려진 틈을 전부 비유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강력한 해비 머신 건



Water Proof Gear

찰진 욕수가 흐르는
수컷을 위한 제품들!

당신 몸이 어땀만이 욕수 대항을 스킨을 시전해? 풀 것 없다. 이 녀석들과 함께라면 비 오듯 흐르는 욕수에도 거칠 것이 없을 테니 말이다.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조영림
HAIR 이도우 MAKEUP 고영민
MODEL 전영아
FILM 김진욱

COLUMBIA DRAINMAKER

발바닥이 시종일관 욕수를 토해내도 걱정하지 마라. 물을 들어부어도 밑창으로 꼭꼭 빨아내는 풋 베드 재질의 바닥창 덕분에 신발 안이 축축해지지 않는다. 가벼운 데다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시원한 메시 소재라서 한여름에 당신 발이 뽕뽕송송하게 유지되는 신세경을 맛볼 수 있다. 울여름 신을 운동하는 네놈으로 정했다!

문의 www.columbiaakorea.co.kr 02-540-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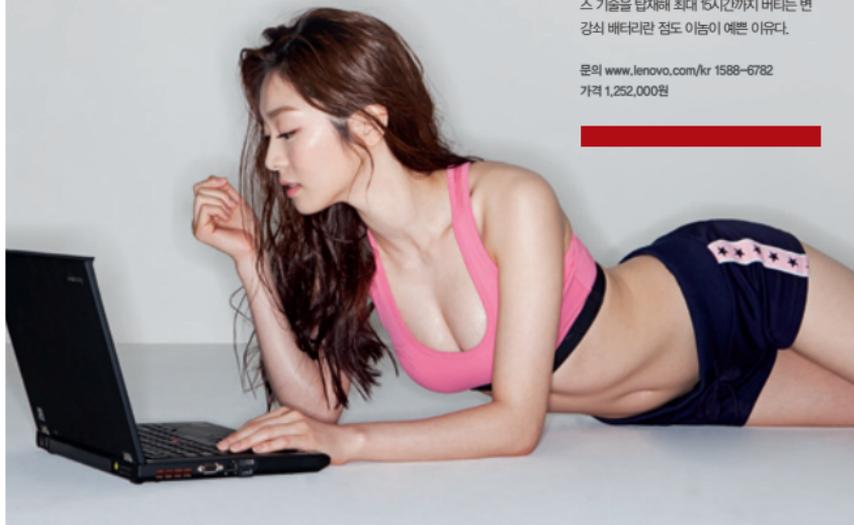
가격 118,000원

LENOVO **T420**

당신 손가락이 육수를 방출해도 놀라거나 노
여워하지 마라. 레노버 T420 노트북의 누수 방
지 기능이 해결해줄 거다. 키보드 아래에 특수
설계된 배수로로 유입된 액체가 본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육수
폭포에도 끄떡없다. 여기에 엔비디아 울티머
스 기술을 탑재해 최대 15시간까지 버티는 변
강식 배터리란 점도 이놈이 예쁜 이유다.

문의 www.lenovo.com/kr 1588-6782

가격 1,252,000원



SONY

DSC-TX10

당신 손을 잠령한 욕수 때문에 카메라를 잡기도 불안한가? 소니 DSC-TX10은 수심 5m의 물속에서도 최대 1시간을 버티니 물수건 같은 당신 손도 거뜰히 견디며, 욕수 때문에 미끄러져 1.5m 높이에서 자유낙하해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하다. 1,620만 화소에 칼자이스 렌즈를 장착해 화질도 만족스럽다. 동영상 촬영 중 스틸 것도 저장 가능하니 이능 참 푹푹하구먼!

문의 www.sony.co.kr 080-777-2000

가격 479,000원



인스에 티셔츠 목시
빨간색 수영복 이디디스 by 스텔라 맥카르티
운동화 프레디



PHILIPS **SENSOTOUCH**

욕수의 은총이 내린 턱에 전기면도기를 대고 세차게 문지르는 게 부담스럽나? 걱정하지 마라. 필립스 센소터치 30는 세이빙 폼과 쥘을 바른 촉촉한 상태에서도 면도할 수 있다. 게다가 헤드가 인팍으로 360° 회전하기 때문에 턱, 목 등 굴곡 있는 부위도 잔털 없는 청정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럭셔리 스타프, 스몰 럭셔리'라는 말이 어울리는 녀석이로군!

문의 www.sensotouch.co.kr
080-600-6600
가격 500,000원

KEEPURS TALIAN

당신이 흘리는 땀수 따위는 가스롭다.
폭풍 소나기도 KEEPURS 가방 속에 피신
한 노트북을 해코지할 수 없을 만큼 강
력한 방수 능력을 자랑한다. 비바람만
불면 가방을 앞으로 돌려맨 채 우산으
로 방어하던 과거는 잊어라. 담개와 백
팩 사이의 공기가 쿠션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외부 충격에도 강하다. 고가의 장
비를 담을 백팩을 찾는다면 안전한 녀
석이 없을 거다.

문의 www.keepurs.com
031-815-5343
가격 99,000원



검정색 스포츠웨어 등 데생트
비지 아디다스
운동화 프레디

SONY SPK-CXB

분수처럼 뿜어 나오는 당신의 욕수에 캠코더가 무방비 상태인가? 어서 빨리 스포츠팩 SPK-CXB를 투입하라. 캠코더와 한 몸이 되어 바닷물보다 끈 당신의 분비물을 빈틈없이 막아줄 거다. 수심 5m까지 고착 않으며, 스테레오 마이크를 내장해 수중에서도 또렷한 음향 녹음이 가능하다. 촬영 영상을 탑재된 접이식 거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

문의 www.sony.co.kr 080-777-2000
가격 미정

SONY HDR-PJ30

‘핸드캠+프로젝터-소니 HDR-PJ30’이다. 이놈 하나면 캠코더로 찍은 영상을 보기 위해 TV나 프로젝터에 연결하는 번거로운 일 따위는 안녕이다. 소니가 자랑하는 엑스모 R 센서를 탑재해 야간에도 선명한 화면을 촬영할 수 있으니 응용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오늘 그녀와 찍은 화끈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상하며 여름밤을 불사르는 것도 그중 하나가 되겠지?

문의 www.sony.co.kr 080-777-2000
가격 1,299,000원



촬영장 알아보기

가장 기다려지는 스쿠터

정장 대해 언제 나오는 거?

작년 파리 모터쇼에 등장한 MINI의 전기 스쿠터가 라이더들의 꽃바람만 뜨겁게 해주고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 마치 전공생스쿨을 컨셉트에 꽃듯이 코드를 달고 충전하게 되어있는 이 녀석은 마치 바이크가 아니라 기전 제품이라는 느낌을 할 정도로 신기했다. 무엇보다 한 번 충전하는 데 드는 전기가 얼마 안 걸린다는 점이 매력적인 사실. 그리고 계기부에 마련된 아이폰 용에 아이폰을 살짝 끼워 넣기만 하면 충전과 동시에 내비게이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제품선은 이미 할부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폰은 4가 나오고 아이폰5 출시 예까지 나온

는 마당에 이 녀석은 하업없이 우릴 기다리게 만든다. 기쁨감이 연일 사상 초유의 기록을 경신하는 요즘, 바이크의 계절 여름 이 다가오니 전기 스쿠터보다 전기 바이크가 더 간절하게 느껴진다. 다들 전기 바이크보다는 전기 스쿠터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분명 전기 바이크 시대는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전기 스쿠터의 시대는 오지 않을 거다. 간 편히 충전할 수 있는 자연이나 운행 범위의 차이, 바이크가 차보다 범용 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가 안고 있는 냉방방의 부담을 감안하면 전기 스쿠터의 시대가 오기 전에 전기 바이크의 시대가 올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THE FIRST MINI ON TWO WHEELS. MINI SCOOTER E CONCEPT. LA PREMIÈRE MINI SUR DEUX ROUES. MINI SCOOTER E CONCEPT.

A new electric vision of the future: urban mobility by MINI takes a new direction, packed with fresh ideas for innovative, emission-free driving in style. The MINI Scooter E Concept comes with an advanced economical e-motor and clever functionality. A thrilling ride with a good ecological conscience. With its irresistible design and numerous customisation options, it's made to conquer cities and hearts to the very last corner.

Une nouvelle vision électrique du futur : la mobilité urbaine signée MINI prend une autre direction et fait le plein d'idées rafraîchissantes pour une conduite innovante, stylée et sans émission. Le MINI Scooter E Concept est doté d'un moteur électrique perfectionné et économique ainsi que de fonctionnalités ingénieuses et futures. De quoi concilier plaisir de conduire et bonne conscience écologique. Grâce à son design unique et à ses nombreuses options de personnalisation, il est fait pour conquérir les villes et les cœurs, aux quatre coins du monde.

...라는데?



MOTOR



INSIGHT

기름 먹는 육식차와 전기차는 풀을 먹는 초식차 사이에서 태어난 돌연변이가 슬금슬금 자동차 세상을 잠식해가고 있다. 어느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나. 변종은 순종보다 진화했으며 더 강한 생존력을 지닌다. 그리고 그 변종들 중엔 다른 돌연변이를 품어내는 더 강력한 변종이 있다.

BY 유승민 PHOTOGRAPHS ARC STUDIO MODEL 김희성 COOPERATION HONDA KOREA

EVOLUTION

토요타 프리우스가 스리슬쩍 일본산 하이브리드카의 상징이 된 미당에 인사이트의 상륙은 그다지 국내에서 선풍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철저한 프리우스를 겨냥해서 버리고 나온 인사이트는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아쩔 수 없어"라고 프리우스가 변형하던 단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나왔다. 가장 파퓰에 외닿는 건 역시 가격이다. 더 이상 '기름값이나 차값이 나'를 양자택일해야 할 필요가 없다. 3,800만 원에 육박하던 하이브리드 차값을 인사이트가 2,900만 원대로 내려 하이브리드=고가라는 공식을 깨버렸으니 말이다. (물론 그 인

사이트가 지금은 더 저가의 국산 하이브리드들에게 물어뜯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프리우스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개량된 배터리였다. 그런 전제로 차를 골라려면 배터리가 이정도는 돼야 하 나 보다는 좋았다. 이 배터리 때문에 우리 머릿 속의 하이브리드는 엉덩이를 치켜든 모습으로 굳어졌으며,

트렁크는 비좁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인사이트는 웬만한 SUV 안 부러운 적재 공간을 자랑한다. 안 그래도 넓은데 뒷좌석까지 접어버리면 그야말로 광활한 적재함이 등장한다. 과장 조금 보태면, 용달 차 집간 길다. 발을 쭉 뻗고 눕는 게 가능할 뿐 아니라 카세트는 있어서만 할 수 있다는 패러디임을 말아야어버릴 기세다.

배터리의 경량화, 소형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다. 배터리가 대체 얼마만큼인지 궁금해서 적재함 바닥을 열어보고 또 한번 놀랐다.

바닥을 열면 바로 배터리가 보일 줄 알았건만, 커다란 스페어 타이어가 누워 있다. 공간적 여유를 부릴만큼 배터리가 작아졌다는 얘기다.



연료 절감을 위해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인 보다 라인

ECON

운전대 좌측에 달린 ECON 버튼을 누르면 즉시 초속동 물로 변한다. 차 전체가 연료 절감 모드로 진화하는 거다. 우선 에어컨 바람이 약해지는 게 느껴진다. 공기 순환이 바람 공기 유입 모드로 되어 있었다면 자동으로 내부 순환 모드로 바뀌며 공기 손실을 막는다. 일시적으로 차를 멈추면 시동도 일시적으로 꺼지는 '아이들링 스톱' 기능도 가동되기 시작한다.

공교롭게도 에디터가 인사이트 직전에 시승했던 3대의 독일 차 제조사엔 BMW X3 5.99만 원, 미니 컨트리맨 5.16만 원, BMW X3 5.99만 원도 바로 이 '아이들링 스톱' 기능을 탑재한 녀석들이었다. 인사이트를 포함해 아이들링 스톱 기능을 지원하는 수입차 4종 중에 이 기능이 가장 빛났던 건 이례하게도 가장 저가인 인사이트였다. 고가의 독일 차 3대를 제치고 말이다. 왜냐?

인사이트의 운전석에 앉아보면 시동이 걸렸나 착각할 정도로 조용하다. 바깥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무 조용한 나머지 골목에서 같이 걷는 사람이 잘 비키질 않는다. 바로 뒤에 차가 온 줄도 모른다. 도로 위에서도 귀를 울리는 건 오로지 타이어 소리뿐이다.

인사이트의 오토 스톱 기능이 빛을 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저소를 얻었다. 앞서 시승한 3대의 독일 차를 도심 속에서 타고 다녔을 땐 아이들링 스톱 기능을 강제로 꺼버린 적이 많다. 시동을 걸 때마다 반복되는 진동과 소음이 자꾸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 중 가장 조용한 인사이트는 시동 소리가 워낙 조용해서 아무리 잤다 잤다 반복되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ECO DRIVER

고연비에서 엔진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운전자 자신이다. 아무리 연비가 좋은 차도 운전 습관이 좋지 않으면 절대 좋은 연비가 안 나온다.

인사이트가 훌륭한 이유 중 하나는 연비 운전의 습관을 키워주고, 운전자를 교육하는 차라는 점이다. 연비가 좋을 땐 속도계의 색깔이 녹색이 되었다가 조금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면 청록색으로,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하면 파란색으로 변한다. 순간 연비가 나빠졌다는 얘기도. 나도 모르게 자주 녹색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진다. ECON 버튼이 눌러진 상태에서는 엔진이 알아서 연비 친화적인 주행을 하기 때문에 녹색 상태를 유지하기가 더 쉬워진다.

계기판에 5드루의 나무가 있다. 연비 운전을 잘하면 잎사귀가 하나씩 붙는다. 매 운전을 마칠 때마다 연비 운전 능력이 잠수되어 잎사귀가 늘기도 줄기도 한다. 온라인 게임의 레벨 업과 매우 흡사하다. 고수가 될수록 레벨이 올라가는데, 올릴수록 잎사귀를 갖는 기준은 점점 까다워진다. 총 3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스테이지를 뚫 때마다 당신의 능력을 칭찬해주는 엠블럼이 하나씩 생겨난다. 이거 생기기만 뒤 주냐고? 그런 거 없다. 하지만 직접 타보면 모든 게임이 그렇듯, 당신도 분명 레벨이 장착하게 된다. 이 엠블럼을 따고 유지하기 위해 연비 운전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다. 고도의 심리적 기술이다. 게임을 하는 이의 마음을 안다고나 할까. 역시 일본 녀석들답다.



엽이나 초음속 엔진으로 확인하라

*SPEC

엔진	직렬 4기통
배기량	1,338cc
공인 연비	23.0km/L
연료	휘발유+전기
최대 출력	88마력



HYBRID



X3



• 주요제원

엔진	4기통 디젤
배기량	1,995 cc
최대 출력	194 마력
최대 토크	38.8 kg·m
최고 속도	210 km/h
제동력	8.5 초
공인 연비	17.2km/L (1등급)
변속기	자동 8단
구입 방식	AWD (항상 4륜 구동)



촬영 현장 알아보기

선글라스 포함 by 대리인테네셔널
바구니와 후드라일 모두 옵션

on the BEACH



BMW X3의 입지는 참으로 애매했다. 너무 잘난 형 X5 때문에 없는 듯 찌그러져 차낸 적도 많다. 그 X3가 잘치부심하고 3년 만에 확 달라져서 나타났대. 사실 MAXIM도 형님만 화보 촬영하고 동생은 외면한 적이 있다. 빼졌다면 미안. 진심 어린 비키니로 사과한다.

BY 김희성 PHOTOGRAPHS BY ARC STUDIO WORDS BY 유승민 MODEL MISS MAXIM SEMIFINALIST 이서현
FILM 박한빛누리 MAKEUP 이현정 COOPERATIONS 도즈, 록세02-546-7760, BMW KOREA

2011 X3 xDrive20d High

6,390만 원





X시리즈에 탑재된
Drive 컨트롤 다이얼

iDrive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iDrive 다이얼로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터치스크린에 익숙한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다이얼로 한글을 입력하고, 주소를 찍는 건 불편하기 짝이 없다. 누군가 답답한 마음에 억하지도 않는 스크린을 눌러낸 탓인지 손가락이 여기저기 짝혀 있다. 불편한 iDrive 다이얼을 보완하기 위해 X3의 내비게이션은 음성 인식을 지원한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다. 원하는 메뉴를 커서로 하는 장소를 입력로 말하기만 하면 X3는 내가 원하는 곳을 북경북창한 후 자동으로 그곳을 목적지로 설정한다.

X3에 탑재된 iDrive-내비게이션은 주행 중에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달리는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주행 중에는 음성인식 방식으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다. 음성인식 시스탤이라는 건 주행 중에도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간편하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인데, 음성인식 조작마저도 차를 세우고 해야 하니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든다. 그래도 그간 타본 고급차의 음성인식 기능 중에 인식 감도는 가장 좋았다. 최소한 '신사동'을 '신설동'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도.



음성인식 내비
게이션 체험하기

STYLE

X3 신형이 새로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구형 X3의 디자인은 참 별로였다. 디자인이라는 게 개인 취향에 많이 좌우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X5의 디자인이 품위와 세련미를 모두 충족시킨 소위 '절頂 작품'이었다면 X3은 X5와 차이를 두기 위해 억지 변형을 시켰다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그 변형 또한 절頂 변형은 아니었다. 허위 모델이 좀 더 경제한 느낌을 주야 할 텐데, 상위 모델인 X3과 X5에 비해 10년은 더 낡은 기종처럼 지나치게 클래식하고 갑갑한 느낌이 들었다. 전체적인 라인도 어딘지 모르게 레인지로버를 따라한 듯도 했고, 얼굴은 꼬장꼬장한 노인네를 연상시켰다. 실제로 판매에서도 X5의 후광을 전혀 입지 못했다. 그랬던 X3이 2세대 버전을 내놓았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제야 X3가 제 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이다. 육중한 형님 모델인 X5, X6보다 가벼운 덩치에 어울리는 절고 날렵한 인상이다. 상위 모델의 '품격'을 대신할 '세련미'를 갖췄다는 예가다. 고지식한 레인지로버처럼 판만했던 영구리에는 색다른 허리라인이 들어갔고, 눈고리 없이 가운데로 몰려 있던 눈매는 시원하게 열트임을 했다. 어느 상황이고 숨쉴지 아주 잘했다.

얼굴만 만진 게 아니다. 구형의 엉덩이는 단 한 줄의 곡선도 없이 밋밋했다. (불수룩 랜드로버)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들어갈 데 들어가고 나올 데 나오고, X시리즈 중 가장 매력적인 뒷태가 되었다. 허단 뱀뱀을 두르며 쿨게 지나간 블랙 라인이 백미다. 

X3 신형 전후 사진 BEFORE / AFTER

에디터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여기 이 녀석의 비포(2008년형) &
애프터(2017년형) 사진을 공개한다.
어때, 애 땀땀?



BEFORE



AFTER



BEFORE



AFTER





사랑구동의 아이콘 Jeep 70주년

정통 사륜구동의 아이콘 Jeep이 70세가 되었다. 한국 전쟁에서 전장을 누빈 Jeep들이 9세 시절의 절대적인 초기 모델이었다. 이제 노년이 되어도 한참 된 셈이다. 그 옛날의 회상과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70주년 행사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행사는 제대로 엿을 먹었지만 원래 랑글라-컴패스-체로키는 물에 젖고 진흙이 튀어야 더 멋진 법이다. Jeep 열에 서서 시종일관 비를 맞았던 모델 언니들이 젖어서 더 매력적인 것처럼 말이다.



비를 맞아 흥분한 모델 언니들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여름이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못 견딜 지경이 되니 틴팅(선풍)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나? MAXIM이 당신의 차에 최고급 솔라가드 열차단 틴팅(선풍)을 발라주겠다! 습속 더워지니 솔라가드를 향한 경쟁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피사철이 되면 이벤트 경쟁률도 정점을 찍을 듯하니, 그레도 조금 일한 7월에 많은 응모 바란다!

▶ 응모 기간 : 2011. 6. 21 ~ 2011. 7. 18

▶ 상품 : 22만원 상당의 열차단 틴팅 시공 (전면 시공, 즉·후면 제외)

▶ 응모 방법

1. 예미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 당신이 MAXIM 이번 호를 들고 있다면 당첨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3. 재미있고 멋진 사진이 걸들여진다더 더 좋고!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낸다.
- 010-5199-1802면접부 휴대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솔라가드의 흥분한 열망

제3회 MAXIM 무료 틴팅 당첨 독자는?

한 번의 낙방으로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의 의지를 불태운 나장태 독자들. 당신의 은빛 포르쉐에 MAXIM이 선사하는 솔라가드 틴팅이 어울리길 바란다.

이제 20대도 약간 25세 수컷이요. 예전에 군 시절 여친과 헤어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다 일개 된 빛과 소금 같은 존재~ MAXIM! 한 번 구독 시 5시간 동안 글자 한 톨 빼먹지 않고 책이 달도록 워던 나의 버팀목이었소. 전연한 지글도 들든 마음에 나만의 과외의 교사인 MAXIM 6월호를 구독하는 중이요. 소인이 제일 좋아하는 MOTOR 색사에서 열 여자 부림지 않는 내 예미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해 줄 기회를 주디니. 이번 여름에는 33X하게 선풍시키고 드라이브 타고 싶소~ MAXIM님 부디 제게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재빨리 제자 나장태 올림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피드링'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 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된 바로, 그 100년 전통의 명품,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이다!



악마 VS. 에일리언

괴물 같은 바이크가 온다. BY 송중민

악마라는 이름의 모터 사이클 두카티 디아벨



디아벨이란 이탈리아 남부 지방의 방언으로 '악마'를 뜻한다. "아니 무슨 네이카드 바이크 주제에 건방지게 악마야? 악마란 이름은 자고로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같은 슈퍼카만 쓸 수 있는 이름이 말이지!" 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워워, 흥분을 가라앉혀라. 진득 웅크린 아수스를 연상케 하는 강인한 외모와 파워풀한 엔진을 자랑하는 이 모터사이클은 162마력을 발휘하는 두카티 L트윈 1200cc 엔진을 장착했으며, 제로백은 불과 2.6초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등의 슈퍼카는 물론 저사의 월드 슈퍼바이크 챔피언십 챔피언 머신인 1198R보다도 빠르다.

→ 흔히 네이카드는 저사의 슈퍼 스포츠 바이크의 엔진을 디튜닝해서 쓰게 마련인데 디아벨은 타협이 없다. 그리고 그런 점이 두카티답다. 두카티는 강렬한 토크를 도로에 온통 쏟아부을 240사이즈의 두터운 리어 타이어를 장착한 디아벨에 '메가 네이카드'라는 새로운 장르를 부여했는데, 사실 앞선 모델이었다. 그 유명한 과거 제조기 이미지 V-MAX와 할리데이비슨 V-Rod가 바로 그것. 로켓 같은 가속을 가능케 하는 240사이즈의 초광폭 타이어를 바탕으로 정교한 컨트롤보다는 확고한 가속을 중시하는 모습이 이미 엿보인다. 마술카와 비슷하다 하여 마술 바이크라 불렀다. 그렇다면 왜 두카티는 공이 마술이 아닌 메가 네이카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은 80년 동안 결코 레이싱 DNA를 포기한 적이 없는 두카티의 자존심에서 비롯된다. 레이싱은 속도 가이스트 컨트롤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교한 컨트롤을 통해 라이더가 의도한 라인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선 마술 바이크들은 그러지 못했다. V-MAX가 과거 제조기로 불렸던 이유는 광폭 타이

어 덕분에 자연스러운 코너링을 하기가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1800cc의 엔진이 뿜는 강렬한 가속은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오버 페이스하기가 쉬워 코너링하다 승차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300kg이 넘는 무게로 인해 브레이크를 더욱 어렵게 했다. 오직 드레그 머신으로만 인상적이었던 마술 바이크를, 두카티는 결코 원하지 않았다.

두카티는 이탈리아 타이어 메이커인 피렐리가 디아벨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디아블로 로스시' 타이어로 엔진의 강력한 파워를 감당하면서도 날렵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삼행기를 기울였다. 그 결과 디아벨은 원하는 만큼 기울일 수 있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코너를 돌아갈 수 있다. 맛을 위해 운동성을 포기하는 마술 바이크 특유의 문제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두카티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강렬한 레이싱 퍼포먼스를 간직한 진정한 메가급 네이카드 바이크가 완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브랜드들이 이렇게 만들지 못했나 따져 물을 필요는 없다. 그들이 못했기보다 두카티가 너무 뛰어난 게...

타협 없는 메가급 네이카드



UFO 라이딩 BMW K1600GTL



최초, 최고라는 단어에 맞닿은 BMW의 하이테크 바이크 BMW 모터라드가 대형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판매량을 보이며 선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발매된 BMW 최초의 슈퍼 스포츠 바이크 S1000RR 덕분인데, 최고의 성능을 지녔음에도 합리적인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더들의 부담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엔고에 허덕이는 일제 슈퍼 바이크들의 눈물이 언제 그칠지 모를 지경. 게다가 올해에는 혼다 골드윙이 독보적으로 차치하던 67톤 투어링 바이크 시장에 K1600GTL을 투입하며 확실한 8당 천하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영봉하진 실카시스



BMW의 직렬 6기통 엔진은 '실카시스'라 불릴 정도로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모두 갖춘 완벽한 엔진으로 인정받는다. 이번에 바이크용으로 개발된 엔진 역시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세련되고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건조 중량이 골드윙보다 50여 kg이나 가벼운 321kg에 불과하다고 한다. 초보자에게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무게일지 모르지만 1단부터 6단까지 전 영역대에서 풍부한 토크가 쏟아져 나오는 토르가 바이크를 새턴보다 가볍게 느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특히 효과적으로 구동력을 컨트롤하는 '다이내믹 트렉션 컨트롤'을 적용해 운전자의 의사를 완벽하게 받드는 주행을 즐길 수 있다. 여자를 뒤에 태우고 인락하지만 조낸 빠른 투어링을 즐기고 싶다면 '로드 모드', 비에 젖은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조낸 빨리 달리고 싶다면 '레인 모드', 그리고 역동적인 스포츠 모터사이클의 참맛을 느끼며 미친 듯이 조낸 빠르게 달리고 싶다면 '다이내믹 모드'를 선택하면 된다. 총 37개의 다양한 주

행 모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을 최고로 빠른 사나이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거대한 바이크가 100m를 3.4초 만에 주파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허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 할 수 있는 자동 윈드 스크린과 블루투스를 활용한 오디오 시스템, 모터사이클 전용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탑재한 갤럭시 플레이 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자동으로 비춰주는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투어링 짐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대용량 사이드 케이스까지 편의 장미란 장치는 전부 달아놓고도 이렇게 빠른다는 건 정말 반박이다. 거기에 리터당 21.7km의 연비라니, BMW는 UFO라도 좋은 건가?



주행 영상 보기



태초에 맥주가 있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 정조 시대 문인 율한준의 글이다.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한 맥주의 역사에 담긴 문화적 다양성은 상상 그 이상이다. WABAR 통해 세계 맥주를 소개한 지도 벌써 10여 년. 이제 MAXIM 독자께도 맥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길잡이를 해사하기 위해 골짜기씩 마셔버리던 맥주를, 한 한 눈 맛과 향을 비교하며 아득한 시선으로 다시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번 달엔 맥주의 역사. 그 첫 장을 열어보자. BY 이윤복 (대표이사 www.wabar.co.kr)

수메르, 맥주에 대해 최초의 기록을 남기다

맥주의 역사? 언제 어디서 그 모든 게 시작되었을까? 아무도 모른다. 인류의 기원이 여전히 모호함과 신비에 싸여 있듯 맥주 역시 그러하다. 한 가지 그럴싸한 가정은 인류와 문명이 지구 상의 이격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진화했듯이 맥주 역시 그러했을 거란 점이다. 수천 년을 내려온 중국인의 쌀맥주나 스페인에 정복당하기 오래 전부터 배루 인디언이 미산 옥수수 맥주 치차. 아프리카 사람들의 밀레로 만든 맥주(피토)는 이 가정을 뒷받침한다. 오늘날 맥주 종주국인 독일을 포함한 중부 유럽과 북유럽인의 선조 격인 숲 속 바버리안들 역시 늦어도 기원전 1,000년경에는 밀과 보리로 맥주를 만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최초로 맥주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현존하는 기록에 따르면 인류 최초로 맥주를 만든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이다. 지금의 이라크 국경 내에 위치한 이곳에서 수메르 문명의 씨앗은 짓은 가원전 4000년 무렵이다.



수메르인에게 문명의 상징이었던 맥주는 이집트의 이슬람 교인들만 남기지 않은 존재였다.

12개의 첩보판에 수메르 살형문자로 새겨진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수메르인이 맥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이수 엔카두는 맥주를 마셨다. 그는 맥주를 7번을 마셨다. 그의 영혼은 평온해졌고 그는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행복감이 온 몸을 채웠고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났다. 그는 몸에 있는 털을 물로 씻어내고 자신의 몸을 오일로 닦아냈다. 마침내 엔카두는 사람이 되었다.”

엔카두는 영웅 길가메시와 처음에는 적이었다가 나중에는 고난을 함께한 반수반인 영웅이다. 엔카두는 원래 탈복숭이에 봉두난발한 괴물이었으나 길가메시와 친구가 되면서 ‘문명’을 접한 후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엔카두가 맥주를 마시고 털을 씻어내는 이 대목은 엔카두가 문명을 접하면서 야생성을 잃는 중요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수메르인이 문명의 상징으로 맥주를 언급한 건 의미심장하다. 짐승에서 사람, 자연에서 인간, 아원에서 문명으로 가는 길목에서 수메르인에게 맥주는 하나의 구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을 뜻하는 영어 Cash는 이집트어로 맥주를 뜻하는 Kash에서 유래했다.



맥주 없는 수메르 문명을 얘기할 수 있을까? 맥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남긴 문명단계 수메르인은 공사를 막판하고 중요한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면 모두 모여 맥주를 마셨다. 그들에게 맥주는 음료가 여흥의 의미를 넘어 의식의 일부였다. 특히 정제식에서는 양자의 안정을 기원하기 위해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런 까닭일까 수메르인의 맥주 소비는 상당했다. 당시 한 해 보리와 밀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맥주로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하니 알 다겠다. 당시 문서는 엄청난 생산과 소비다. 거의 찬양에 가까운 수메르인의 맥주 사랑을 보면, 맥주를 만드는 사람 역시 대접받았을 것이라곤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남녀 구분 없이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전문 인력으로서 존경을 받았고 군역도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맥주는 심지어 돈 대신 사용되기도 했다. 기원전 2000년의 실형문자 기록에 따르면 정제식을 치러 주고 사제가 받는 대가는 맥주 일곱 단지였다. 신을 섬기는 사제들의 맥주 사랑은 고대 수메르나 중세 유럽의 수도사나 좀 격할만 것 같다.

바빌로니아, 맥주 법을 만듭니다

수메르에 이어 메소포타미아의 두 번째 주인은 바빌로니아인이다. 바빌로니아는 수메르인의 맥주 양조 전통을 계승했고 그 위에 자신만의 독특한 자취를 남겼다. 바로 맥주법을 만든 것이다.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는 놀라게도 맥주와 술집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중에서 “맥주에 물을 타면 맥주는 짜짜라 죽인다”라는 성문법 조항도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품질 규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전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법령의 시행을 위해 맥주를 20개 스타일로 나누고 정의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그중 8개는 보리맥주고, 그 외에 밀맥주, 옅은 맥주, 붉은 맥주 등이 있으며, 이집트 수출용의 맥주는 별도로 정의했다. 이는 원료 및 품질 규제를 목적으로 관에서 제정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얘기하는 맥주 스타일과 그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클레오파트라가 병에게 자기 가슴을 들며 저 자살한 비극적 결말은 많은 예술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유는 당연히 가슴 때문이었겠지.



점토판에 맥주를 기록한 수메르인은 만취상태였음이 확실하다.



바빌로니아의 양조법은 캔시라 맥주산으로 쓴 것으로 추측된다.



이집트 상형문자로 쓴 맥주. 어릴 땐서 이게 맥주야!



두 바빌로니아인이주보고 술을 팔고 있다. 내사정부는 잘 알아?

이집트, 맥주는 현금이야

어느 날 회사에서 월급을 맥주로 준다면? 모두 “사장이 미쳤어요”를 외치며 회사를 그만둘 것이다.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양의 두 배를 준다 해도? 그래도 모두 그만둘 것이다. 맥주 장사를 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한때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이집트인들이었다. 피라미드를 짓는 노예, 시장의 장인들, 신을 섬기는 사제, 공무원 모두 일일 단위로 일당량의 빵과 맥주를 급여로 받았다. 신분에 따라 양은 엄격히 제한했지만 피라미드의 왕비와 공주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맥주 지급은 사회적 계약에 가까워서 부리는 노예의 빵과 맥주라 해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고, 왕비는 결혼 계약으로 술과 맥주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다. 현금을 뜻하는 영어 CASH가 이집트어로 맥주를 뜻하는 KASH에서 유래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이집트인에게 맥주는 음료가 아니라 음식이었다. 빵과 맥주, 여기에 약간의 양파와 밀린 생선만 더하면 한 끼 식사였다. 식량(meal)을 뜻하는 고대 상형문자가 빵과 맥주를 뜻하는 상형문자의 합성인 것은 이를 반영한다. 빵과 맥주로 급여를 지불한 것은 결국 일용할 양식을 현금

대신 지급했다고 할 수 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쌀을 돈처럼 통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맥주는 8가지였는데, 주로 보리맥주를 마셨지만 밀맥주나 생강과 꿀을 곁들인 맥주도 있었다. 사람 피처럼 색깔된 맥주를 으뜸으로 쳤다고 한다.

맥주가 돈처럼 통용된 만큼 당연히 세금도 맥주로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맥주에 세금을 매기진 않았다. 적어도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기 전까진 말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 많은 말을 들어야 했던 클레오

파트라에게 “맥주 세금의 청사자”라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 “자나친 음주는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당시 이렇게 세련되게 말했을 리는 없지만 대중의 음주 단속이 목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클레오파트라, 맥주세를 만들고 망하다

일용할 양식인 맥주에 감히 세금을 부과한 배경엔 클레오파트라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자가 암살 당하자 안토니우스와 손잡은(손안 잡진 않았음)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잡겠다고 이집트를 독달같이 쳐들어오는 옥타비아누스에 맞서야 했다. 지상권을 차지하는 안토니우스와 달리 바다에서 승부를 내는 실업된 클레오파트라는 한때 구국을 서둘렀고, 항선들을 만드는 데 많은 돈이 필요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집트,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전체가 없던 맥주 세금은 이렇게 탄생했다. 클레오파트라의 비참과는 정반대로 안토니우스-클레오파트라도 연합군은 바다 위에서 크게 패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카리움 해전이다. 안토니우스를 선택한 첫 번째 물병이 절망과 파멸을 예감했다면 해전을 선택한 두 번째 물병은 그 여력을 좀 더 담양했다고 할 수 있다. 물병의 위함을 간파했던 이 커튼은 자살을 선택하고 결국 이집트는 로마에 합병되었다.

로마 사람들은 맥주를 좋아했을까?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외인 향기를 신의 음료인 넥타에 비유했다. 맥주는? 술집 냄새가 난다고 조롱했다. 물론 이 비유는 이집트 맥주가 아니라 게르만인의 맥주를 두고 한 말이었지만 타 문화의 술을 대하는 로마인들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어쨌든 이집트를 제국의 식민지로 삼은 로마인들은 곡물을 맥주 대신 빵으로 팔아버렸다. 이제 이집트는 제국을 먹여 살리는 식량 생산 기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집트 맥주의 명맥이 끊긴 것은 아니다. 적어도 8세기 무렵까지 번성했다고 전된다.

정작 이집트에서 맥주를 사라지게 한 건 로마가 아니라 이슬람이었다. 종교적인 격화가 수천 년간 마지막 맥주를 멀리하게끔 사람들을 반어아는 것이다. 어쩌면 안타까워라. 중동의 친아일랜드 맥주 양조 전통은 이렇게 그 근원을 유럽으로 남겼다. ☞

Can't Be Cooler Can't Be Hotter

Mysterious Irony About



Narsha

브야길을 넘어 자신만의 음악 세계로 날아오르는 데 성공한 나르샤가
MAXIM과 마주했다. 할기 왕성한 수컷이라면, MAXIM만큼이나 솔직하고
당당한 나르샤의 매력적인 자태에 안 넘어가고는 못 배길 거다.

BY 고정희 WORDS BY 정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태민에비뉴준우 정민 MAKEUP 강미순·쉬 STYLING 아예민
FILM 김민욱 ASSISTANT 조유림



스타드 창사의 흥 베스트 하상백 스웨터어 아디디스 by 스티븐 맥카트니
쇼츠 에디터 소장 김미 제이미앤필 구두 슈즈원



나르사는 '닐아오르다' 라는 뜻의 한글 이름이다. 이 이름을 가명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

처음에는 음계 이름으로 정하고 싶어 '미도'란 이름을 정했어. 그런데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창밖을 보니 미도 모델이란 곳이 있더라. 혼자 큰 상처를 받고 고민하던 당시 매니저와 상의한 후 순우리말 나르사로 정했다. 하지만 나르사로 가명을 정한 뒤 그 매니저를 본 적이 없대(웃음).

가수로 데뷔하는 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다. '포기하면 편하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칠 법도 했을 텐데?

열아홉 살쯤에 대중음악 쪽으로 진로를 바꿨다. 하지만 20대 중반이 넘어서 때까지 별다른 삶의 변화가 없어 머리로는 꿈을 포기한 줄 알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보다. 누구나 끈을 놓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그때 느꼈다.

성인돌이라는 타이틀처럼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예능에 대해서 잘 모르던 때라 편하게 행동했는데, 그런 의외의 모습을 재미있게 봐주신 것 같다. 어떤 행동을 해도 '성인돌이니까' 하고 받아주시니, 나역시 선택의 폭이 자유로워서 좋다. 무엇보다 아무 걱정 없이 마음대로 '까짓 뭐 어때~' 라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할 때의 결과가 더 좋았다.

아무리 성인돌이라고 해도 성형 사실을 너무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했지만 방송인이고, 여자 연예인이니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투자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성형 사실을 고백한 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과거 사진처럼 비교해보면 다른 게 티가 나는데 굳이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다. 성격상 거짓말도 못한다.

예능감이 한창 좋을 때 무리한 스케줄로 다소 주춤했다.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있었나?

농담 심이 '질나갈 때 비박하는 게야' 라는 말을 곧 질했다. 대중이 나를 많이 찾을 때, 그 '때'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일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욕심도 비례해서 커졌던 것 같다. 불과 얼마 전이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껴준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

목장이 수
왕사 티셔츠와 스타드 장식의 실버 팔찌
두꺼운 베일, 쇼츠 모두 모드

구술 변지수
초량미 모양 변지 모드



어제 패딩 포인트 베스트 레주렉션 by 이주영
를 스타일합니다
수술 장식의 스포 모드
스타트 장식의 구두 슈즈원



《영웅호걸》에서 아이유에게 “(너를 보니) 언니가 한참 젊나갈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조심해라. 그러다 한방에 훅 간다” 라고 조언했다. 당신의 경험담인가? 경험담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미래에 느낄 감정일 수도 있다. 예능 프로그램이어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아이유를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해준 얘기였다. 덕분에 아이유 팬들에게 흔이 낫지만 말다툼(웃음).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솔로 활동은 혼자라서 외롭고,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솔로로 활동을 해볼 만하다. 칭찬 상처, 관심 모두를 혼자 감내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미니 음반 (나르샤)는 타이틀 곡 ‘베리베베’ 라는 제목 때문에 잘 빠진 노래가 많이 유행한 적이 있다.

솔로 음반에서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보고 싶었다. ‘베리베베’ 의 가사도 손을 든지마자 마음에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 혹은 “너무 앞서갔다” 고 말했지만 나에게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에 솔로 음반 활동에 후회는 없다. 그리고 곡 제목을 ‘베리베베’ 에서 ‘나이트메어’ 로 바꿔도 어차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할 거대(웃음).

솔로 활동 당시 입은 전신 의상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

전신 망사 의상은 뮤직비디오에서도 나온다. 빠르게 화면이 지나가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사실 그 의상은 노출이라고 찾아볼 수 없다. 입고 있으면 답답할 정도(웃음). 아무래도 성인들인 내가 입어서 아하게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얀 정장을 입고 ‘베리베베’ 를 부를 순 없잖아(웃음).

마블린 언로 뺨치는 당신 몸매를 가리는 게 더 나은 일 아닌가?

한 번도 내 몸매가 훌륭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방송에서 황금 비율 몸매라는 결과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좋아하지만 노출로 인한 섹시함보다, 옷으로 가려도 자연스럽게 풍기는 섹시함이말로 진정한 ‘섹시함’ 이라고 생각한다.

당신 목소리는 외모와 달리 맑고 애절한 느낌이 동시에 들어난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같은 스타일의 노래가 잘 어울릴 거다.

데뷔 초에는 목소리 때문에 콤플렉스가 심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그런 목소리는 가질 수 없다(웃음). (나는 가수다)에서 ‘바람이 분다’ 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정말 중요한 건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소라 선배님처럼 감정을 실어 부를 수만 있다면 언제든 부르고 싶다.



그녀자나 면허증을 욱수 끝에 취득했다고 들었다. 어
디서 그렇게 발목이 잡힌 건가?

가능 시험은 네 번, 도로 주행 시험은 두 번 만에 합
격했다. 친구들 말로는 너무 지만해서 떨어진 거라
고 하더라. 나름 국가고사를 통과했으니 기분이 뿌
듯했다. 아. 그런데 면허법이 개정된 후 면허를 따기
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가능 시험만 쉬
워졌을 뿐 도로 주행 시험은 더 어려워졌다. 참고하
도록웃음).

친척 결혼식에 부러움이 가득 묻어오는 글귀('먼저
가서 좋냐')가 담긴 화환을 보내 화재였다. 어떤 남
자와 결혼하고 싶은가? 나를 꼭 짝이 애가해도 된다.
돈 많은 남자는 별로다. 그냥 굶지 않고 먹고 살 만큼
만 벌면 된다고 생각한다. 아찌피 돈은 나도 버니까
(웃음). 무엇보다 나란 사람을 감싸주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남자 일이
다. 아. 물론 종교도 중요하.

당신 별명 '상인들, 요대나, 나르릉, 메후리' 등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무엇인가?

다 마음에 든다. 하지만 요즘엔 누가 내 본명 박효진
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다정하게 "효진아~~"
하고웃음).

오늘부터 당신을 박효진으로 부를 것을 맹세하겠다.
마지막 질문이다. 당신에게 가수란?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당신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고, 나 역시도 그랬다" 라는 감정을 전달해
주는 사람. ♪

귀감이 될지 모두
제이이앤엘
대님 베스트 볼인 소장
수영복 스타일의
호피 무니 상의 모드





늑대 프린팅 티셔츠 세트
필리 모양의 시계 수
수술 장식의 쇼츠 모드
신발 더슈



사자노브란 동영상

사양은
배우자
는건사실핑계

에디터의 더러운 몸을
피할 길이 없으니 싫으면
빨리 페이지를 넘길
것. 본다고 뭐 건강에
나쁘거나 하진 않아

BY 2008
PHOTOGRAPHS BY ALC STUDIO
MODEL: SUGAO P.M. (www.sugaopant.com)
COOPERATIONS: 777 (www.777.com)
02-2217-5009) 777 (02-547-2771) 777 (02-546-7765)

본격 안구 정화 대작전 서핑을 배우자 는건사실핑계일뿐

손대면 즉 하고 타질 것 같은 핫한 그녀 최혜연과 함께한
서핑 체험기를 공개한다. 시원한 파도를 타고 물살을 가
르는 기쁨은 때론한 0.1초의 몸을 타는 것 못지않게 즐
겁다. 물여름 당신이 서핑에 도전할 이유는 이걸로 충분
해대라고 생각한 사실 이 기사는 우리게 최혜연 양과 물
놀이를 즐기고 싶은 핑계에 불과하지않!

본격 안구 정화 대작전 서핑을



녹색 비키니 에디터스 by 스텔라맥러트니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춰야 운동할 맛도 배가 되는 법이다. 서핑도 마찬가지. 설마 목 늘어진 티셔츠와 트렁크 팬티 따위를 입고 서핑에 도전할 생각은 아니겠지? 그랬다면 서핑 실력이고 나발이고 여자 고사기는 물 건너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에디터 김군

보드 소츠

JUPITER/BLACK ORANGE

심플하지 않으면서 요란하진 않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에디터처럼 까다로운 남자 시인에게 안성맞춤이다.

레시가드

DAVID/WHITE COMBO

ET 같은 배에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모자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 좋았다. 집업 스타일이라고 착용이 편리한 게 마이다.

언더웨어

LIGO/DOT WHITE

깔끔한 에디터의 뒤래도 꽤 괜찮은 뒤래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만족스러웠다. 장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몹시 유감이다.

햇길 최혜연

보드 소츠

MARS/TEX PURPLE

땀 차리할 허리 옆 고무줄 덕분에 몸매가 더 육감적으로 보인다. 수많은 수컷의 이글대는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니 조심할 것

레시가드

YOKO/AQUALILAC WHITE

레시가드는 착착하고 투박한 디자인일 줄 알았다. 물가에서 단연 주목받는 디자인과 똑똑 튼튼의 컬러가 마음에 쏙 들었다.

언더웨어

LISA/TEX PINK

물 빠짐이 좋아서 물기를 짠 후 잠시만 밖에 널어놔도 금방 마른다. 살짝 나온 애교? 뽀살도 밴드가 커버해준다. 와우!

덴디 가이 브랜든

보드 소츠

박성호 LIMITED EDITION

웨이크보다 박성호와 슈가포인트의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다. 수컷들은 과감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레시가드

LENNON/BLACK RED

몸매에 착 달라붙어 몸통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몸매를 자랑하고 싶어 한창한 이에게 추천한다. 그렇지만 당신은...



재방기

슈가포인트 소속 서핑 라이더 브랜드 스미스

MAXIM 에디터에게 서핑의 참재미를 맛보게 해준 뉴질랜드를 수컷을 소개한다.

이 남자 알고 보니 완전히 MAXIM 덕후다.



서핑은 언제부터 시작했어?

열세 살 즈음에 (SOS 해상 구조대) 때문에 서핑에 목 빠졌다. 서핑 월드 챔피언 슬리 슬레이터의 모습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

서핑을 잘하면 여자들이 많이 꼬여나?

당연한 소리



서핑과 여자, 둘 중 하나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어?

서핑과 여자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내가 서핑을 좋아 하는 미녀와 데이트하는 거다. 일타쌍방!

서핑을 즐기다 보면 다리 힘이 좋아질 것 아닌가? 그럼 자연스럽게 권력도 좋아지지 않?

내 여자친구에게 물어봐도 할 질문 아닌가(웃음). 확실 한 건 서핑을 배우면 그쪽 방면에서 후회할 일은 생기 지 않는다. 인성이나 생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서핑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운동이다. 한 번에 잘 할 수 있는 거만 기대는 버리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서핑하기 좋은 장소를 추천해달라.

강원도의 3·8선 근처 해변과 인목 지역이 서핑하기 제 일 좋다. 날만 잘 고르면 파도가 굉장할 뿐 아니라 풍 경도 멋지다.

서핑이 좋은 이유를 3가지만 말해달라.

건강한 몸, 절주하는 스타일, 그리고 여자

서핑보드란 무엇인가?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무 판 매기로 만든 거라 생각했나?



서핑보드는 보통 롱보드와 숏보드로 나뉜다. 대부분의 공식 시험에서 프로 서퍼는 숏보드를 사용하지만 국제서핑협회챔피언십처럼 롱보드를 타는 경우도 가끔 있다.

롱보드 숏보드보다 무겁지만 훨씬 안정적이러 서핑 초보가 많이 찾는다. 하지만 무겁기 때문에 턴을 비록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기 어렵다 보니 보드를 타는 재미가 덜하다.

숏보드 롱보드에 비해 균형 잡기는 어렵지만, 가볍고 물살을 타기 좋아서 타이팅한 턴 동작이 수월하다. 그림같은 롱보드보다 한결 좋은 쉼. 프로 서퍼를 비롯해 서핑을 본격적으로 즐기는 이들에게 적절한 보드다.

리쉬코드 높은 파도를 타다가 보드를 놓치는 일을 막는 건 물론이고 바다에서 당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구명줄이다. 제자리에 물개리도 거친 파도 앞에 선 골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귀찮더라도 발목에 리쉬 코드를 연결하자.

핀 돌고래 꼬리 길이 보폭 뒤에 나온 이 녀석들이 보드로 파도를 탈 수 있게 만든다. 보드의 조항을 담당하는데 요즘에는 탈착식도 많다.

보드의 재료?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들고 다니는 게 백선 관계로 최근에는 파이버글래스와 폴리스티렌 재질로 만든 가벼운 보드가 대세다. 덕분에 요즘 보드는 무게가 10kg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거운 보드를 들고 다니기 백서서 서핑을 배우지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진 일차, 구차하다.



요즘 인기가 쏠쏠하다.

색색의 격자무늬 바키니 룩시

BONUS: 에디터의 일일 노예 체험기



가드닝도 귀찮은? 대엿



패들링 연습을 하는 그녀를 노리는 수컷들! 그들은 이남을 자신의 생일로 선포하였다.



원더풀 코리아!



서핑이 뭐야?
조성 차라 그래

서핑이란?

보는 사람이나 타는 사람 모두 "아오 현 나.!!"를 연발하게 되는, 눈이 즐거운 스포츠다. 일단 웃을 출렁출렁 벗고 자연에 가까운 상태에서 시작하니 말이다. 스포츠로서 서핑은 가능한 파도를 오래 타면서 동시에 다양한 기술을 구사해 삼판에 게 좋은 점수를 얻은 경쟁이다. 프로 서퍼의 몸은 SOS 해상 구조대의 형상처럼 조각 같기도도 유영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체중이 뭉 파도를 꼭 잡아 타기 위해서 하체 힘은 물론이거니와 두꺼운 패딩이 필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핑을 본격적으로 배울 생각이라면 그리고 서핑으로 꽤나선 여자외, 확고한 범을 줄길 생각이라면 지금부터 집 근처 헬스장에서 하체 단련을 해주는 게 좋다.

10

매년 10

월 미국의 파도타기 메카
한릴턴 비치에서는 세계 서
핑 챔피언십이 개최되는데
4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선
수들이 참가한다.

채점 방식

프로 서퍼들은 대회에서 20분 동안 2~4번 정도의 파도를 탄다. 이때 5~6명 정도의 심사위원이 '파도를 얼마나 멋지게 타는지, 파도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지, 얼마나 바쁜지, 전략 구성은 어떤지'를 점수로 매긴다. 보통 파도를 앞에서 또는 뒤에서 돌아볼 때와 서핑을 시원하게 타는 데 얼마나 정석의 움직임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테크닉 점수의 차등이 생긴다.

● 대한 서핑협회는 서핑 관련 교육을 비롯해 서퍼의 실력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 국제에서 열리는 서핑 대회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서핑에 관심 있으면 즐겨찾기!를 해주도록!

문의 www.ksasurf.org
051-746-3753

서핑 용어 사전

이 정도는 알아두어야 어디 가서 서핑을 배웠다고 설을 풀 수 있다.

임팩트 존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순간 발생하는 파도의 가장 파워풀한 부분이다.

오프쇼어

육지로부터 바다를 향해 부는 바람. 파도가 갑자기 부서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서핑하기 좋은 바람이다.

그랜드 스텝

태풍이나 발달된 저기압에서 발생하는 파워 넘치는 큰 사이크의 파도. 영화(폭풍 속으로)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거다.

덕 다이브

보드를 붙잡고 파도 아래로 잠수해 부서지는 파도를 피하는 기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려면 관두는 게 낫겠지.

패들링

양손으로 물을 저어 보드를 파도가 있는 곳까지 전진시키는 것. 보드에 업드려서 하는 프론 스타일과 앉아서 하는 니말링이 있다.

화이트 워터

파도가 부서져 생기는 흰 거품. 이때가 장 빠른 속도로 서핑을 즐길 수 있다.



비밀에 아찔 바람 찬 바람에...

76

스티브 킹은 2006년 3월, 76분 동안 쉬지 않고 서핑질을 했다. 그가 서핑질로 파도를 탄 거리만 11km에 육박한다. 당시엔 76분 동안 말타기 자체를 유지했다고 생각해보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짐작 가능할 거다.

55

‘서핑계의 마이클 조던’ 캘리 슬레이타가 지금까지 서핑 대회에서 우승한 횟수.

서핑의 기원

서핑이 스포츠로 자리를 잡은 건 1900년대 파오아 듀크 카하-모크란 인간 덕분이다. 그는 8살이때 서핑 클럽을 열고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1966년 호주에서 열린 제1회 국제 서핑 축제에 많은 나라가 참여해 성황을 이루더니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세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됐다. 1974년 국제 서핑 협회가 창립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스포츠로 거듭났다.





하여, 하여...

서핑 초보라도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에서는 롱보드를 타고 일어서는 게 가능하다. 으랏차래!



Go Surf Yourself!

팜핑

파도가 비실비실대거나 경사가 완만해졌을 때 보드를 지긋이 눌러주면서 가속을 붙여 해당 지역을 벗어나는 기술이다.

순서

1.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옮긴다. 이때 머리와 팔도 가능한 한 앞쪽으로 기울인다. 당연한 소리겠지?
2. 중심이 앞쪽으로 물린 상태에서 앞쪽 발을 살짝 들면 몸의 중심이 갑자기 뒷 발에 몰리면서 보드의 앞부분이 툭 튀어나온다.
3. 이때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옮기고, 보드를 눌러주면 보드 밑의 물이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추진력이 생긴다.
4. 이것을 반복하여 서핑 타기 적합한 지역을 빠져나간다.

+ 카빙 턴

보드의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줄지 않는 타기 기술을 말한다. 보드의 좌·우 한 쪽에 무게 중심을 쥘서 확실히 기울이는 게 포인트다. 카빙턴에 능숙해지면 파도의 아랫부분이나 경사가 없는 곳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슈가포인트에서 쏜다!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 슈가포인트가 MAXIM 독자를 위해 3D 로고가 인상적인 신상 티셔츠 2종을 탄생했다. 티셔츠 하나라도 남과 다른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마음은 꼭 들 거다. 그러나 이제 집에서 입기도 민망한 목 놓여난 티셔츠는 쓰레키통에 차곡, 이젠트에 올리려도!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 당장 QR 코드를 스캔해서 '슈가'이 티셔츠와 어울리는 이유*를 댓글로 남겨라. 센스 넘치는 댓글을 단 독자님 2명을 골라 슈가포인트의 따끈따끈한 티셔츠를 택배로 싸주겠다. 어떤 응모할 마음이 생기나?



KIM BYUNG MAN

세상에 날린 게
개그맨이라지만
최극배우의 경지에 이른
이는 혼지 않다.
능구렁이처럼 요령껏
사는 사람이 배부른 요즘,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달인 김병만이
세상 돋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신을 보면 이들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피오른다.

내 생각도 그렇다. 달인이라는 꼬리가 정말
나를 달인으로 만들었다.

재일 존경하는 희극인 칠리 재물인이라고
들었다.

나를 '한국 재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하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 멋진 희극인 배우가 되고
싶다.

외줄타기를 비롯해서 다른 이들이 시도할
업무조차 내지 않는 걸 도전하는 게
나만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파격이든 내가 SBS의 《7스 앤 크라이》에
출연을 결심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좀
절하지 않겠나?

지난 방송에서 보여 준 부상 투혼에 피겨
퀵 김연아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난 피겨 같은 건 부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에게 정말 죄송했다. 연기가
끝나자마자 동중이 밀려와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발목에 뼈가 들이치려 격한 운동을 하면
곤란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알점이 먹지
않나?

한번 집중하면 끝장 볼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죽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끝을 봐야 않겠나?

당신에게 아예를 빌려준 파트너 이수경과

ICON

BY 교경희 WORDS 강성현
PHOTOGRAPH BY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교경은
FILM 송종민 ASSISTANT 조유림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하는 팬이
많다.

그녀는 정말 좋은 파트너다. 하지만
파트너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말 집에서 조용히 당신을 내조하는
여자가 이상형인가?

물론이다. 가정적인 여자가 좋다. 집에서
차분히 날 내조해줄 수 있다면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자신이 있다.

스타가 되기 전에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들었다. 그중 최악은 무엇이었나?

신로 배달 건물 철거 등 가지지 않고 일어
했지만 그중 최악이라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 그때의 경험 덕분에 지금의 달인
김병만이 있는 거다.

메이크업하는 도중에 "얼굴에 주름이
생겨도 괜찮다. 그래야 표정이 더
다양하게 나온다" 라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희극배우다. 다양한 표정을 연출할
수 있다면 주름이 생겨도 상관없다.
얼굴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싫잖아.

하지만 사람을 웃기는 일이란 게 쉽지
않다. 힘들고 괴로운 때도 많을 텐데
당신이 택한 직업에 회의를 느낀 적은
없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삶에 지친 사람에게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그래도 솔직히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건
믿을 수 없다. 올해는 'KBS 연예대상'을
한번 타야 하지 않겠나?

상 욕심은 없다. 지금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웃길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사실 당신 무술 실력이면 성룡 받치는
액션 연기도 선보일 수 있을 거다.
물론 《서유기 리턴즈》로 어린이들의
'현신'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지만 남자라면
역시 액션 아니겠나?

물론이다. 기회가 된다면 액션 영화에
도전해볼 생각이다. 어서 섭외해주세요!

'아마존 아생에서 리얼로 살아남기' 같은
리얼 다큐멘터리도 잘 어울릴 것 같다.

그쪽 방안(?)에는 배여 그릴스라는 유명한
앵무가 있지만 나도 자신 있다. 아마존에
가면 고릴라와 대화하는 정글의 리더
타잔이 될지도 모른다(웃음). 한국에 영영
안 돌아올지도.

스캠 대술 문자의 대모 김미영 팀장에게
문자를 받은 적이 있나? 그녀가 당신에게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하던가?
나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하더라.

당신 인생에서 '달인'이 되고 싶은 게
어디엔가?

코미디 여왕이 된다면 후배도 키워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김병만에게 부탁이있나?

고개(?)까지 최고의 파트너.

희재 반소매 티셔츠 시스템 울트
고무 스트랩 시계 타이맥스
대립 팬츠 지스타울우
신발 스포츠

“

김병민에게 게그린? 내 삶의 전부

김병민에게 프로그래밍?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사람

”



COOPERATIONS 시노빙 원단, 지노빙무 타이탄, 스포츠(02-506-7764)



한혜린

lovely popping girl

사청물 1위를 탈환한 <신기생던>의 '곰라라' 역으로 주말마다 우리를 뒤척이게 하는 그녀를 비 오는 날 만났다. 한혜린은 갑작스런 소나기에 녹록해진 스태프들의 마음을 금세 상큼하게 적셔주었다. 물론, 당신의 마음도!

BY 김희성 WORDS BY 송종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FILM 김찬욱 HAIR 해나 MAKEUP 김창영(김창영 헤어메이커스 02-3446-2700)
ASSISTANT 박한빛누리

SHE WAS HERE!

- ▶ 한혜린은 <종합병원 2>에서 차태현을 짝사랑하는 막내 간호사 '전순덕'으로 출연해 궁극의 귀여움을 선보였다.
- ▶ <신기생던>에서 한혜린이 수영복을 입고 등장한 장면은 오래오래 회자가 됐다. 색다른 비키니도 아니고 해녀를 연상케 하는 무난한 검정색 수영복을 입고 나왔는데도 그녀의 훌륭한 몸매는 가릴 수 없었다.



원미스 스파이시 킬라
시계 게스워치
구두 시스템



→ 한혜린

생년월일: 1989년 11월 6일

키와 몸무게: 165cm / 43kg

특기: 노래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법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 몽셀을 너무 좋아해서 킬이다.

몽셀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

음악을 정말 많이 듣는다. 특히 옛날 음악을 좋아한다. 예전 노래는 마치 대화하듯 교감할 수 있어서 위로 많이 받는다. 요즘 노래는 좀 일방적인 것 같다. 난 좀 더 일찍 태어났어야 했다(웃음).

잘 때의 옷차림

박사한 티셔츠나 원피스 잠옷

가장 최근에 본 영화

〈블랙 스완〉

극 중 캐릭터를 위해 배운 것

한국 무용과 승마





오늘 힐싱고 질프하는라고생않다. 발마사지라도...
 켈달대 정말이다 평소에도 힐 싱고 자주 뛰어나다
 서 별로 어렵진 않었다. 빨간 우산도 너무 탐난데
 나 주는 건가?

**외동딸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드라마 속 캐릭터 때
 문인지 귀엽고 싫없는 막내 이미지가 강하다.**
 실제로도 막내다. 언니가 한 명 있다. 하지만 이영을
 잘 때는 귀여운 막내는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쁘니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왜 드라마 이외의 활동이 없나? 소문은
 는 엄청난 작가의 요청이 있었다는데...**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 캐릭터에 더 몰입할 필요가
 있다는 작가님의 판단에 따라 취한 조치였다. 나는
 오히려 편했다. 주위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그리고 보니 주인공 세 명이 모두 신인이다. 부담스
 립진 않았나?**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부담보다는 책임
 감을 더 느꼈다. 믿어주시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더었고.

**〈신기생던이〉 주막구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다. 인
 기를 실감하나?**

스태프와 연기자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정말 열심히 했다. 신인이 할 수 있는 게 열
 심히 하는 것 말고 또 뭐가 있겠냐 보기와 달리 놀러
 다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인기를 확인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럼 집에서는 주로 뭐하나? 재미있는 거라도 승
 겨봤나?**

영화를 본다. 요즘 비해서 영화를 많이 못 봐 속상
 하다.

남자친구가 생겨도 집에만 있을 건가?

막히 특별한 걸 하고 싶진 않고 그냥 남들 다 하는
 데이트를 하고 싶다. 맛있는 것 먹고, 쇼핑하고, 한
 강에도 가고.

한강? 한강에서 뭐하려고?

간기도 하고 그냥... 잠깐,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불안한데? 나 그런 여자 아니다

항장에서 어떤 운동을 했는지 궁금했을 뿐이다. 몸매 관리를 위해 따로 하는 게 있나?

부끄럽게도 너무 바빠서 따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잠자기 바쁘다.

원래 배우가 꿈이었나?

길거리 캐스팅은 몇 번 받아봤지만 연기를 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 공부도 곧잘 했는데 날벼락처럼 수능을 망쳐 재수를 하게 되었다. 상상하고 있던 차에 엄마 친구분을 통해 드라마의 작은 배역을 맡게 되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보니 많이 혼나고 힘들었는데, 여기서 또 도망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비보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오기로 답했지 연기 연습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면서 나에게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런 점이 매력을 느껴 연기 자체를 좋아하게 됐다.

드라마 속 복근 벨레 장면이 화제였다. 실제로 벨레 해보고 싶은 복근을 가진 남자 연예인이 있다면?

아, 그리고 사진 잘대웁니다. 이상형을 딱히 정해두진 않는다. 매일 바뀐다.

당신을 유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진정으로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다. 아슬프고 촌스럽더라도 우직하게 날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움직이는 편이니까. 그래서 날 유혹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괜찮다. 난 시간이 많다. 평소 드라마를 보면서 탐났던 역할은 없나?

〈다모〉의 하자원 선배님 같은 액션 연기를 하고 싶다. 〈폴하우스〉의 송혜교 선배님 같은 캐릭터도 좋다. 난 욕심이 많은 배우다!

롤 모델은 누구인가?

존경하는 배우는 많지만 어느 한 명을 정해두진 않는 편이다. 나는 좀 자유롭고 싶다. 내 스스로에게 더 집중하고 싶다.

지금 당장 한혜린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과 부기 관리. 얼굴이 잘 붓는 게 요즘 가장 큰 스트레스다. 호박즙 드링크를 마시는 것 말고 부기 빼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일단 따로 밥이라도 먹으면서 친한히 고민해보자. ☺





스트라이프 재킷 예뻐
시계 개스워치
핑크 스파이시 실라
구두 슈조원



함영장 침투하기



출정시 영상보기



KOREA **STUN GUN**

UFC FIGHTER 진짜 수컷 김동현

최초의 한국산 UFC 선수 김동현이 WEC 챔피언 출신 카를로스 콘딧을 상대로 동양인 최초 UFC 6연승에 도전한다. "나는 강하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파이터 김동현의 승전보를 기대해 봐도 좋을 거다. **BY 김성현**

경기일 : 7월 3일 일요일(한국 시간)

시간 : 오전 9시 30분

중계 채널: **ACTION**

최정식



시합에 앞서 평소 체력관리를 어떻게 하나?

종합 체력 운동인 크로스핏을 매일 하고 있는데 근 육량이 많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게 느껴질 정도다. 선수 이전에 한 사람의 UFC 팬으로서 이번 경기에 시뭇 가는 기대가 크다.

이번에 상대하는 카를로스 콘돔은 지금까지 견주었던 선수들과는 레벨이 다르다.

실제로 서독 랭킹 7위에 랭크된 강한 선수다. 얼마나 강한지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싶다.

당신이 생각하는 콘돔의 강점은 무엇인가?

지난 시합을 보니 KO 능력이 전보다 한결 좋아졌더라. 타격이 강한 선수니 그 부분을 제일 경계할 수밖에 없다.

콘돔이 UFC 대표 코치인 그렉 직슨의 체육관 소속이란 게 당신 입장에서 부담스럽겠다. 그렉 직슨이 짜놓은 전략에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콘돔이 맨 하디와 싸울 땐 신나게 타격전을 할 수 있었겠지만 나와의 경기에서는 테이크 다운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장기간 타격 실력을 선보이기 여의치 않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태클은 받아가 불가능하다. 상대방이 공격하는 순간에 태클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

챔피언 조르주 생피에르의 도전자가 되기 위해 여러 선수들이 경쟁 중이다. 하루라도 빨리 타이틀에 도전하려면 경기 내용이 화끈해야 되지 않겠나?

남들 못지않게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싶어 연습 경기는 언제나 화끈하게 한다(웃음). 후배 정찬성 선수 같이 신나는 경기를 보여주고 싶지만 막상 시합이 시작되면 레슬링 위주의 경기를 하게 된다. 사실 경기에서 지면 밀짱 헛말이다. 긴 시간 동안 우물하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렇다보니 안전한 전략을 택하게 된다.

올해 타이틀 도전이 가능한 거만 예상은 많았는데, 스트라이크포스 헬터급 챔피언 닉 디아즈가 도전자로 탈락 내정됐다.

억울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스트라이크포스에서 챔피언을 따놓을 걸 그랬다. 파이터의 기량면에서 UFC와 많은 차이가 난다. UFC 상위권을 유지하는



UFC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된 종합격투기 대회로 2007년 라이벌 대회 프라이드를 인수하며 세계 최고의 격투기 대회로 거듭났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김동현, 정찬성, 양동일 등이 UFC에서 뛰고 있다. 미국에서 두 배 복싱을 능가하는 인기를 얻으며 때때로 대타 선수 역할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역대 최다 관중인 5만 5천 명을 동원한 (UFC 129)의 경우, 입장 수입만 약 118억 원을 기록했다.

김동현의 무패 행진

2008년 5월 (UFC 84)에서 한국인 최초로 UFC에 데뷔한 김동현은 (UFC 84)에서 제이슨 탄을 TKO로, 같은 해 9월 (UFC 88)에서 맷 브라운을 판정승으로 제압했다. (UFC 100)에서 그래픽러닝 강자 T.J. 그랜드를 몰아붙이며 3연승 달성. (UFC 114)에서 이토로 사들려, (UFC 125)에서 네토 디아즈를 연타했다. UFC 5연승을 기록한 아시아 선수는 김동현이 유일하다.

카를로스 콘돔은 누구?

미 종합격투기대회 WEC 챔피언 출신으로 최근 UFC 3연승을 기록 중이다. 통산 전적은 26승 5패. 지난 (UFC 120)에서 타격왕 타이틀을 KO(사면서) 강력한 타이틀 도전자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WEC란?

UFC의 형제격인 미국의 종합격투기 단체다. 경량급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비해 라이트급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있다.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한국계 선수 벤 매드슨이 있다.

비제이 팬은 누구?

UFC에는 원 불의 천재가 이리도 많는지 원 헬터급 전 챔피언 '천재' 비제이 팬은 카를로스 콘돔과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던 무상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덕분에 김동현은 콘돔과 싸울 기회를 얻었다.

김동현 VS 카를로스 콘돔



김동현



카를로스 콘돔

30세	나이	27세
185cm	키	193cm
77kg	몸무게	77kg
08년 이후	전적	06년 이후
5승 1무		11승 1패
14승 1무	평신전적	26승 5패

관전 포인트

콘돔은 타격기술로는 UFC 웰터급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데다 격투기 경험도 나이에 비해 풍부한 편. 과거 강가처럼 김동현이 경기 초반 이후 체력이 떨어지면 좋지 않은 결과가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콘돔은 레슬링에 약하나, 반대로 레슬링에 강한 김동현에게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것보다 스트라이크포스 챔피언이 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플로멜로 삼는 오키미 유신도 화려한 경기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로라하는 강자를 차근차근 이겨나가며 UFC 진출 5년 만에 챔피언 도전권을 따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승리 세리머니가 약하다는 평이 있다. 이번 시합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세리머니가 있는지 궁금하다.

UFC에서도 나만의 색깔이 부족하다며 과감한 퍼포먼스를 요구하더라. 등장 음악은 촌스럽다는 이유로 바뀌기도 했다. 하지만 상대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 거리는 건 내 성격과 잘 맞지 않는다. 한국계 파이터 벤 헨드슨도 예의를 지키는 바른 이미지로 어필하는데, 이젠 미국에서도 동양인의 정서를 조금씩 이해해주는 것 같다.

UFC에 진출한 지 3년이 지났다. 가장 크게 변한 점이 있다면?

그 전에는 월세 13만 원짜리 방에서 살았고, 체육관에서 먹고 자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제는 집도, 사고

차도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해졌다. 무엇보다 돈 걱정 없이 후배들에게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어 너무 좋다.

당신 팬의 대부분은 40대 이상의 남성인 것 같다. 여성팬이 없어 아쉽지 않나?

종합격투기란 게 격렬하고, 승자와 패자의 대비가 확실하기 때문에 남성 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비록 지금은 팬들이 남(男), 노(老)가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남녀노소로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소망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는?

콘딧은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조르주 생피에르와 맞붙어도 진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요즘은 인기 많은 선수를 선호하던데 UFC의 진짜 목적은 강한 남자를 찾는 거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강하다. 그러나 인기 있는 파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경기에 진다면 스트라이크포스에 출전해서라도 챔피언 벨트를 따오겠다. 지금까지 선수로서 운이 많이 따랐지만 챔피언 벨트는 한 번도 차지 못했다.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는 게 내 소원이다.



챔피언 조르주 생피에르는 누구? //

줄여서 보통 GSP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선 조상팔이라는 별명으로 더 친근한 친해 파이터. UFC 웰터급의 절대 지존이며 지난 3년 여 동안 그 어떤 상대의 도전도 용납하지 않았다. 래슬링과 타격기술의 밸런스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치중된 타입의 선수는 GSP를 당해낼 수 없다. 판정승이 많아서 경기 스타일이 임전할 것 같지만 실상 그의 상대는 선수들은 라운드가 지날수록 일곱에 팔칠감을 할 정도로 잔인한 펀더미지들이야 이렇게 괴물 같은 GSP지만 어린 시절에는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한 약골이었다. 괴롭힘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던 GSP는 9살에 시작된 극진 가리데로 실의 구원을 받게 된다.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격투기를 선택한 남자답게 성장할 때까지 갖춰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겁날 때쯤이다. 그나마 최근 김동현을 비롯해 마이크 피어스, 맨사니 존슨 등 떠오르는 샛별들이 그의 상대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가 얼마나 강력한 챔피언인지 알겠지?



양동이는 누구? //

한국인으로는 2번째로 UFC 무대에 뛰어난 양동이는 선수스, 2번째 경기에서 첫 승을 기록했다. 데뷔전의 아쉬운 판정패를 지워버릴 기세로 랍 카운스를 2라운드 4분 47초만에 TKO로 제압했다. 자신의 별명 황소처럼 상대에게 미사일 펀치를 날리며 화려한 승리를 거머쥔 양동이는, 호쾌한 경기를 좋아하는 UFC 양키팬의 마음을 사로잡는데도 성공했다.

김동현 선수 이상승 변천사

이소애의 수지
신사래의 태연
채조영전 순연애
(여동생으로 출전하지 않음)

김동현: 예쁜 여자면 OX

Q UFC 선에서 정한성이나 양동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A 최근한 승리도 있고, 아난 승리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처럼 판정승이 아닌 게 아니라 속 시원한 승리를 경험하면 좋겠다. 앞으로 이들이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UFC에 진출하는 한국 선수들이 많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흥분해서 UFC가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SOCCER HOLIC

한지은

상암 구장의 여신이 MAXIM에 강림했다.
그간 잊고 지낸 K리그에 대한 관심이 무럭무럭
자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BY 권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정희 FILM 김진욱
HAIR 이문우 MAKEUP 최영은
ASSISTANT 조유림



민말 티셔츠 지프
백지 록시
니삭스 이디디스
운동화 푸마
축구공 이디디스



— ‘상암의 여신’이라고 불린다.
조금 부담스럽지만 팬이 붙여준 별명이라 그
저 감사할 따름이다(웃음).

각선미가 어지간한 걸그룹 뺨을 후려치는데 데뷔 이
전에도 남자들이 환장했겠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
는 수컷은?

각선미라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치고 남친다. 그
리고 아쉽게도 기억에 남을 만큼 나를 쫓아다니는 남
자는 없었다. 앞으로는 꼭 기억할 남자가 생겼으면
좋겠다.

〈미인〉의 이지원과 닮은 외모 때문에 축구장이 난리
가 난 적이 있다.

내가 봐도 달긴 했다. 경기장 인터뷰 첫날에도 “이지
현 씨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축구팬에게는 유명 인사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런데 시속 한 번으로 상황이
180° 바뀌었다. 갑작스러운 인기에 당황스럽지는 않
았나?

‘지고 일어났더니 스타’까지는 아니지만 시속 후 많
은 변화가 생겼다. 주위에서 알아보는 사람은 물론
홈페이지를 찾는 팬도 늘었다. 실시간 검색 순위에
내 이름이 오른 것도 나름 신기했다.

하지만 시속할 때 머리가 얼굴을 덮는 바람에 다량의
글썩 사진도 양산됐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을 줄 알았다면 머리도 잘
꼼하게 두고 좀 더 예쁜 모습으로 경기장을 찾을 걸
그랬다.

경기장에서 타 방송국 아나운서로 잘못 소개됐지만
클하게 넘기는 당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시속 달일 통보를 받아서 불평할 상황이 아니었다. 시속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했다.

노출 의상도 과감히 소화할 수 있다고 들었다. 일찍 말
해주지!
물론이다.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야.

존경하는 사람이 손석희, 정은아, 현영이다. 알의 두 사
람은 이해가 가는데 현영은 의외야.

현영도 리포터로 시작해서 지금의 위치에 올라섰다. 나
도 그녀처럼 다양한 분야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
고 싶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가 축구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을 알려달라.

여자친구를 데리고 경기장을 찾아라. 그럼 자연스럽게
축구의 매력에 빠지게 될 거야. 내가 그랬듯이 축구장의
열기를 몸으로 느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알겠다. 일단 여자친구부터 만들라는 소리군. 끝나고 시
간 있나? 응?
하하하! 하_



주황색 민소매 티셔츠 아디다스
반지 롤시
니삭스 아디다스
운동화 푸마
축구공 아디다스

이동국 K리그에서 전설이 될 기세

국가 대표팀에 발탁만 했다 하면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이동국이지만 K리그의 전설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일단 K리그 통산 12번째 40~40(40골~40어시스트), 최단 기간 10~10(10골~10어시스트) 달성이다. 여기에 K리그 최다골 경신 및 24년 만의 더블을 달성할 가능성도 높다. 지금까지 통산 109골을 잡아놓은 이동국(6월 14일 기준)은 역대 최다골을 기록한 116골(우성용)에도 7골 차로 따라붙었다. 여기에 K리그에서 지금까지 단 두 명만 달성한 득점, 도움상 동시 석권도 노리고 있다. 이계열이나 대단한 거냐면 1986년 피아첵(LG), 1987년 최상국(포항제철) 이후 24년 동안 두 타이틀을 모두 거머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요즘 이동국의 국가 대표팀 합류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활약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K리그 울스타진, 지방으로 고고성!

지방에 사는 K리그 팬의 열원이 이뤄질 것인가? 올 시즌 K리그 울스타진은 7년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7월 30, 31일 중 하루를 택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울스타진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데다, 지난 가나전이 지방 경기였음에도 4만 4천여 팬이 경기장을 찾으며 지방 경기도 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아직 올 시즌 울스타진의 경기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6월 14일 기준). 참고로 2008년과 2009년은 일본 J-리그 울스타 팀과, 밀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작년 울스타전은 FC버슬레로나와 경기를 치렀다.



노란색 민소매 티셔츠 이디다스
 바지 버커루
 니스스 이디다스
 운동화 푸마
 축구공 이디다스



활용방법 보기

박지성, 홍보 대행사에 역관광당하다.

박지성과 S파운데이션이 베트남에서 한 '두산 아시안드림컵' 이 홍보 대행사 프레임의 삽질로 개미를 뺏다. 박지성은 조용히 유소년 축구 클럽을 진행하려 했을 뿐인데, J.C를 고객으로 삼고 있는 프레임이 무라수를 던졌다. 축하 공연 가수로 J.C를 섭외했고, 그 바람에 몰려든 수천 명의 팬 때문에 행사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흥분한 팬들이 버스를 흔들어대는 바람에 박지성과 클럽 직원 선수까지 타 버스가 하마터면 뒤집어질 뻔했다. 오죽하면 박지성마저 "이번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별관을 토로했을까? 게다가 어렵게 초청한 일본 축구의 '살아 있는 전설' 미우라 카즈요시의 이름을 VIP 명단에서 빼뜨리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는 철저히 홍보잡 선수 취급을 당하고 되돌아갔다. 박지성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락 팔락 놀라게 아닐 수 없다. 이를 어쩔..



한지은

생년월일 1989년 4월 25일
소속 TBS(리포터)

그녀를 볼 수 있는 곳

"FC 서울 리포터로 활약 중이나 상암 축구 경기장에서는 나를 만날 수 있다."

파격적인 의상에 대한 그녀의 생각

"방송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면 과감한 의상 소화도 OK"

야구 리포터로서의 도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그녀의 꿈

"어린 시절의 꿈은 연기자였고, 앞으로는 도연기에 도전하고 싶다"

생명의 여신이라 좋은 이유 3가지

생명 구장이 잡보다 편해진다.
선수의 팬을 직접 만날 수 있다.
FC 서울 선수와 서포터즈와 한 가족이 된다.

축구가 야구보다 좋은 이유 3가지

현장의 생동감이 끝내준다.
선수의 플레이가 예술이다.
운동의 피로가 딱 끝난다.



공포 영화에서 살아남는 법

살고 싶나? 그럼 말 좀 들어라 제발!

BY 송홍민 ILLUSTRATIONS BY 장영호

‘뒤 좀 봐 저기 있었어? 내 그림 좀 알았지?’ 화면 밖에서는 당신도 배어 그 릴스 못지 않은 생존왕일 테지. 하지만 어둠과 미처광이들이 가득한 공포 영화 속에서 당신은 침착할 수 있을까? 살고 싶다면 이것만은 기억하라!

RULE NO.1

당신의 아이가
아이들을 수 없는 밀로 중얼거리거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면
빨리 썩 죽여라.



RULE NO.2

괴물이 죽었다고 판단되면,
절대로 살아 있는지 확인하지 마라.
정하고 싶으면 먼저 사람을 시켜.



RULE NO.3

도망가려면 버스를 이용하라.
승용차를 타면 괴물은 이미 차 안에
있을 것이다. 택시 운전사도 항상
안락에 사로잡혀 있다.



RULE NO.4

주 경계선은 넘지 마라.
특히 텍사스. 거긴 죽음의 땅이다.



RULE NO.5

그래도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제작자는 절대 성인 등급을 완화하지 않는다.

참신했던 영화 속 공포 장치
이런 형태로 작고 싶지 않아

스크림 4G



오멘 2



어보세요?
자기 누구 없나요?

레이저던 이틀



‘문자 발송, 문자 발송’ 침묵의 도서관에서 울리는 문자
도착 알림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스마트폰 시대에 어
무연한 호수 옆에서 익사한다. 두터운 얼음을 깨다
올리는 문자 메시지 공포증(요즘 누가 집 전화 받나?). 악
계 두드리는 남자와 그를 깨낼 길 없는 사람들의 공포가
당들의 전화 타이핑과 문자 타이핑은 정말 신묘 그 자체
생생하다. 이거 보고 나면 아이스크림? 발도 못 올려.

좁은 복도에서 마친 듯이 다가오던 레이저 트랩. 도망칠
곳은 없네! 보통 영화 같으면 요래가 찬다던지 풀이 차
오른다던지 벽이 쭈어 온다던지로 끝나잖아! 아오, 이
런 기억력 대장!

RULE NO.6

이름 없는 여인숙이나, 호텔에 묵지 마라.
힐튼이나 인터컨티넨탈에 묵어라.



RULE NO.7

하지만 목욕은 하지 마라.
샤워도 안 돼.



RULE NO.8

여름 캠프는 무조건 패스다.
특히 호수 근처는 절대 안 된다.

모든 미신과 전설은
사실이다.

모든 미신과 전설은
사실이다.



RULE NO.10

학교에서 왕따당하는 수줍고 조용한 여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그들은 모든 걸 알고 있다.



네 사실입니까?

모든 미신과 전설이 정말 사실입니까?

RULE NO.11

모든 미신과 전설은 사실이다. 믿어라.

항복이 불가능! 불안
쇼킹 모먼트



레이저맨이 아플



사백의 저주

환변네
에



고스트 씬

여보, 머리 밀이
하셔요.

계사키가. 왜 알맹한 문 놔두고 유리창은 깨고 그려
간 떨어지게. 시체 주머니를 뒤따라가 갑자기 창문을
깨고 들어온 좀비에게 식겁한 앨리스. 시체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제대로 뒤뚱수 맞았네.

대화를 나누던 이웃집 주인이 엠블린스에 치는 장면.
이게 유행하는 버라이어티 아님 드라마고 교통사고 장면조차
호러가 됐어(대표적 피해자: 하리).

선상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승객들의 머리 위로
흔들한 피아노 줄이 한 순간에 지나고대 시간 없으
니까 빨리빨리 갑니다. 나뭇은 생애에 대한 경외심
이 없당께.



우리나라 공군
F-16사업

이놈의 비행기. 언젠가는 지르고 말 거야! | WORDS BY GORGE



공군이 차기 전투기를 장바구니에 담은 F-X 사업은 벌써 3회 차에 접어들다. 전투기를 지르겠다 말만 나오면 국방 분야 사람들은 “이건 내 떡밥!” 이라며 난리 법석이다.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상징성도 높은 데다 해외 전투기를 직접 구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투기를 팔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하다. 개나 소나 아이들의 노래 제목마냥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니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F-X 사업의 스타트와 삼질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F-X 사업의 시작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에 필요한 전투기 규모를 500여 대로 생각했다. 전투기 수명이 30년 정도니 500여 대의 전투기를 유지하려면 10년 마다 150여 대 규모의 신규 전투기를 확보해야 했다. 당시 공군이 보유한 최신 전투기 KF-16은 작전 반경을 비롯한 무장 능력이 남한을 간신히 커버하는 수준이었다. 미래를 위해서는 최신 전투기가 필요했다. 국방부는 1995년 국방 중기 계획에서 1999년부터 신형 전투기를 도입해 2005년 말까지 120여 대의 전투기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F-X 사업은 거듭되는 삼질소를 보여준다.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영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칼럼을 기재해온 일리터리 전문 칼럼니스트. 육군 펠진 아비(ARMY2IN)에서 <영화 속의 전쟁>을 기고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 획물을 연재 중이며, 민텔넷(www.cyworld.com)에서 국 방조사팀 팀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CHOICE TIME

F-X 3차 후보 기종 #1

후보 랭크 높이는 이제 그만!

F-15SE 사일런트 이글

2009년 3월 17일 공개된 F-15SE 전투기는 기존의 F-15를 개조한 녀석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감소시킨 45세대 전투기 기술을 채택하고, 전자 장비도 대폭 보강한 게 특징이다. 옆면이 아랫면에서 무장 탑재가 가능한 컨포일 탱크(CFT)를 도입했고, 수직 꼬리 날개를 15° 외각으로 기울여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다. 레이더 흡수 재질을 사용해 스텔스 성능도 향상시켰다. F-15SE 전투기는 한국,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F-15E 전투기 계열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여곡절의 최고봉 F-X 사업

역시 세상이 돈이 문제다. 1997년 전투기 기종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경제에 먹구름이 끼는 바람에 사업이 연기되었다. 1998년에는 YS의 최대 업적 IMF 시대가 도래하며 F-X 사업은 안드로메다 관망 열차를 탔다. 2000년대 국내 경제가 제자리를 찾자 F-X 사업은 부활했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투기 120여 대를 도입하려 했던 원래 목표와 달리 겨우 절반만 들어온 상태다. 2002년 1차 사업으로 F-16K 전투기 40대가, 2009년 2차로 F-16K 전투기 2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전투기가 없어서 큰일이어

F-X 사업이 반토막 나면서 공군이 운용 중인 전투기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F-4와 F-5 전투기는 도입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20대 파일럿이 신상 전투기는커녕 아버지 세대의 구닥다리 전투기를 타는 셈이다. 나이 든 전투기는 '돈 먹는 하마'란 것도 문제다.

F-4와 F-5는 단종되었기 때문에 부품 수급도 어렵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F-4와 F-5 부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호구로 전락했다. 더 안습인 건 주한 미공군이 이들 전투기가 제대로 발판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어쩔...

CHOICE TIME

F-X 3차 후보 기종 #2

후보 뽑기 놀이는 이제 그만!



F-35 라이트닝 II

F-35 전투기는 미국을 비롯해 6개국이 투자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 제5세대 전투기이자 차세대 전투기의 아홉째 격인 녀석이다. 미군의 하이로 믹스 개념비행 것과 쓴 것을 적절히 섞는다는 예기에 따르면 하이급 F-22 전투기가 F-15 전투기의 후속기로 급 F-35는 F-16의 후속기다. F-35는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특정 부문에서는 F-22 전투기도 능가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군이 원하는 날기 일자를 맞추기 힘들 거란 예상이다. 미국에서도 개발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최근에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다.



이번 3차 사업은 f(x)만큼 흥할 수 있을까?

공군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싶었지만 목돈이 걸린 문제라 차일피일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 3월 8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전투기 도입 계획이 타격을 받고 있다. 문제가 없다면 내년 말쯤에 결정된 전투기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때문에 1천억 원이 넘는 F-15K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60대 들여오려면 최소 7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오히려 스텔스 성능까지 더한다면 사업비만 8조 2천억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항쟁이 빈번 등국 시위에 전념하는 지금, 국회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뺏겨줄지 의문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역시 F-X 3차 사업의 걸림돌이다. 국내 항공 산업계와 학계는 T/A-50 고등 훈련기 및 경전투기의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조기 추진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공군에 주어진 예산으로는 F-X 3차 사업이나 KFX 사업 중 하나로 뚝뚝하는 게 고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차 사업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연기론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올 하반기가 되면 01년 사업의 연기 여부까지 결정될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볼타올라라! F-X 3차 사업이여!

요정 MB 정권이 출범하자 공군은 그동안 도입하지 못한 60대의 전투기를 들여와야 한다며 꾸준히 주장했다. 하지만 각하가 4대 강 사업에 정부 예산을 몰빵하는 바람에 F-X 사업뿐 아니라 전력 증강 사업 대부분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던 차에 찬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한쪽에만 있는 요소로 힘의 균형이 깨지고 이를 무기 삼아 우세한 쪽이 열세인 쪽을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이 부각됐다. 우리도 북한에 없는 비대칭 무기를 가질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스텔스 전투기다. 2016년 전시 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넘어야 할 것을 대비한다면 독자적인 공격 능력이 필수라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스텔스 전투기에 반하다

공군이 왜 애 인 거품을 물고 스텔스 전투기 타격을 하냐고?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전략 목표를 독자적으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북한의 못난이 김씨 부자가 또 한 번 도발을 하면 스텔스 전투기를 띄워 지옥행 티켓을 살포시 끊어줄 수 있다. 열나라 정권에 스텔스 전투기 J-20의 독자 개

발에 성공해서 F-X 3차 사업 기중에는 스텔스 기능이 핵심 사항으로 떠올랐다. 내년엔 검토를 시작해 2016~2016년 전후부터 2020년까지 고성능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게 목표인 이번 사업의 후보 기종은 미보잉사의 F-35E 사일런트 스퀘어 이글, 미 록히드 마틴사의 F-35 라이트닝, 유럽 4개국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으로 압축됐다.

CHOICE TIME

F-X 3차 후보 기종 #3

후보 뽑기 놀이는 이제 그만! 📌



유로파이터 타이푼

유럽을 대표하는 차세대 전투기 유로파이터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협력해 공동 개발했다. 공중전 능력은 물론 제한적 스텔스 기능과 정밀 타격 능력까지 갖춘 우수한 전투기다. 개발 4개국이 총 620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최근 유럽 재정 상태가 별모인 지라 600대까지만 도입할지는 의문이다. 해외 국가 중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처음으로 타이푼을 주문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72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1·2차 F-X 사업에서는 사실상 틀리다 역할을 했지만 어쨌든 이번 3차 사업에서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YOU

SUB

WILL

BY STEPHEN RADIAN
PHOTOGRAPHS BY JOE MCCONNELL

M

T

!

MMA RING GIRL
KELLI HUTCHERSON

그녀를 바라보면 눈앞에 별이 반짝



그녀에게
타가 있어

나쁜 짓을 했어?
그럼 벌을 받아야지!



켈리 헨치슨

성년취임

2008년 5월 8일

타이난 쿿

미국, 캘리포니아

악마의 유혹

“돈 날려 ‘웃, 지갑 따위를 계속 사 들어요.’”

착한 습관

“신발 없버거 맛을 아는 여자.”

“유도 마블, 피터블로 시몬다. 찰리츠스
와 강자워진 딸기 셰이크도 즐겨.”

좋아하는 피아티

파브리시오 베르도.

“영원 영원에 일리샤 오브레일과 불
는다. 긴장돼 죽겠다!”

최고의 재능

스케이팅보드, 스노우보드 타기.

“행만할 남자만큼 탄다.”

정 말어지게 만드는 것

“입 냄새, 못생긴 발가락, 실례!”



그녀는 너무 sexy하다
자기 몸에서 도저히
손을 뗄 수 없을 정도로.



1년 전 그녀의 데뷔는 MMA 사상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다. 미국 종합격투기 스트라이크포스의 링걸 켈리 허쳐슨은 MMA를 색사함과 동격으로 만들었다. 이 금발 미녀는 '록스타 에너지 드링크'에 발탁되어, 거의 10년간 무적 행진을 해온 얼음주역 표도르가 1분 9초 만에 나가떨어진 경기에 처음 썼다. 그리고 곧 '미스 스트라이크포스 2011' 타이틀을 장췌했다. 관중들이 경기는 안 보고 켈리의 기술만 돌아져라 보고 있다는 걸 관계자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아마 당신도 그녀의 매력에 곧 푹다운될 거다.

생애 첫 번째 MAXIM 화보 촬영을 축하한다!
감사하다. 꿈이 이루어졌다! 촬영에 모델 일에 스트라이크포스 일까지...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링걸이 되기 전에도 종합격투기 팬이었나?
처음 스트라이크포스 일을 시작할 땐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 팬이 됐다. 링 사이드에 있을 때도 엉덩이 아래 손을 딱 붙이고 앉아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TV에 내 비보 같은 모습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맞다. 수많은 사람이 당신이 경기를 보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당신이 본 가장 무시무시한 경기는 무엇인가?

술취히 가장 회한했던 건 여자끼리 싸우는 경기였다. '여자 살바' 크리스 사이보그가 예쁘게 생긴 잔 피나를 죽도록 때는 걸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 심판이 리운드만 가고 경기를 멈춰야 하는데, 계속 진행시켰다. 그리고 잔 피나의 얼굴은... 오. 마이 갓. 정말 슬펐다.

본인이 케이지 안에 들어갈 계획은 없나?
킥복싱을 배우긴 했지만, 주로 리닝이나 출 레 손을 받으며 몸매를 관리하는 정도다. 그래도 서당개 삼 년에 풍월을 읊는다고, 그동안 눈으로 보고 몇 가지 동작을 익혔다. 예를 들어 트 라이앵글 초코르 사뮴을 쓰러뜨릴 수도 있다. 뭐 꼭 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말이지.

음, 누군가 날 조르는 일이 생긴다면 상대가 반드시 당신이길 빈다.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모든 사람이 내 엉덩이에 집착하고 주목한다. 내 마른 몸을 보다가 엉덩이에 시선이 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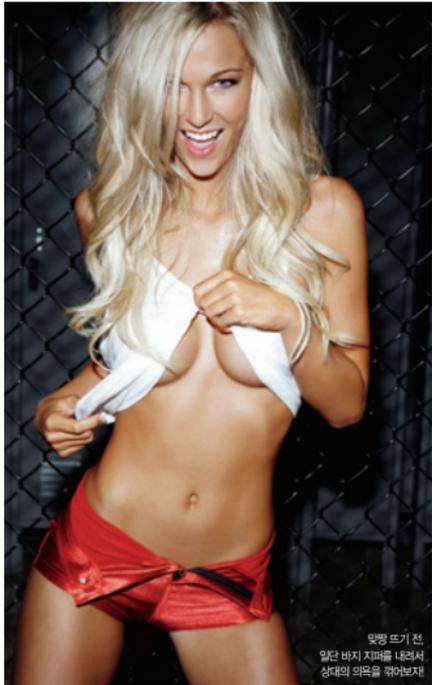


TRIANGLE CHOKE IF I HAD TO."

TRIANGLE CHOKE IF I



"트라이앵글 초크를 걸 수 있다. 꼭 그래야 하는 상황이라면"



뺑뺑기 전
일단 바지 지퍼를 내려서
상대의 의욕을 꺾어보자!

면 다들 놀라 이렇게들 말한다. '와우, 이게 이거... 엉덩이가 진짜 훌륭하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다른 세 명의 링걸과는 어떻게 다르나? 머리 끄덕이 잡고 싸우고 그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낀 그룹엔 늘 좀 나쁜 년이 하나씩 있다. 어떤 예들은 자기가 여왕 법인 줄 안다. 그게 너무 웃겨 참을 수가 없다. 그래도 내가 나서서 맞서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 여자들 대부분은 싸움이 붙으면 자기가 아는 피이터들에게 문자를 날린다. 그럼 나는 "그래, 뭐 좋아. 하지만 넌 나는 우리랑 일을 할 수 없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 스트라이크로스 링걸은 피이터들과 약간 절대 안 된다. 그 피이터가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딱 걸린 거지.

아무리 그래도 유혹을 안 받아봤다는 건 똥이겠지?

전혀. 얼마 전에 랜디 커투어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는 무척 친절하고 정중한 사람이었다. 심지어 나한테 인사를 하려고 인터뷰를 중단할 정도였다.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있지, 랜디 커투어가 나한테 작업했어. 완전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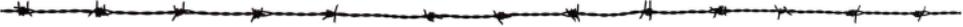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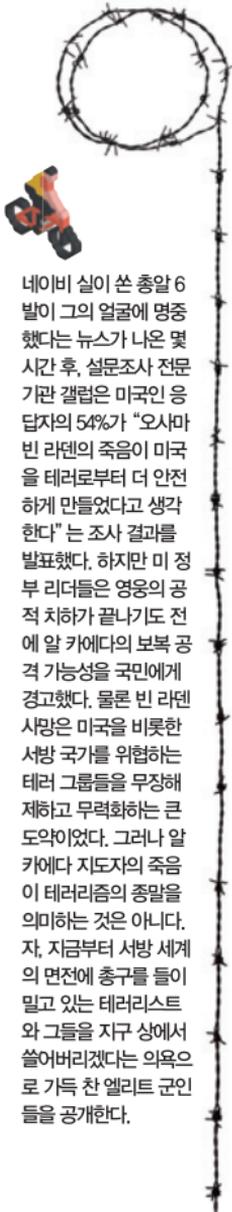
오사마
빈 라덴은
죽었다.

빈 라덴의 뒤를 이은 테러리즘계의 떠오르는 강자, 그리고 한 농 한 농 그들을 추척하는 영웅을 만나보자.



WORLD WAR NEXT

ILLUSTRATIONS BY SIGGI EGGERTSSON



네이비 실이 쓴 총알 6발이 그의 얼굴에 명중했다는 뉴스가 나온 몇 시간 후, 설문조사 전문기관 갤럽은 미국인 응답자의 54%가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이 미국을 테러로부터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정부 리더들은 영웅의 공격적 처사가 끝났다고 전에 알 카에다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국민에게 경고했다. 물론 빈 라덴 사망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를 위협하는 테러 그룹들을 무장해제하고 무력화하는 큰 도약이었다. 그러나 알 카에다 지도자의 죽음이 테러리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부터 서방 세계의 면전에 총구를 들이밀고 있는 테러리스트와 그들을 지구 상에서 쓸어버리겠다는 의욕으로 가득 찬 엘리트 군인들을 공개한다.

THE ULTIMATE WARRIORS

세계 최강에 테러리스트 사냥꾼을 소개한다. (경고! 뛰어난 이들을 건드릴 것, 아마 클립 한 개만 있으면 당신을 골로 보낼 수 있는 인간들이야!)



실 팀 식스
(SEAL TEAM SIX)

테러리즘과 빈란 진압, 요인 사살을 전문으로 하는 국비 해군 부대로, 이미 지구 유명무 중 가장 미추지고 실지 않은 인종들이다. 1980년 이란에서 미국인 인질 구출 작전에 실패한 미국 정부는 새로운 특수 훈련을 건넨 뒤 독한 병사만 모아 이 부대를 비밀리에 꾸렸다. 육군 델타 포스의 형제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실 팀 식스는 그 멤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누구도 정체를 모르고, 보통은 작전이 잘못된 경우에만 잠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밀스러운 조직이다. (빈란 사태는 아주 드문 예외다. 육해공 전투에 능한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깔끔한 자이언트 출신들이 아니라 이라크인이다.) 최고의 히트작 무술 행이 필요한가? 오사마 빈 라덴을 몰고와 함께 잡자면 주인공이 바로 이대이다. 그들은 빈 라덴의 시신을 수장했다.



영국 특수부대 (SAS)

1941년 탄생한 영국의 육군 공수 특전단으로 델타 포스, 실 팀 식스, 시에레트 마트칼을 포함한 특수부대의 원조격이다. 60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중대 4개가 모여 하나의 연대를 구성하며, 각 중대는 보트, 공중, 기동, 산악 지원의 4개 병력으로 나뉜다. 각 부대의 병사는 암호, 폭파, 의료, 통역 등을 지니는 특수 임무를 띠게 된다. 해마다 평균 125명의 자력자 중 10여 명이 SAS 합격 기준을 통과한다. 최고의 히트작 작전인 블로이드, 1980년 이라크 분리주의자 7명 연인 주재 이라크 대사관을 점거해 인질을 잡고 있을 때 SAS가 펼친 구출 작전의 이름이다. SAS의 공격 시간은 단 10분, 구출할 인질은 19명이며, 단 1명을 제외한 모든 테러리스트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델타 포스
(DELTA FORCE)

미 해군에게 실 팀 식스가 있다면 육군에는 델타 포스가 있다. 테라가 목주하던 1977년, 베트남 참전 용사 찰스 베크워드가 델타 포스의 첫 건을 다녔다. "우리로 이런 거 하나 있어야"라고 벤 에킨을 설득해 델타 부대를 창설했다. 그것이 바로 미 육군 제독전단 분견대 델타 포스다. 델타 포스의 첫 미션은 1979년 이란 주재 대사관의 인질 구출 작전이다(송승기의 열기가 총동하는 바람에 실패한 작전의 대명사가 되었다). 군사 작전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델타 포스는 동양의 영화와 게임 시리즈도 있다. 델타 포스는 한국의 707 특임대와 교할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고의 히트작: 1993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제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모리건 윌리드 확실하게 송풍 끄는 법을 아는 친 구두들.



시에레트 마트칼
(SAYERET MATKAL)

특수 정찰, 정보전, 인질 구출, 대테러 작전에 특화된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우지 기관단으로서 무장한 이들은 2년 반 동안 소총, 위장, 크리프 마크(스라예트 특공 무술) 등을 연이어 인강 캠프로 거듭났다. 현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나후, 전 총리 예후드 바라크, 그리고 국방장관이나 모국장 등 주요인사 대부분이 바로 이 특수부대를 거쳤다. 최고의 히트작: 1976년 승객 248명을 태운 에어 프랑스 항공편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 납치당해 우간다로 무회고 있었다. 29명의 시에레트 마트칼 팀이 여기에 투입돼 103명의 인질을 구출하고 납치범 7명을 모두 사살했다. 이스라엘인 사상자는 단 1명이었다. 그는 이 팀의 사령관이자 네타나후 총리의 친형으로, 뉴욕 태생에 하버드 출신의 수퍼 엘리트 군인이었다.

아메리카가 가장 미워하는 자들 | 테러리스트 사냥꾼을 위한 친철한 지침서.



아얀 알 자와히리
빈 라덴의 이라크 알 카에다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이집트인 의사. 1998년 빈 라덴과 함께 유대인과 십자군에 대한 자해자를 위한 이슬람국제전선(ICT)의 창립 멤버였다. 현상금은 2,500만 달러다.



오세 이나시우 레타 데 프투로스
폭발물 전문가인 그는 오랫동안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주의 단체인 Euzko Askas과 자유의 영어로 활동하며, 800억 넘는 사람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는 데 앞장섰다.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이라크의 장사리 리더. 9·11 테러 계획에 따른 빈 라덴과 알 카에다의 정보부대로서 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2001년부터 FBI의 추적을 받고 있는 인물.

세계는 전쟁 중

테러리스트의 피난처, 그들의 목표물, 테러의 씨앗이 자라는 땅, 그리고 테러리즘 지원국까지.

미국

모슬림 급진주의자의 남부 원 타깃, 백인 우월주의 극우 단체인 미란 국가, 동물테러전선, 지구 해방전선 등의 옹호자기도 하다. 첫 우주 FBI가 끊은 종류의 단죄.

니카라과

미란과 동북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볼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지지원의 망명을 할 아주고 있음.

파나마

테러리스트의 피난처, 미약 운반 기지이자 FARC의 5번째 전선 캠프의 출렁장.

베네수엘라

2009년에만 1만 6천 명이 살해당한 위험한 땅, 1999년부터 빈이 성향의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 직을 맡고 있다. 그는 미란 대통령 미호루에 이흐디나(우익)와 친분 관계가 두껍고, 약정 높은 베네수엘라 출신 테러리스트 카를로스 자발(리베스 산체스)을 공개적으로 지원했다. 라 미라스는 9·11 테러를 '우기의 수고한 위업'이라며 빈 라덴을 차키세온 인물로, 테러,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프랑스 내에서 중신 형을 살고 있다.

콜롬비아

군 작전에도 불구하고, FARC는 계속해서 테러 공격, 납치, 미약 운반 등을 벌이면서 하고 있다.

볼리비아

이스라엘 정보국 보고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이란에 핵 프로그램을 위한 우라늄을 제공했다. 미국과 그의 연립, 그리고 네티에를 미화하는 데 동맹 이호메디나(우익) "천과"와 볼리비아는 군 동맹의 적 공화국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

사형 국가인 사민들에게 선전 및 테러 활동을 위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알 카에다 조직원이 이미 침투한 상태다. 2010년 무기와 폭발물 운반 혐의로 영입했다.

쿠바

아프리카와 남아미 지역의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조직원을 훈련하는 곳인 관계로, 1982년 '타리' 지원국의 라스트에 잔파터 이들을 옮긴 상태.

타리 지원국 미란 국문부가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지원해 제공하는 국가로 분류된 국가

영국

북아일랜드의 아일랜드공화국의 협정을 요구하는 IRA(아일랜드공화국군)의 폭탄 테러가 1930년 이래로 영국을 위협했다. 2005년 유혈을 급진우익당이 테러 기지와 비서와 활동의 센터가 영국이 최근 2008년 이래 비서였다. 그리고 영국이 공화에서 반기파의 영국과 북부파의 영국이 1981 무기를 의무적으로 받게 만든 협정이 변함. 2001년 구두 협정으로 영국과 협회하러다 실패한 영국인 라스트 레이드다.

아일랜드

IRA의 위원이 최근 수년간 지속된 기온에 '노바 아일랜드 공화국(FEAR, RA)'과 '영국 아일랜드 공화국(CONTINUTY RA)'이 별다른 활동도 없었다. 지난 5월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당국에 영자해소(영어) 명령하는 남 북으로 발표했다.

스페인

ETA 관련 반스프 부리주의 테러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004년 테러는 약 110억 유로 1700억 유로 사용된 테러의 가장 큰 테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그리스

혁명적 투쟁(Révolutionary Struggle) 같은 테러 그룹이 경찰서, 이태대 중점 가레스, 미국과 영국 등 은행 등을 총사태를 노리고 있다. 2005년에만 400인 이상의 인명 사안이 일어났다.

모로코

지난 10년간 알 카에다 연계 조직 중 상당수가 모로코에서 뿌리를 내렸다. 모로코 이슬람 친척들이 가장 위험하다. 지난 4월 알모로코 중부 테러의 시의 무장 개척에서는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가 일어났다. 용의자 3명은 체포된 상태.

인도네시아

올해 정변에 대응하는 개혁 세력이 활발하게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무자비(무자비)와 그와 알 카에다가 이태대 중점했다. 1980년대 이후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 1년에 1만 명을 사망이 죽어갔다.

러비아

러비아 반군 세력과 알 카에다의 밀착 관계는 상당히 두드러진다. 알 카에다 연계 조직인 러시아 이슬람 투쟁그룹(FCIM)은 러시아 통치자 무야비로 카디메에 살피자라는 움직임을 지원해왔다.



리안 알무한드 모하메드 실라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일한 경제학 박사이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 팔레스타인 이슬람적 지하드에 포섭되어 폭탄 테러와 감금에 가담하기가 잦아진.



이스민르 투르키야 하민
필리핀 테러 조직인 아부 사야프의 2인자. 아부 사야프가 2001년 여객기 20기를 폭로로 납치 테러 공격을 벌일 당시 그는 미국인인 질의 참수를 미치고 구조자가 진 입할 때 현장을 빠져나왔다.



임엘카리 후세인 모하메드 알 나시르
사우디 헤즈볼라의 지도자로, 1965년 사우디(이른바)의 미군 기지에 폭탄을 투척해 미군 병사 19명이 사망, 372명이 다쳤다. FBI가 가장 심고 싫어하는 인물.



기에르모 레온 사르사스-바르보사
남미 테러 그룹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최고 지도자로, 코키안 재배와 유통을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살해를 저지했다. 그의 목숨 값은 5000만 달러.



아담 아흐메드 이브라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유대교 출신인 아담 이브라민은 17세에 이슬람교 개종해 알 카에다 공작원이 되었다. 미국 내 최대 세력을 얻은 후는 반역 조직으로 최초의 미국인 반역 작전이 되었다.

MAXIM BRAZ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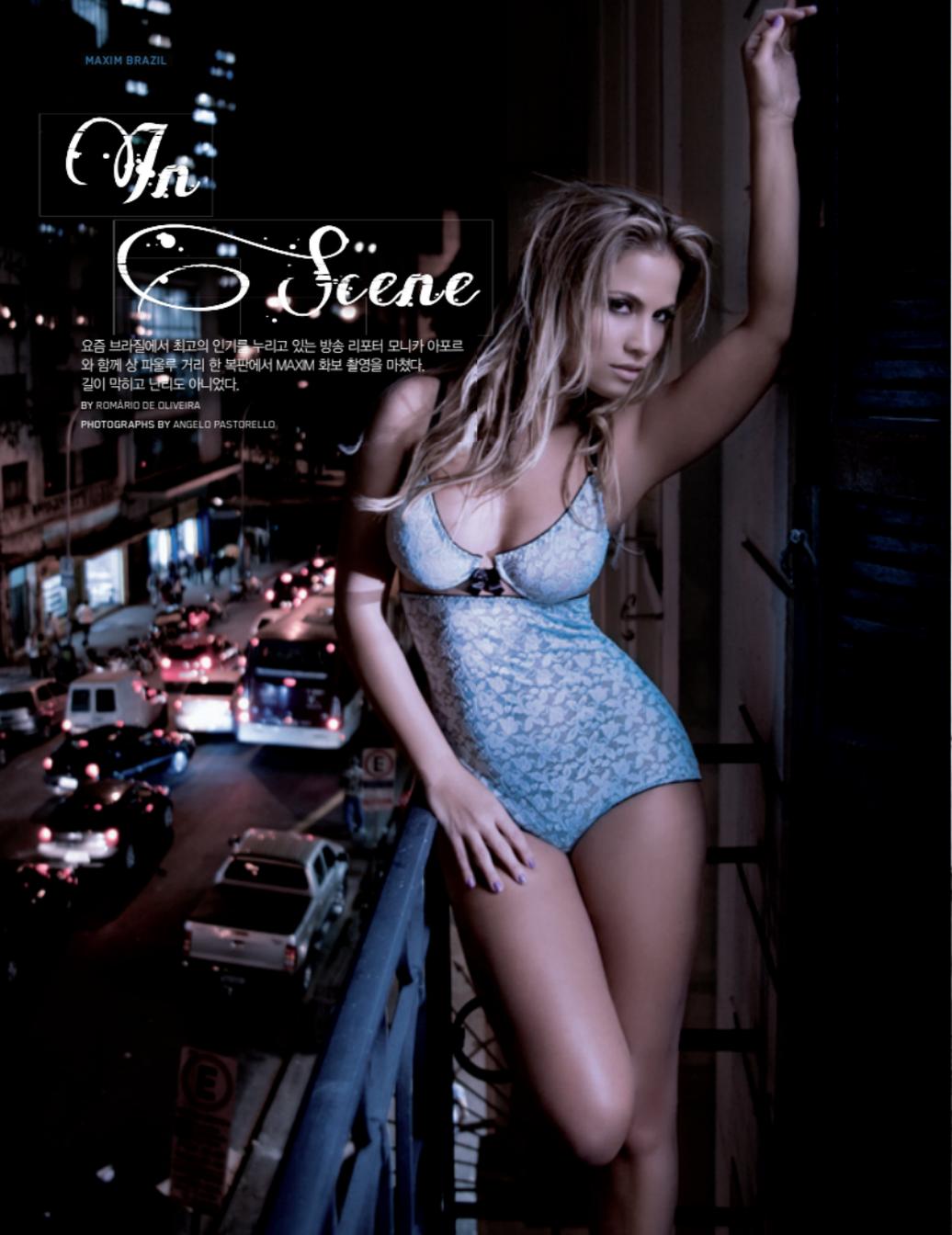
In

Scene

요즘 브라질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송 리포터 모니카 아포르와 함께 상 파울루 거리 한 복판에서 MAXIM 화보 촬영을 마쳤다. 길이 막히고 난리도 아니었다.

BY ROMÁRIO DE OLIVEIRA

PHOTOGRAPHS BY ANGELO PASTORELLO





Mônica Apor

"평소엔 수줍음을 많이 타요.

하지만 MAXIM의 표지모델이 된 이상
내 안의 노출증을 이끌어 내야 하는 거겠죠?"

**나탈리 라우르: 브라질의 국민 여배우 Deborah Secco가 영화 (여러석은 마음)에서 맡았던 극 중 인물의 이름이다. Deborah Secco는 2008년 12월 MAXIM 브라질판의 표지를 장식했다.



상 파울루 거리 한 가운데서의 화보 촬영은 어땠나?

정말 재미있었대! 솔직히 그런 옷을 입고 받거리에 서 있으려니 조금 추웠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뜨거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치던 모습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그 중 한 명이 외쳤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뭐라고 했기에?

나에게 "나탈리 라우르!" ** 라고 외쳤다. 아주 멋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다.

당신이 포즈를 취하고, 카메라를 향해 입술을 빠죽거리며 뽀로퐁한 표정을 지어 줄 때마다 촬영장 주변에 둘러든 남자들이 군침을 흘리며 사진을 찍어 대고 난리도 아니었다. 사실 우리는 당신이 구경꾼들 때문에 신경 쓰여서 촬영을 못하겠다고 할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방해가 안 되던가?

음, 사실 신경은 좀 쓰였다. 하지만 얼마든지 맘껏 찍어도 좋다. 나처럼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팬들의 환호를 받는다고 불평하면 되나? 그게 싫으면 그냥 집에 쫓겨와 있어야지.

정말 끝났다. 세상 여자들이 다 당신 같다면 얼마

나 줄을까?

여지러면 누구나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직한 러도 사실 난 정말 부끄럼이 많다.

부끄럼을 탄다고? 믿을 수 없다. 정말인가?

정말이다. 하지만 내가 그 부끄러움을 은근히 즐긴다는 건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수줍음 타는 성격으로는 MAXIM 표지 촬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이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가 이렇



모니카 아모르의
미공개 컷 보기



게 등을 떠밀어주고, 더 보여달라고 환호하는 상황이 찾아오길 은근히 비라는 것 같다. 바로 오늘처럼 상 파울루 거리 한 가운데서 색시한 옷을 입고 MAXIM 촬영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 말이다.

당신을 보고 노출중이라고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다.

가끔은 필요에 의해 실제로는 없는 노출중도 만들어나고 속에서 끌어내야 할 때가 있다. 변화가 한 가운데서 관제리만 입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포즈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니, 스스로 노출중에 걸린 것처럼 자기 최면을 해야만 했다.

사랑한다! 당신은 진정한 프로다.

방송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니 어떤 형태로든 노출증을 갖고 있다. 주목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다면 방송 채질이 아닌 가지.

그럼 혹시 당신을 보며 군침 흘리던 그 남자들이 촬영에 도움이 된 건가?

그건 아니다. 정말 카메라 렌즈에만 집중해야 했다. 그리고 그 렌즈 바깥에 있는 남자 우리들을 시야에서 지우려고 노력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한 컷도 제대로 찍을 수 없었을 걸?

오늘도 그 중 몇몇 찌꼬레기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서있는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참 난센스다. 안 그런가? 내가 아슬아슬한 옷차림으로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적잖은 남자들이 나를 '정신상태가 틀러먹은 알개' 라며 비난한다. 그러면서 뒤에선 내 파파라치 사진을 검색해서 일가수 일부쪽을 관찰하며 하고, 내가 더 멋진 모습을 보려고 난리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아까도 내 옆에 있던 한 경비원이 다가와서 나지막히 말했다. '모니카는 정말 최고' 라며, "오늘 여기서 모니카의 MAXIM 촬영을



볼 수 있어 죽어도 어한이 없다"고 말이다. 니 또한 너무 행복했다고 전해주고 싶다. 상 파올루의 중심가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다 보면 별의 별 얘기를 다 듣게 된다. 누군가에게 내가 달콤한 쿠키상자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계 최악의 미친 년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얘기 하나하나에 일확천금하지 않으려 한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마인드 콘트롤을 하고 침을 내린다.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되뇌이면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게 되니까.

오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건 나보다 내 남자 친구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에게 물어보라.

음, 이 얘긴 관두는 게 좋겠다. 그럼 두번째 중요한 질문. 만약 당신이 24시간 동안 남자가 된다면 뭘 하고 싶나?

글쎄... 아마 24시간 동안 여자처럼 친구 녀석들에게 전화해서 약속을 잡을 거다.

기왕 남자가 되었는데 하루 종일 전화통이나 붙들고 있었다는 건가?

그날은 전화들 하며 약속을 잔뜩 잡고, 24시간 후 내가 여자로 돌아오면 그 남자들을 만나러 다녀야지!

잠깐, 남친이 이걸 볼때 괜찮은 건가?

괜찮다. 왜냐하면 남자 친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할 거니까.

젠장, 부러운 녀석이로군. 인터뷰 그만해야겠다.

음, 난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좀 더 시적이고 사회비판적인 얘기를 해볼까?

그런 건 트위터에나 남겨라. 참, 트위터 주소가 어떻게 되나?

MAXIM독자님들, 많이 팔로우 해주세!

@moapor



A woman with long blonde hair, wearing a red velvet halter-neck mini dress and purple high-heeled shoes, is leaning against a large, ornate black metal pillar. She is looking towards the camera with a slight smile. The background is a dark night scene with warm streetlights and a decorative metal railing. The overall mood is elegant and sophisticated.

“부끄럼을 많이 타지만
사실은 은근히 그 부끄럼을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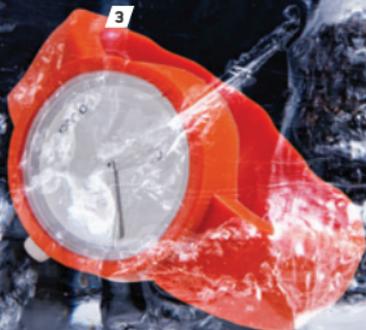
FROZEN TIME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가죽에 팔목 육수를 더하면 당신이 가는 곳에 모든 인파가 흥해처럼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될지나, 여름엔 자고로 시원하고 상큼한 게 최고.

BY 고희현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령

COOPERATIONS 제류렌(02-3446-8948) 오다렌(02-543-7889) 이디디스(02-547-2771) 오블락(www.oblack.com) 소오리(02-3143-9543) 비스, 이프로(02-546-7764)





- 1 스틸은 사랑은 시계도 예외일 수 없다.
288,000원 제티움
- 2 감성세 매입 시계에 파란색 숫자가 멋스럽다.
398,000원 워슨
- 3 시계 일단 볼 수 있는 팔찌 장식의
고무 스트랩은 다른 색상으로 교체기 가능하다.
48,000원 오플락 by 라이플
- 4 장난감이 아니다.
레고 모양의 부드러운 고무 스트랩 시계
230,000원 오디엠
- 5 일품처럼 투명한 플라스틱 스트랩 시계
가격 미칭 아디다스
- 6 반개 단양으로 카펫한 스트랩이 독특하다.
유명 디자이너 제라미 스코프 합작품
86,000원 스위치
- 7 깔끔한 실버와 화이트 조합이 시원하다.
2,000,000원 데 예포스

2011 SUMMER MAXIM'S PERFECT STYLE GUIDE IT'S HOT!!



BY 고정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ILLUSTRATIONS BY 장미연
ASSISTANT 조유림



초록색 중신모
96,000원 랑글



빗길일 없는 모자
가격 미정 록시



특별 뒤편은 펜시 로고 캡
39,000원 몰렉티

뒷 부분이 메시 소재로 된 피렌체 캡
49,000원 스투시 by 햇츠온

HEADWEAR

그늘 속에 머리통을 숨기자.



H로고의 청이 짙은 캡
42,000원 허프 by 피나클



지퍼 달린 주머니가 실용적인 캡
49,000원 코대즈컴바인 하이커

쓰는 순간 레전드의 계량권 작별
2011 S/S 조션 메시 캡
154,000원 반바



모자를 쓰면 냉장고 안에 머리를 차 넣고 있는 것보다 더 시원하고 멋지다. 머리가 너무 크거나 작다고 겁먹을 필요 없다. 큰 바위 얼굴을 위해 사이즈를 업그레이드한 모자를 만들어 파는 업체도 있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도전해보자. 얼굴이 작다면 초콜릿거 쓰면 되지 뭐.



온갖 종류의 물고기 그려진 밝은 수영복
198,000원 **물방파리**



기하학적인 인디언 패턴이 멋스러운 수영복
99,000원 **일라봉 by 로닌**

SWIMWEAR

물과 당신 사이에 지켜야 할 선 수영복



해변에선 양쪽방향만 색이 으들러져
89,000원 **물안개 by 스페이스힐리**



정진 짙는 당신용 99원 감성세 스트라이프 수영복
75,000원 **집**



핑크색이 시원한 물결이 물결이 만만하다 수영복
109,000원 **물결이 만만하다 by 로닌**



COOPERATIONS 콜센터(02-596-7764) 빌라봉(0544-4860) 물방파리(02-3444-7772)
물안개(02-3446-7723)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마라. 매장에서 보는 것과 해변에서 있는 건 천지 차이다. 혼스럽기만 한 꽃무늬도 해변에선 외외로 먹는다. 서핑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도(할 계획조차 없더라도) 서핑 브랜드에서 보드 쇼츠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수영복 전문 브랜드보다 감각적인 디자인이 많다.

P

PANTS

무슨 일이든 하체가 발차줘야 잘되는 법, 해변의 로맨스도 포함해서!



하리의 하얀색 줄무늬가 시원해 보인다.
59,000원 예스크

꽃 패턴이 여름을 알린다.
115,000원 타이힐피거

무난한 스타일임수록 오래 입는다. 체크무늬 반바지
69,000원 겹

벨트의 뒷면이 포인트인 초록색 반바지
255,000원 시스텔룸오

노끈 벨트가 달린 배기 스타일의 반바지
100,000원대 제너럴아이디어



족아도 발목 위를 노출하지 않는 남자, 생각만 해도 감관하다. 반바지는 분바지인데 10년쯤 입었을 듯한 견방 바지를 입는 남자, 보기만 해도 우울하다.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적어도 깔끔하고 멋진 바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만능 티셔츠
신용 받기



오노요코의 좀비 존 레논이 그려진 티셔츠
42,000원 일모스트릿닷컴



화려한 색상, 감각적인 이미지에 속지 마래
사람을 먹는 괴물이 산다.
39,000원 반스



거친 붓 터치로 그린 듯한 성조기 프린팅 티셔츠
175,000원 시스템웬즈



티셔츠 뒷면은 색다른 여자가 지킨다.
45,000원 허프 by 피나플



T-SHIRTS

맘에 찜든 욕신을 상쾌하게 만드는 유쾌한 티셔츠!



해부학이 별거나 내 몸속 장기의 위치를
만눈에 볼 수 있는 프린팅 티셔츠
25,000원 반8



문담 무영 진짜 관찰은 스타일
19,800원 반8

COOPERATIONS 일모스트릿닷컴, 반스(02-514-9006), 시스템웬즈(02-546-7794), 허프(www.huff.co.kr), 레티(02-3445-1235)



어떤 티셔츠는 자주 빨기 때문에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 아무리 독특한 프린팅의 옷을 입더라도 잘리기 전에 멸망하는 게 녀석의 운명이다. 아쉬워 하지 말자. 또 예쁜 거 사면 되지. 다행히 다른 옷에 비해 저렴한걸까?

BAG

빛나는 하드웨어가 여심을 흔드는 건 여행 기쁨도 마찬가지.

비행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크로스백
60,000원 비야모노



엄청난 용량을 품는 파란색 백팩
208,000원 커바닛 by 파나솔



PVC 소재의 가벼운 사이즈 캐리어
1,698,000원 오로비앙코



물에 젖지 않는 주황색 크로스백
395,000원 스톤아일랜드



고급스러운 색감의 크로스백
1,098,000원 프리마블라베



장롱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 댄에 몇 번 태안을 보는 제품이라면 유행 타는 디자인은 피하지. 1번의 바깥세상 나들이 후, 장롱 속 무기정역살이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



(위부터)
신맛한 색상의 플립플롭
28,000원 사복

다양한 색상과 무늬의 조합이 시원한 슬림은
200,000원 본지플로어

메시 소재의 벵골색 운동화
94,000원 제너릭스플러스 by 라이플

범상치 않은 해골 프린팅이 돋보이는 슬림은
145,000원 스텝퍼스

모든 각도에서 공기가 들어와
바람 잘 날 없는 운동화
129,000원 이디다스

SHOES

땀에 젖 축축한 발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까지
눅눅하게 만들지 말자.



장마철에도 보송한 발을 만들어주는 레인 부츠
438,000원 헌터



TOWEL

해변의 꽃, 비치 타월



브랜드 고유의 색상 조합이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86,000원 타이월피겨



해맑은 스머프가 사는 노란색 비치 타월
가격 미정 홀하우스

영문 프린팅이 멋스럽게 박힌 거자색 비치 타월
48,000원 아나로그 by 로닌

플림플림, 비치백과 세트로만 판매
99,000원 지프



비치 타월 재질의 편초
79,000원 킥삼버

아나로그(1544-895)

COOPERATIONS 타이월피겨, 홀하우스, 지프, 킥삼버(02-546-7764)

TP

사실 우리 비치 타월까지 관심을 갖기엔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런 소품에 미친다는 사실 아~. 거 참 번거롭게!!

WINDBREAKER

조금은 쌀쌀한 해면의 밤,
여자에게 걸맞은 벗어 건넬 줄 아는 남자가
여자의 걸맞은 벗길 수 있는 법.



속이 비치는 레몬색 옷은
(백 2입)에서 자우하메가
입으셨는지
155,000원 비우데

오렌지 부분엔 열은
드르 무나가 발뺌함을 더한다.
159,000원 푸마

일라스트만을 연스카운 타이포
디자인의 바람막이
가격 미정 아디다스 네오라벨

강렬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바람막이
218,000원 프레드세리

밀라타리 재킷 디자인을 상큼한
파란색으로 세련되게 마무리했다.
299,000원 나이키

COOPERATIONS 바우디(02-3446-6949) 푸마(02-504-4008) 아디다스(02-3447-7701) 프레드세리(02-3446-7728) 나이키(02-3446-7232)



한여름 밤 해변은 늦의 열기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망명이다.
바람막이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얇은 것과 색상이 화려한 것이 좋다.



STYLE
GROOMING

SELF TANNING AT HOME

방구석에서도 태닝이 가능하다고?



셀프 태닝 제품
선물 받기

질 균운 게 먹음직스러운 번이다.
BY 고현복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조주희

☞ 태양에 직접 피부를 노출하지 않고 구릿빛 피부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잠시 동안 피부에 화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한 번 버리면 3~7일 정도 유지되니 여름 한철만 구릿빛 피부를 원한다면 시도해보자. 사용법도 간단하다. 저렴하기까지 하다. 올레

TIP

1. 셀프 태닝 일주일 전에 각질을 제거하고 털을 밀자. 단, 해는 밀면 안 돼.
2. 손도 강게 염색되지 모르니 제품을 바른 뒤 비닐장갑이나 스콘지를 이용해 꼼꼼히 발라라. 손바닥으로 해결했다면 깨끗이 씻는 수밖에.
3. 피부에 제대로 착색될 때까지 약 3시간 들은 일러한다. 염도 흘리지 마.



자이자 셀프 태닝 페이스크림 + 셀프 태닝 바디 로션

얼굴이 갑자기 시커맴게 변할까 봐 걱정했는데, 바디 로션에 비해 얼굴 발색은 조금 달했다.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도 사용처에 따라 발색의 차이를 두다니 놀란다. 근데, 내 몸이 얼굴보다 원래 더 까맸던 것 같기도 하고.
50mL + 200mL 52,000원
(각 28,000원)



유포트 썬리스 나이트 골드 태닝 타슈

몰타슈처럼 생긴 요놈의 율기가 마름 때까지(약 5분) 원하는 부위에 쓱쓱 문지른 후 3시간 정도만 기다리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천연 DHA가 함유된 식물성 성분이 들어 있다. 원가 좋은 거겠지. 몰타슈 타입이라 아주 촉촉하고, 제품이 한 곳에 못치지 않고 구석구석 고루 잘 발린다.
15매 + 15매 16,800원



유포트 더블 트리트먼트 썬리스 셀프 태닝 크림

모든 제품 중 가장 발색 효과가 좋았던. 저만 제품이 문지려 있던 곳에 얼룩이 졌다. 게으른 에디터의 손놀림으로 건성건성 발라서 안되도 모르겠다. 다시 맘을 잡고 제대로 비벼보고 했지만. 생각만 했다. 독자님이 해보고 괜찮다면 알려주길. 막이 한 겁 생긴 느낌 이 좀 답답한 게 흠.
200g 29,800원



마몽드 썬머 보디 글로우 로션

제품을 바른면 한동안 물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끈적거리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일반 보디 로션을 바른 느낌과 다르지 않다. 발색력 토너먼트에선 4위에 그쳤지만, 제품을 바른 곳 아닌 곳의 색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서 만족스럽다.
130mL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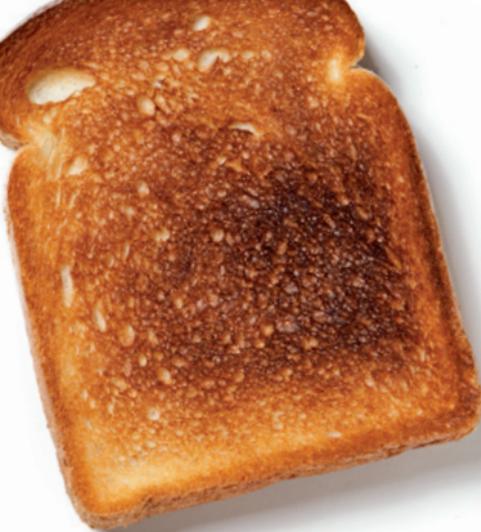
IBIZA TANNING

클럽이냐 태닝 숍이냐?

귀찮게 어떻게 혼자서 태닝하나.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왕 대접 받으 태닝 받고자 하는 독자를 위해 요즘 가장 핫한 태닝 숍 '이비자 태닝'을 소개한다. 11 태닝 상담으로 고객의 피부상태와 원하는 태닝 컬러를 꼼꼼히 체크하고, 국내와 유럽 DHA 시간대별로 일렉트로닉 딥 하우스 리운지 음악을 들려줘서 지루할 틈이 없다. 구하라, 강자영, 니콜, 현아와 기운, 효연, 가희, 제시가 고재석, 유호준, 최시원, 중현, 세븐과 박한별(박현) 등이 이집 단골이다. 국내 유일 24시간 오픈 태닝 숍이며 서울엔 대현로, 홍대, 압구정, 논현엔도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부천과 일산, 부산 진구에도 있다.



홍대점



Let's Drink

바깥 구웠더니 목마르지?

☞ 설탕 태닝은 태강에 직접 실을 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수분 공급 조치가 필요 없다. 하지만 설탕 태닝 후 하루 중일 햇빛 아래에서 놀았다면 해기가 다르지. 미끈 오징어보다 반건조 오징어가 좋은 이유를 당신 몸에 곧 비유하고 싶진 않지만 말이다.

HELP



SHAWTY

(0)비자 태닝 입구정 본점 매니저

- 11진문 태닝 상담 경력 7년 차 베테랑
- 본점에서 국내 연예인의 태닝 컬러 관리 담당

COOPERATIONS 비오템(02-3407-9079) 크리니크(02-3014-2961) 메몽드(080-023-5454) 아비자태닝(www.abizatae.com) 우림(www.yulif.co.kr) 02-226-8221) 자미자(www.zamija.co.kr) 02-423-0287) 오리진스(02-3440-2838)



비오템 레 꼬포렐 바디 밀크

오렌지와 자몽의 상큼한 향이 피곤에 찢든 몸에 싱그러움을 불어넣는다. 냄새가 좋아서 자꾸 물에 코를 부비지 않게 된다. 순수 플랑크톤 성분이지외선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세포 재생을 촉진해 피부가 윤기 있고 촉촉해진다.

200mL 40,000원



마몽드M 토탈 솔루션 에너자이징 젤

싱글한 애플 성분이 들어 있는 하얗빛 제품이 상큼하다. 흡수가 빠르진 않지만 피부 속까지 촉촉하고 끈뭇해진 느낌이 든다. 피부 톤 개선, 각질 개선 효과는 물론, 부기까지 산정해주준다. 5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덜어 얼굴 전체와 목까지 바르자.

100mL 18,000원



크리니크 딥 콜포트 바디 모이스춰라이저

시아 버터가 피부에 부드럽고 매끄러움을 선사하는 크림 타입 제품. 민첩한 흡수력을 자랑하며 끈적임이 전혀 없다. 향신화제가 들어 있어 유해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노화까지 방지한다. 수분 하나 공급하려고 했을 뿐인데 회복할 것 같다.

200mL 30,000원



오리진스 세이브 더 메일

오일 프리 타입의 모이스처라이저로, 아보카도, 해바라기씨, 오이 등의 성분이 섞인 향이 기존 오리진스 특유의 풍선껌 냄새와 다르다. 환약으로 착각할 만한 독특한 냄새 때문인지 내장까지 건강해진 느낌이다.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해 잔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75mL 42,000원

HOT SPOT

자상낙원이 여기 있네

이름: 아비자 워터 사이드

장소: 경기도 가평

아비자 태닝 회원만을 위한 무료 야외 태닝 장소로, 가족단위와 아닌 오직 성인만을 위한 장소(20세). 뒷바라지 동기는 예를 따윈 없고 멋진 누나들만 가득 채우는 일이다. 아비자 회원카드를 지칭한 명칭이 있다면 친구 3명까지 이용 가능 하고 할인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회원카드에는 아비자 태닝에서 최소 5번 태닝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된다. 오늘부터 태닝 시작



COOL BELT

재킷을 벗어던진 여름, 허리에 힘을 주자.

BY 고경희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림

- 1 하얀 울겔무늬가 시원한 벨트 210,000원 보스 블랙엔
- 2 옅은 갈색 가죽 벨트 78,000원 지마크
- 3 천 소재는 자켓 가벼워 보일 수도 있으나 면바지를 허용한 회사에서만 사용하자. 48,000원 커버넌트 by 피나클
- 4 최세템이 살짝 도는 남색 가죽 벨트 115,000원 시스템유르
- 5 가죽을 엮은 벨트 78,000원 지마크
- 6 천과 가죽이 적절히 섞여 어디든 어울린다. 95,000원 프레드페리



THE

MAXIM PARTY

2011.07.22 © ANSWER

DRESS CODE

SEE

THROUGH
escape **LOOK**

Music by
AstroVoize

+plus

Dguru / Gon / Drill / Hyde
Insidcore and VJ SIN

Glasses by **ALO**
EYEWEAR SPACE



Free Maxim Gifts

COVER 30,000WON
RESERVATIONSVIP 01089788017

2011. 5. 21

THE MAXIM PARTY



WHO'S THAT GIRL?

지난 5월 MAXIM 파티 포스터를 공개하자마자
 "도대체 포스터 속 그녀는 누구냐?"라는 문의가 폭주했다.
 MAXIM을 꾸준히 봐온 독자라면 포스터 속 훌륭한 처자가
 전년도 MSS MAXIM 콘테스트 우승자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
 MAXIM 파티 포스터의 등장해 클러버들은

"이제껏 수많은 파티가 있어왔지만

이렇게 위풍당당한 포스터는 처음"

이라며 예뻐서를 향해 짐짓들 물어 보았다.

MAXIM 파티 포스터는 앞으로도 푸욱 MSS MAXIM 콘테스트
 우승자들이 장식할 예정이다.



MAXIME 등장하는 핫한 그녀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클럽 곳곳에 숨어있는 MAXIM GIRL, 당신은 몇 명이나 찾았나?

BY 김희성
PHOTOGRAPHS BY HOSPITAL PHOTOGRAPH
COOPERATIONS CLUB ANSWER, ESCAPE KOREA



WHO'S THE NEXT PARTY GIRL?

2011 MISS MAXIM 콘테스트가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에서 진행 중이다.

자신이 직접 올린 셀프 화보의 다운로드 수가 가장 높은 참가자가
MAXIM과 화보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다
(이런 호 우승자의 비키니 화보가 궁금하지? 259쪽 고고성).
당신 손으로 MAXIM 화보나 파티 포스터의 주인공을
직접 고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홈페이지 좌측 상단

'MISS MAXIM CONTEST' 를 클릭할 것

아리따운 여성들이 당신의 한 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다음 달 MAXIM의 파티장은 누가 될지 벌써 궁금하지 않나?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THE MAXIM PARTY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부터 CLUB ANSWER 앞은
 일종의 기다리는 긴 줄로 이미 만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등이 뽕 무렵까지도 사람들은
 도통 집에 갈 생각을 안 했다.
 이에 우리는 감사의 의미로 다양한 선물을
 MAXIM 로고가 박힌 MAXIM BAG에 담아 마무리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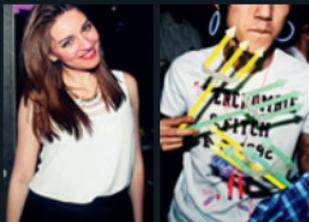
파티 현장
 더 보기





BUY ME A DRINK

이 날 우리는 'BUY ME A DRINK' 스티커를 임팩트들에게 나누었다.
 이 스티커를 몸에 붙이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면 심해서 다가가
 "우주라이프뽀뽀드링크?" 라고 물어보거든 심해서 된다.
 혹시 마음에 드는 그녀가 'BUY ME A DRINK' 라고
 적힌 스티커라도 몸에 붙었다면 이 날은 대박인 거지.
 이 스티커의 의미는
 '술이 핑거요', '나 오늘 한기해요', '시끄럽고 술이나 사' 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녀가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건 당신의 몫이다!



NEXT PARTY, COMING SOON!

이번 파티를 놓쳤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MAXIM 파티는 매달 열리니까.
 MAXIM에 등장하는 화보 속 그녀들도 오나?
 두말 하면 잔소리,
 플로어 곳곳에 찾은 MAXIM GIRL들을 심어 놓을테니
 매의 눈으로 찾아보도록!

MAXIM BUYER'S EDGE



스왑치, 풀 블러디드 컬렉션 출시

스왑치가 시크한 감성의 크로노그래프 시계 풀 블러디드(Full Blooded) 컬렉션을 선보인다. 풀 블러디드 컬렉션은 비활성제 사용되는 폴리머의 소재와 케이스와 알루미늄 브레이슬릿을 채용해 놀랄 만큼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한다. 남성용과 여성용 2가지로 출시되며 다양한 컬러를 선보인다. 다이얼에 해골 패턴을 넣어 트렌디한 느낌을 더한 풀 블러디드 스틸 2종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가격 19,000~26,000원 www.swatch.kr

더위를 이기는 드링크 그레이 구스 포아

무더운 여름, 땀이 시릴하면서도 상쾌한 것이 당기는 계절이다. '그레이 구스 포아'는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은은한 달콤한 앙주 배(Anjou pear)의 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천연 배 플레이버드 보드카다. 글라스에 얼음을 가득 채운 후 구스 포아와 토닉 워터를 채워 마셨을 때의 상쾌함은 워터 파크의 물보라보다 짜릿하다.

가격 6만 원대 문의 070-4468-9722



아디다스 포르쉐 디자인 스포츠의 'FS 플립 플랩'

아디다스 포르쉐 디자인 스포츠(Adidas Porsche Design Sport)가 워터 스포츠에 특화된 슬라이드인 FS 플립플랩(Flop Flip)을 선보인다. 착용감과 접지력 모두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제품이다. 세계 최초로 신세계 명품점, 아디다스 퍼포먼스 콘셉트 스토어 입구정점, 대치점 롯데 명동점과 포르쉐 디자인 스포츠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가격 19만 원 문의 02-2186-0403



시스템 옴므, 크루즈 보트 슈즈 출시

슬림스타일라이프를 표방하는 시스템 옴므가 반디지하고 시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크루즈 보트 슈즈를 선보인다. 호록색의 신뜻한 색감과 뛰어난 착화감이 돋보이며 가볍고 때가 잘 타지 않는 것이 특징. 뜨거운 여름 시즌 여유로운 감성을 표현하고 싶은 남성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가격 286,000원 문의 02-3416-2552

남성 향수, 노스트럼엔 아웃드랄렛 한정판 출시

전 세계 셀러브리티가 사용하며 극찬한 글로벌 NO.1 향료 회사 '지모단(GIVAUDAN)'이 제작한 한정판 향수가 국내에 출시된다. 자크 에블리나 프랑스 디자이너 알베의 합작으로 지중해 피드를 형상화한 심플한 디자인을 채용했다. 신선한 프루티 향조를 더한 우디 계열이며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 향수로서 신뜻함과 세련된 향이 무더운 여름에 잘 어울린다. 자케스샵과 롯데닷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 65,000원(100ml) 문의 02-656-1990



HTC EVO 4G+로 더욱 빨라지다

HTC EVO 4G+는 기존 3G 네트워크보다 약 3배 빠른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와이브로(WiBro)를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4G 안드로이드 탑재 폰이다. 여기에 펄럼 스냅드래곤 1.2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화려한 그래픽과 빠른 처리 속도를 뽐낸다. 7월 1일 출시 예정. 문의 02-2263-4754

한국타이어,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 BMW OE(신차용 타이어) 공급 시작

한국타이어가 BMW에 OE 타이어(Original Equipment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글로벌 프리미엄 타이어 브랜드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한다.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되는 한국타이어의 최고급형 타이어 '벤투스 프라임2(Ventus Prime2)'는 광범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BMW의 미니(MINI)에 장착된다.

www.hankooktire.com

VENTUS PRIME 2





창작 연극 시리즈 엄이사의 새로운 작품 개막

창작 연극의 메카인 극단 연극하는 엄이사에서 연극 (영크래는 소화불량이다)로 창작 연극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이번 작품은 연극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빚어 갈망장망하는 이 시대 청춘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연극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봐도 좋은 작품. 대학로 SM아트홀에서 볼 수 있다. 공연 기간은 단 7시간! 예매를 서두르자.
가격 20,000원 문의 070-4320-2575

남성 시계 ck drive 출시

시크한 도시 남성의 세련된 이미지와 느낌을 캐주얼한 아웃도어의 느낌 둘 다 포괄할 수 없는 남성에게 완벽한 ck drive가 출시된다. 마네탈 클러스와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의 심플한 조화가 돋보이며, 역동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가격 550,000~580,000원
문의 02-3149-9562



세로텍, HDD 도킹스테이션 하드독 출시

HU-10E는 연결 케이블이 부족함으로 되어 있어 IDE HDD에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DE 케이블은 제품 전면에 있는 수납공간에 보관할 수 있어 관리하기도 편하다. 여기에 차세대 인터페이스 USB3.0, 3TB HDD 독을 동시에 지원해 보다 빠르게 대용량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다. 문의 02-6370-8081



소니코리아, 무선 3D사운드 헤드폰 MDR-DS6500 출시

MDR-DS6500은 소니의 7.1ch 음향 기술을 통해 7개의 스피커가 사방에서 울리는 것과 같은 생생하고 현실감 넘치는 3D사운드를 제공한다. 3시간 충전으로 최대 2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가격 269,000원 문의 02-6370-8085

스파클링 와인 버니니, 새 버전 출시

달콤한 첫맛과 청량함으로 남녀노소에 인기 있는 와인 '버니니(BERNINI)'가 가벼워진 새 버전을 출시했다. 풍부한 과일과 아카시아 꽃의 진한 향을 적고 가벼운 병에 담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적 와인을 즐길 수 있게 구성했다. 신사와 함께 맥/이데, 갈증 해소용 위해 맥주처럼 마시기도 적합한 제품. 문의 02-512-5270



닛산 리프, 유로 앤캡 최고 안전 등급 획득

닛산 자동차는 배출 가스가 전혀 없는 100% 전기차 전륜(EAF)가 유로 앤캡(EURO NCAP)의 충돌 안전성 평가에서 전기차 사상 최초로 별 5개의 최고 등급을 획득. 최고 안전 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로 앤캡은 유럽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 안전성 검증 프로그램으로 엄격하기로 유명해, 평가 결과는 전 세계 자동차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의 02-2085-8854

세계 비보이 마스터즈 챔피언십 (R-16 KOREA 2011)

세계 5대 비보이 대회 중 하나인 R-16 KOREA 2011이 7월 2, 3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된다.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세계 9개국 예선전 통과자 200여 명과 한국 대표가 참가하며, 게스트 공연으로 박재범의 비보이팀인 'ADM'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필름, 뮤직 비보이 등의 다양한 장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www.r16korea.com





휴가지에서도 돋보이는 반스 플립플랍

여름을 위해 준비하려는 군요. 섹스 있는 수염복커지 준비했지만 여기에 심신 슐리퍼를 신을 수는 노릇이다. 이번엔 출시된 반스의 플립플랍은 반스 고유의 바둑판 체크 디자인부터 밀리터리 패턴까지 다양한 색상과 워트 있는 감각으로 무장했다. 반스 플립플랍은 휴가지 패션의 화룡점정을 찍자.

가격 39,000원 문의 www.abcmart.co.kr

ONE FOR ONE의 또 다른 시작, 탐스 아이웨어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할 때마다 한 켤레를 신발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One for One의 탐스. 이번에는 '탐스 아이웨어'가 선글라스 한 켤레를 구매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과 치료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6월 동안 One for One Store를 통해 탐스 슈즈와 탐스 아이웨어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가격 189,000원 문의 1544-5334



연극 <내 이름은 김삼순> 티켓 오픈

대형로 극장가 최강 로맨티 코미디 <내 이름은 김삼순>이 리얼한 새 캐스트와 함께 다시 돌아왔다. 까드남 '장도영' 역에는 드라마 '구수재' 요가의 배우 김보라와 뮤지컬 '그리스'의 떠오르는 신예 유한수가 캐스팅되었다. 연극 무대의 한정길 덕분에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연극 <내 이름은 김삼순>은 대형로 상영아트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전석 3천 원 문의 02-764-8760



사진 에세이 FACEHUNTER

성공한 스트리트 패션 사진작가인 이반 로빈(Ivan Robic)의 첫 번째 사진 에세이집을 선보인다. 영국 로열 템스 허드슨(Thames & Hudson)사와 공동 제작한 한정판 에디션으로, 그의 불로다 이롭고 같은 제목이다. 전 세계 아름다운 도시를 돌아다니며 찍은 멋진 인물 사진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작품 306컷을 한 권에 담고 있다. 유미미한 스타일링의 화하고 독창성이 돋보이는 스타일링에 이반 로빈의 재기 넘치는 팔라한 코멘트가 생생하게 다가온다.



루미녹스의 F-22 Raptor™ 크로노그래프

루미녹스 F-22 Raptor™ 시리즈는 메트로폴리타인 군용 전투기 F-22™의 디자인과 성능을 재창조해 반영한 제품이다. 블랙 PVD 코팅 처리된 44mm 티타늄 케이스 모양은 비행기의 몸체, 크라운은 비행기의 엔진에 반영했으며 다이얼의 수, 색깔 및 라이트 테크놀로지(Light Technology)는 F-22™의 실제적인 대시보드처럼 디자인했다. 최고의 걸작 전투기의 영감을 소유하고 싶다면 루미녹스의 F-22 Raptor™ 시리즈에 주목하라.

가격 1,399,000원 문의 02-757-9866 www.luminotwch.co.kr

이니스프리, '화산 송이' 모공을 관리한다

바닷이 아니라 송이만 채운 채로도 방언으로 가운은 돌아온 듯으로, 고열에 의해 도자기처럼 소성된 아주 희귀한 송이이다. 2012년 전 제주도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송이가 굳어 만들어진 청정 화기 원료인 화산 송이는 송이버섯 6배 더 강력한 흡착력, 여드름 황도보다 뛰어난 피지 흡착력, 노폐물 제거 능력을 자랑한다. 트러블을 유발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까지 있다. 스킨 태일, 모공 마스크, 모공 토너, 모공 케어까지 총 4가지 단계로 만들어진 패키지는 3천 원.



컨버스, 네온컬러 로드머신 시리즈 출시

무 시은 최고의 패션 아이템 런칭을 앞두고 구매자 없었던 컨버스에서 출시된 '네온컬러 로드머신 시리즈'를 소개하자. 화려한 디자인은 물론이거니와 무제한 공감을 통해 경량성과 편안한 쿠션까지 갖췄다. 발의 움직임에 맞추어 신발의 형태가 자유롭게 변형되어 신었을 때 느낀듯 마치 맨발인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가격 99,000원 문의 02-2046-826

올림푸스,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카메라 TG-310

방수 카메라의 원조 올림푸스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3M 방수 및 영하 10°C 방한 기능을 발휘하는 스타일리시한 보급형 아웃도어 카메라 TG-310을 선보였다. 15.9g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에 좌우 쪽을 돌려 한 손으로도 쉽게 촬영이 가능하다.

가격 328,000원 문의 1544-3200



GALAXY S2

MAXIM에서 갤럭시S2를 질러라!
13만 원 상당의 상품이 쏟아진다! **콧웃 나우!**

MAXIM에서 Galaxy S2를 질러라!

스마트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면 MAXIM과 함께 하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를 참조할 것!

감동의 눈물이 흐르지?
고민은 MAXIM이 했으니
맛잇도 신청하라고!



+ 2 가지 패키지 중 입맛에 맞게 골라 잡으시라! +

Package

1

1. MEN'S CLASSIC REFRESH 애프터셰이브
2. 뮤지컬 (그리스) 7월초 공연 R석 티켓 2장/또는 연극 (사라리가 미카랑) 6월말 공연 R석 티켓 2장 중 택일



Package

2

1. MEN'S CLASSIC REFRESH 애프터셰이브
2. 뮤지컬 (그리스) 7월초 공연 R석 티켓 2장/또는 연극 (사라리가 미카랑) 6월말 공연 R석 티켓 2장 중 택일



"내비게이션 대신 겔스2로 대동단결, 여기에 MAXIM 1년 정기구독 추가요!"



+ 애플리케이션 액세서리 (8만 원 상당)

- 액정보호필름(지문방지+D강화필름)
- 차광용 거치대
- 차광용 충전기/5핀 데이터케이블 포함
- 갤럭시S2 패션커버



"휴대성이 부족! 늘어나는 패키지, 여기에 MAXIM 1년 정기구독 추가요!"



+ 애플리케이션 액세서리 (8만 원 상당)

- 액정보호필름(지문방지+D강화필름)
- USB 2.0 포트 가용 충전기
- 갤럭시S2 스타일러스 펜
- 갤럭시S2 항공 캐리어 커버



MAXIM INSIDER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딱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을 준비가 됐나?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원하나요?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요즘 같은 세상에 공부 따윈 없는데!

- 1 MAXIM 7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를 3개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에 'MAXIM 7월호 BEST 3'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팀을 알려줄까? 참부한 이미지가 많을수록 내용이 알찰 수록 폴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커진다!
- 4 블로그나 트위터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낸다.
- 5 8월 호 MAXIM에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한다.
- 6월의 승리자는 라나이의 디너 때문에 MAXIM을 처음 사보게 됐다는 이혜린 독자다. 절대 어 자라선 빼어준 건 아니대유.

퍼출 때 가져가라고!

GIFT LIST

맨즈클래식 데일리 풀 콜렌치, BB크림/ 가스브 모이스처라이징 로션포맨, 웨이셜 워시 오일 클리어폼/TASK 설프 태닝/ 자질 앤 하이드, 그라스 카사랑기 미카펄/ 번브 티셔츠/ 반다이 프로모델/ 슬라기드 체험권 등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넘쳐나!

MAXIM 7월호 곳곳에 박혀 있는 QR 코드를 주목하라. 생생한 촬영 현장을 담은 영상은 물론 각종 이벤트와 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에서도 선물을 빼대니 즐겨찾기 하라! MAXIM은 오늘도 우리 독자들과 공화 선물을 펼치는 데러리 되라고 불췌주어 일하고 있다. 이러다 용서사 사리 나오겠넌

문약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MAXIM 트위터도 잊으!~

블랙베리 볼드 9780이 갖고 싶나



MAXIM에서 블랙베리 볼드 9780을 쓴다. 80만 원대 에 육박하는 귀한 선물을 날로 먹을 생각은 아니겠지? 블랙베리 볼드 9780이 갖고 싶다면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 1 블랙베리 페이스북 팬페이지(www.facebook.com/BlackBerryKorea)에 접속한다.
- 2 "꼭대기 출시된 블랙베리 볼드 스마트폰 시리즈 최신 모델 '블랙베리 볼드 9780' 은 블랙베리 OS 6 탑재와 함께 편리한 소셜 피드 기능, 강력해진 웹 브라우저, 프리미엄 쿼터 지핀 등 편리한 커뮤케이션으로 무장 되어있다. 당신이 볼드 9780을 가진다면 이런 기능들로 무엇을 가장 해보고 싶었는가?"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라.
- 3 블랙베리 볼드 9780을 얻기 위해 당신이 들인 노고의 흔적을 검사하여 [블랙베리 9780 이벤트] MAXIM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MAXIM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응모글이 인증 글로 올라라.
- 4 가장 재미 있는 멘트를 남긴 독자에게 블랙베리 볼드 9780 1대를 투척하겠다. 장문의 노고로 대박 선물을 쟁취할 기회니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라. 고민할 시간도 아깝다.



페이스북 바로가기

BEAT THIS CAPTION

이달의 도전과제



일문씩 달라가기

응모하기

- 1 솔직한 캡션을 써라! 솔직한 마음에서 우라!~
- 2 응모는 우편으로 (2~8월) 서울시 미포구 서도동 446-36 MAXIM HOREA 빌딩 4층 편지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쓰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아! 해! 하면 된다.
- 3 가장 MAXIM다운 일문씩을 다는 독자들에게 TASK 설프 태닝 로션을 선물로 주겠다. 뿌앙뿌앙 나리 나리!



AND LOSER 이 패배자들!

- > 후배 위하는 선배 노렸어! - **홍남두**
MAXIM의 연애 기사를 직접 읽은것보다 점만 높이 사겠다.
- > 싫어, 고개야! - **이진호**
재개업하고 고개야라는 표현을 일러줘 고맙지만 창의력이라고 코퍼자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 > 홍남님 입맛 배려요 ㅎㅎ - **허태현**
독자님, 저최고는 배려요, ㅎㅎ

WINNER "난 내 다의 외곽이라고" 자선 기부 우승자 - **크리스탈 한양**

까칠한 차드남 개작가의 뒤편을 예뻐한 눈빛으로 웃고 있는 호랑이가 안타까웠던 삶에 어떤 달도 어이없는 설프드림이 날쳐 올랐다. 난우라는 설프드림 속에 '외곽 드림'으로 예뻐하게 울루수를 뽐내 한 크리스탈 한 양 님에게 연애편지 편을 보낸다. 크리스탈 한 양이라는 님에게는 자신이 다른로 슬로아이를 확실히 인문한 전러도 높이 살만했다! 언제 비비미가긴 보물 같은 책이 있자!는 수컷에게 돌아오는 끝은 예뻐도 눈뜨고 볼 수 없었나!





6 개월 정기구독 정가 32,400원 할인가 29,400원 3천원 할인 + 1000원 적립	12 개월 정기구독 정가 64,800원 할인가 57,800원 7천원 할인 + 2000원 적립	24 개월 정기구독 정가 129,600원 할인가 114,800원 만5천원 할인 + 4000원 적립	36 개월 정기구독 정가 194,400원 할인가 164,400원 3만원 할인 + 6000원 적립	48 개월 정기구독 정가 259,200원 할인가 209,200원 5만원 할인 + 8000원 적립
--	---	--	---	---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 2 무동장 입금(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99-910012-00904 국민은행 183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8161

▶ *'맥'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든 대안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맥=1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연극 (키사라기 미끼장)



과월호 11인 패키지 (1~12호)



멘즈클래식 Double Effect BB Cream



가스비 Perfect Scrub



반다이 칭품 프리모델



뮤지첵 (그리스)



뮤지첵 (자질 앤 하이드)



TASK Self Tanning

사은품은 조기 발송되는 경우가 많으나, 공급량이 선 선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사은품의 사은품을 확인하려면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아이들을 집으로



MAXIM 독자라면 당연히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지고 있을 터. 자다가 공인하는 당신의 매의 눈을 좋은 일에 써보자. 이 아이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다. 당신은 악자를 푼줄 아는 진짜 남자니까!



발생 일자
2003. 11. 22 (토)
발생 장소
충남 공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앞
신체 특징
왼쪽 손등에 화상 자
국, 얼굴에 보조개
가 있음

유채빈
당시 만 2세, 여



발생 일자
2003. 10. 10 (금)
발생 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신산 성불사
신체 특징
일차형 짙은 눈썹,
머리술이 많음, 생식
기에 붉은 반점

모영광
당시 만 2세, 남



발생 일자
2003. 09. 05 (금)
발생 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동리
신체 특징
이마와 눈썹 쪽에
짙어진 상처,
배에 검은 반점

김대현
당시 만 3세, 남



발생 일자
2003. 02. 06 (목)
발생 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체 특징
눈썹이 진하고
선명한 것이
특징임

김유섭
당시 만 8세, 남



발생 일자
2002. 11. 12 (화)
발생 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신체 특징
오른쪽 다리와
이렛배 부분에
화상 흉터

김은지
당시 만 4세, 여



발생 일자
2002. 10. 05 (토)
발생 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신체 특징
실종 당시에
감색 모자를 쓰고
있었음

최재현
당시 만 2세, 남



발생 일자
2002. 05. 28 (화)
발생 장소
충북 진천군
광혜면
신체 특징
치아가 고르지
않고 뿔쫂한
모양임

강송이
당시 만 8세, 여



발생 일자
1984. 11. 01 (목)
발생 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리역
신체 특징
생후 10개월 경
실종 발생

박훈남
당시 10개월, 남



발생 일자
2001. 06. 01 (금)
발생 장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광동리 주변
신체 특징
앞니 1개 빠짐
왼쪽 코에
물린 자국 있음

김하은
당시 만 7세, 여

제보처

실종아동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위탁

02-777-0182

<http://www.missingchild.or.kr>



권원 사모트
바도가기



김경인
당시 만 9세, 남

발생 일자
1994. 08. 27 (목)
발생 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집
신체 특징
뽀얀 피부,
쌍꺼풀 있음,
엉덩이에 까만 점



FX 채널 맛보기
과일도 받기

FX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채널이다.



FX
남자의 모든 것

tcast



www.fxchannel.co.kr

Copyright FX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MAXIM

KOREA

브라질 남자들의 로망
TV리포터

Mônica
Apor

FIGHT
차세대 전투기 사업
그래서 차세대는?

빈 라덴 죽으면 테러 끝나나?
하마 VS 악어
잘린 손가락 붙이기

ROBOT
간담 월드 엑스포

트랜스포머3
로봇 총집합

HERE WE COME
나르샤, 한혜린
최효종, 김동현
한지은, 최혜연

잡지 표지 모델만 16년
ICON
달인 김병만

STYLE
BEACH
FASHION
이렇게 해

허리에 힘을 주는 벨트
태양 없이 태닝하기
수분 충전 아이템

DRINK
인류 최초의 맥주
코카콜라의 125년

MUSIC
인디밴드 몽구스

JULY 2011



www.maximkorea.net